금주의 법구-〈장부경전〉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에 힘써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2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10월 21일)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등 밝히며 월정사 탑돌이 스님들이 염주를 들고 부처님 가르침과 공덕을 노래하자 신도들도 뒤를 따라 등을 밝히고 탑을 돌며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강원도무형문화재 제28호 월정사 탑돌이다. 월정사탑돌이보존회는 11월 17일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앞에서 '월정사탑돌이 2018 전승발표회'를 개최, 사부대중 200여 명과 탑돌이를 시연했다. 사진은 스님들이 전승발표회에서 작법무를 펼치는 모습. **글=윤호섭 기자 · 사진제공=월정사**

성전 편찬 본격화… '시대 눈높이' 화두

조계종 포교원 11월 21일 불교성전 전문연찬회 개최

사상 첫 종단 성전 편찬에
형식 · 내용 두고 입장 달라
용어 정립 · 친절한 해설 일치
디지털 성전 등 후속 요청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이 추진하는 첫 표준 불교성전 편찬의 본격화에 맞춰 새 시대 눈높이에 맞춘 성전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불교성전 편찬을 위한 전문가 연찬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내 불교성전으로 판매되는 도서는 총 13종 16권으로 1972년 동국대 역경원 〈불교성전〉이 가장 공신력 있는 판본으로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초판 발행 후 40년이 흘러 재번역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태다. 조계종에서 종단 표준 불교성전을 발간하는 것은 처음으로 조계종은 관련예산 1억 8300만원을 배정, 2018년 역점 사업으로 성전 편찬을 진행하고 있다.

정전 · 요전 등 형식 두고 논쟁

현재 사상 첫 종단본 불교성전 발간에 방향을 두고 입장이 다양한 입장이 나오고 있다. 경전의 내용을 모두 담는 정전 형식과 발췌하여 주제별로 편집이 가해지는 요전 등 형식에 대한 방향 제시다.

이중표 전남대 교수는 "그동안 요전은 종단뿐만 아니라 불교 각계에서 많이 나왔다. 종단본 불교성전이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정전이 되어야 한다. 정전으로 본다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경을 짜깁기 하는 형식이 아니라 성전에 실릴 경전을 선발해 총지를 모아야 한다"며 "종단이 선불교를 표방한다면 선어록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회의원 주경 스님도 "불교성전은 불교 최고 법전이다. 불교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기본적으로 담아야 한다. 아주 오래 긴 시간, 기독교 성경과 같이 수백 · 수천년 이상 가야 한다. 부처님 경, 율까지만 오롯이 담는 성전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그 외의 내용은 차후 과제로 삼았으면 한다"며 정전 형식에 손을 들었다.

이에 반해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은 요전 형식으로 대중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 스님은 "성전은 비불자가 봐도 소장하고 싶어야 한다. 초심자는 물론, 불자와 비불자 등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하며 보다 쉽고 편한 문장을 선택해야 하며, 주제별 요전 등 방식이 대중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前 동국대 역경위원 이미령 박사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박사는 "잠언집 형식의 요전과 정전 두 권이 바람직하다"며 "기독교가 〈성경〉〈성서〉라는 이름을 갖고 있듯이 조계종이 가려 뽑은 정경(正經)을 추리는 작업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시청각 불교성전도 필요

불교성전은 시대에 맞는 포교전법의 근간으로 삼기 위해 발간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다. 특히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성전의 필요성도 현장에서 제기됐다.

정승석 동국대 교수는 "성전이 신행과 수행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대중들이 읽기 좋게 만들어야 한다. 현대의 언어와 친숙한 풀이 등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신행활동에 있어 성전이 보기 좋은 비치용 경전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책을 오래 읽지 못하는 세대, 모바일 세대에 맞춰 디지털 성전 등도 함께 추진 했으면 한다"고 바램을 피력했다.

조계종 교육아사리 현석 스님은 "성전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경전이 아니라 기존 경전을 편역해 출판하는 것"이라며 "만해 스님의 불교대전 등 이미 주제별 재구성한 것들이 있다. 시대에 맞는 각주나 풀이가 아쉬운 만큼 적절한 해설도 가미해 대중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요청에 불교경전과 정보 등을 망라한 M라이브러리 사업을 추진한 포교원에서는 불교성전을 향후 모바일 버전 등으로도 제작할 계획도 밝혔다.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신행을 바르게 이끄는 불교성전이 필요하다"며 "불교성전이 제대로 보급, 활용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성전, 청년층 모바일 성전 등도 필요하다. 성전 편찬 후속 작업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국 선원 불퇴전 정진 다진다

조계종 · 태고종, 11월 22일부터 3개월간 동안거

불기2562(2018)년 무술년 동안거가 결제됐다. 깨달음을 찾아 전국 선방에 방부를 들인 운수납자들은 3개월간 불퇴전의 용맹 정진에 들어갔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11월 22일 동안거 결제를 맞아 결제법어를 통해 "이번 안거에는 대오견성 하겠다는 태산 같은 용맹심과 불퇴전의 각오로 매일매일 새롭게 발심과 신심을 다져야 할 것"이라며 "화두참선은 오래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챙겨도 뼈골에 사무치는 간절한 마음으로 화두와 씨름하듯 챙기고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동안거는 결제 전날인 21일 저녁, 결제대중이 모인 가운데 각자의 소임을 정하는 용상방(龍象榜)을 작성하고, 결제 당일 오전 사찰별로 방장 스님 등의 결제법어를 청한 뒤 3개월간 참선 정진에 들어갔다.

조계종에서는 안거마다 전국 100여 선원서 2000여 명의 수좌들이 방부를 들여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사찰 스님과 신도들도 이 기간 동안 함께 정진한다.

태고종 또한 이날부터 동안거 결제에 들어갔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결제에 앞서 "납자의 본분인 화두공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바깥 경계에는 잠시 눈을 감고, 내관에 집중해 석 달 후에는 출격장부의 모습으로 대면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종정 및 총림 방장 법어 A6면〉

불교출판대상 '의상구법 건축순례' 올해 불교음악인상 반영규 작사가

출판상 12월 12일 · 음악상 12월 4일 시상식

제15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에 김승제의 〈의상대사 구법 건축순례행기〉(조계종출판사)가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과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는 '제15회 불교출판문화상' 선정 결과를 11월 22일 발표했다.

대상은 김승재의 〈의상대사 구법 건축순례행기〉가, 우수상에는 김성구의 〈아인쉬타인의 우주적 종교와 불교〉 · 이진경의 〈설법하는 고양이와 부처가 된 로봇〉이 선정됐다. 수향번역상에는 〈번역으로서의 동아시아〉가, 붓다북학술상에는 김영진의 〈중국 근대불교학의 탄생〉이 이름을 올렸다.

입선에는 〈선원일기〉 · 〈수미 런던의 가족을 위한 명상〉 · 〈스님의 남자친구〉 · 〈팔만대장경 1, 2〉 · 〈송시의 선학적 이해〉 등이 선정됐다.

대상 및 우수상은 출판사와 저자가 공동으로 수상하며 대상 상금은 1,000만원(출판사와 저자 각 500만원), 우수상은 400만원(출판사와 저자 각 200만원)이다. 수향번역상은 출판사와 번역자에게 각각 100만원, 붓다북학술상은 출판사와 저자에게 각각 100만원, 올해의 불서에 선정된 나머지 5종의 도서는 출판사에게 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2일 오후 6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이와 함께 불교음악인들을 격려하고 치하하기 위한 '제4회 불교음악상' 수상자도 11월 22일 발표됐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현법)는 '제4회 불교음악상' 불교음악인상에 에서는 반영규 작사가(前 불교음악협회장)를, 불교음악신인상에는 한정일 지휘자를 선정했다.

반영규 작사가는 1970년대부터 '자비의 소리' 포교지를 발행하며 불교포교에 앞장섰으며, 글과 음악을 통해 척박한 불교음악계에 찬불가를 보급했다. 부처님오신날 최초 기념음악회 및 예술제 등을 시작으로 여러 공연기획과 연출을 진두지휘했다.

한정일 지휘자는 현재 약사사와 기원사 합창단 지휘자를 맡고 있으며, 불교합창단의 상호교류와 불교음악발전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18 제5회 신작찬불가 공모사업' 결과도 발표됐다. 올해 공모 수상작은 '내 마음에 눈 내리면(작사: 곽영석 작곡: 이순희)', '밝은 달(작사: 홍은지 작곡: 홍은지)' 등 총8편이다.

불교음악상 및 신작찬불가 공모 시상식은 12월 4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양력	음력	요일	법문하실 품	법사
12.07	11.01	금	입재법문/화엄경 현담	방장스님/무비스님
08	02	토	세주묘엄품/여래현상품	법산스님
09	03	일	보현삼매품	자광스님
10	04	월	세계성취품	동훈스님
11	05	화	화장세계품	경성스님
12	06	수	비로자나품	종곡스님
13	07	목	여래명호품/사성제품	연각스님
14	08	금	광명각품/보살문명품	도일스님
15	09	토	정행품/현수품	보선스님
16	10	일	승수미정상품/수미정상게찬품	보광스님
17	11	월	월하스님 다례(오전)/십주품	월하스님 추모다례/혜철스님
18	12	화	범행품/초발심공덕품	용학스님
19	13	수	명법품	수불스님
20	14	목	불승야마천궁품/야마천궁게찬품	종호스님
21	15	금	십행품/십무진장품	심산스님
22	16	토	승도솔천궁품/도솔천궁게찬품	지안스님
23	17	일	십회향품 1-5	수진스님

1주차 2주차 3주차

제48회 통도사 화대 엄법 산림 회

양력	음력	요일	법문하실 품	법사
12/24	11/18	월	십회향품 6-10	정인스님
25	19	화	십지품	선지스님
26	20	수	십정품	정안스님
27	21	목	십정십통품/십인품	무애스님
28	22	금	아승지품/여래수량품	현진스님
29	23	토	제보살주처품/불부사의법품	도문스님
30	24	일	여래십신상해품/여래수호공덕품	각성스님
31	25	월	벽안스님 다례(오전)/보현행품	벽안스님 추모다례/우진스님
1/01	26	화	여래출현품	혜남스님
02	27	수	이세간품	시명스님
03	28	목	입법계품(휴사우바니까지)	반산스님
04	29	금	입법계품(비목구사~바산바연주야신)	상우스님
05	30	토	입법계품/회향법문	방장스님

4주차 5주차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천년도량에서 禪 / 敎 / 律의
큰 스승들을 모시고 화엄산림을 봉행하오니
법의 자리에 함께 하시어 복혜구족 인연 되소서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화엄산림 기간 - 총 30일
입 재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부터
회 향 2019년 1월 5일 토요일 까지
장 소 통도사 설법전 에서

동참금
영 가 동참금 2만원(1위당)
온산림 동참금 20만원
반산림 동참금 10만원

교통편
대중교통 부산 노포동 종합터미널
울산 시외버스터미널
동대구 성남고속터미널
승용차 경부 고속도로 통도 IC 통과 후 통도사로 진입

문의
기도접수처(화엄전) 055-381-1288
팩스 055-372-7010
홈페이지 www.tongdosa.or.kr

조계종 대종사·명사 법계 15명 확정

원로회의, 대종사 4명·명사 11명 만장일치로

2007년 후 명사 법계 11년 만
조계종 비구니계 숙원 해소돼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단 수행과 지도력의 상징인 신임 대종사와 비구니 명사 총 15인이 배출된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는 11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제61차 회의를 열고, 법계위원회가 추천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인 현 원로의원 우송·현호·일면·원행 스님과 비구니 명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 소림·행돈·묘관·자민·법희·수현·혜운·자행·불필·자광·재운 스님에 대한 심의 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특별전형은 법계위원회 심의와 중앙종회 동의, 원로회의 결의로 확정된다.

특히 비구니 명사 법계는 지난 2007년 10월 최초 명사 법계 품수자인 혜운·광우·묘엄·지원·명성·정훈·정화 스님 등 7명 이후 첫 배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0여 년간 명사 법계 품수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많은 스님들이 입적해 현재 명사는 광우·명성·정훈 스님뿐이었다. 이로 인해 비구니 명사 법계 품수는 조계종 비구니계의 숙원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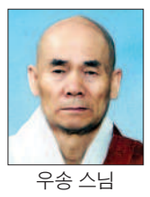
법계 품서 대상 스님들은

우송 스님은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9년 정혜사서 인규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3년 범어사서 혜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8대 중앙종회의원,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덕숭총림 선원장을 역임했다.

현호 스님은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0년 상백운암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6년 해인사서 성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8~10대 중앙종회의원, 제21교구본사 송광사 주지를 역임했다.

일면 스님은 명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4과 1967년 해인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제9~13대 중앙종회의원, 호계원장 및 교육원장, 군종특별교구장 등을 역임했다.

대종사


우송 스님


현호 스님


일면 스님


원행 스님

명사


소림 스님


행돈 스님


묘관 스님


자민 스님


법희 스님


수현 스님


혜운 스님


자행 스님


불필 스님


자광 스님


재운 스님

원행 스님은 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0년 월정사서 희찬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4년 범어사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1대 중앙종회의원과 초심호계위원을 역임했다.

소림 스님은 상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49년 수덕사서 혜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71년 수덕사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견성암 선원장을 역임했다.

행돈 스님은 법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0년 수덕사서 고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69년 범어사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대원사 주지를 역임하고 동국제일선원을 중창했다.

묘관 스님은 정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0년 해인사서 인곡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66년 해인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단일계단 니존증아사리와 니갈마아사리, 니화상 등을 역임했다.

자민 스님은 혜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4년과 1962년 범어사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각각 사미니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단일계단 니존증아사리와 니갈마아사리, 니화상 등을 역임했다.

법희 스님은 인홍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5년 홍제사서 성우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61년 통도사서 성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석남사 주지를 역임하고, 석남사 정수선원 선원장을 맡고 있다.

수현 스님은 보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5년 수정사서 대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66년 해인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학사 주지, 제11~14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혜운 스님은 뇌묵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6년 김용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66년 해인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육수암 칠보선원 선원장을 역임했다.

자행 스님은 정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7년과 1962년 범어사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각각 사미니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범어사 대성암 선원장을 맡고 있다.

불필 스님은 인홍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7년 석남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61년 통도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금강굴 및 겁외사를 창건했다.

자광 스님은 종옥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8년 내원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63년 범어사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내원사 동국제일선원 선원장, 법계사선원 선원장을 역임했다.

재운 스님은 복석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0년과 1963년 범어사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와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제11대 중앙종회의원과 단일계단 니교수아사리, 니갈마아사리를 역임했다.

"노사갈등 해결, 조계종 큰 도움"

쌍용차 노사 조계종 첫 예방



쌍용자동차가 9년 3개월 만에 노사분규를 끝내고 합의 이행을 진행 중인 가운데, 처음으로 쌍용차 노사가 함께 조계종 측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사진〉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이하 기업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이하 쌍차노조), ㈜쌍용자동차는 11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그간 노사 합의에 힘을 보탠 조계종에 감사인사를 표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고자 복직을 위해 함께해 준 불교계를 잊지 못한다"며 "노·노·사가 상생의 틀 아래서 합의한 바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득중 쌍차노조 지부장은 "자승 스님이 계실 때 네 차례 예방한 적 있지만 그때는 혼자였다. 이번 방문에는 기업노조와 사측, 공장 노동자와 다함께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무척 뜻 깊다"면서 '고맙습니다'란 문구가 적힌 수건을 원행 스님에게 선물했다.

이에 원행 스님은 "2009년부터 이어진 힘든 시간을 잘 견뎌왔다. 내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전원 복직이란 값진 결과는 불교계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앞으로 노사가 합의한 사항을 잘 이행하고 상생해나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김지원 기자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개편 '움직임'

소통과화합위원회 신설 등 논의 진행 중

대중공사·종책委 사실상 해산
온라인 소통창구 마련 검토도

2017년 조계종 前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종단 미래전략 강구를 위해 설립한 백년대계본부가 2년 만에 개편될 전망이다. 활동이 미진한 산하 위원회들은 타 위원회로 흡수하는 한편, 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공약서 밝힌 '소통과화합위원회'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는 현재 불교사회연구소·미래세대위원회·화쟁위원회·대중공사추진위원회·종책개발위원회 등 5개 위원회로 이뤄져있다. 백년대계본부 측에 따르면 5개 위원회 중 대중공사추진위원회와 종책개발위원회는 각각 신설되는 소통과화합위원회와 기존 불교사회연구소에 흡수된다. 지난 1년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개편 대상으로 지목된 셈이다.

백년대계본부 사무국장 원묵 스님은 "대중공사추진위는 신설될 소통과화합위원회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올해 대중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흡수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종책개발위 역시 종회의원을 중심으로 종책을 만들고자 했지만 원활하지 못했다. 이는 불교사회연구소에서도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 그 기능을 맡기기로 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신설 예정인 소통과화합위원회는 전방위적으로 종도의 목소리를 취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나 위원회 규모는 타 위원회보다 작게 구성하면서 온라인활동에 방점을 찍는 것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시청 홈페이지서 시민이 시장에게 직접 묻는 형식의 '총무원장이 듣습니다' 또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은 소통창구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묵 스님은 "소통과화합위는 소통의 판을 만드는 역할이기에 위원회 규모는 크지 않은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사회 변화 흐름에 따라 온라인이 더욱 중요한 소통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라며 "다만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각 부서에 전달하려면 넉넉한 실무인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외에도 백년대계본부는 원행 스님의 또 다른 공약인 불교문화창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총무원 문화부 측과 논의 중이다. 문화창달위가 백년대계본부 산하기구로 편성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백년대계본부는 현재 불교사회연구소와 미래세대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장 선임 등을 놓고 적임자를 물색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5기 장학위 구성

21일 위촉… 위원장 보광 스님

조계종 종단 장학생을 선발하는 장학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12명의 제5기 장학위원 스님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5기 장학위원으로는 동국대 총장 보광스님을 비롯해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도선사 주지 도서 스님 △총무부장 금곡 스님 △교육부장 진광 스님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 △선본사 주지 법성 스님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백련사 주지 보각 스님 △원각사 주지 정덕 스님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이 위원을 맡았다. 5기 위원장으로는 보광 스님이 위촉됐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좋은 스님들을 선발해 종도로서 사명감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원 스님들에게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국립공원 사찰보존지, 정부 홍보 부재”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불교포럼서 강연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지난 50년간 정부는 전통사찰보존지가 사유지라는 사실과 과거 1000년 동안 사찰 관리로 인해 사찰보존지의 우수한 생태환경, 문화자원이 보존돼온 사실을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국립공원 안내판에 사찰보존지가 표시되지 않고, 사유지로서 국립공원 이용에 제공된다는 점과 종교지역이기에 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도 명시되지 않는다. 나아가 ‘국립공원은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 탐방객은 자신이 방문하는 지역이 사찰이 소유한 사유지라는 점을 전혀 모르고 있다.”

최근 불교계를 배제한 환경부의 일방적 자연공원법 개정 추진, 정부의 방치로 인한 문화재관람료 논란 등이 한국불교 현안으로 대두됐다. 이런 가운데 국립공원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조경학과 교수는 11월 21일 서울 그랜드앰배서더에서 열린 30차 불교포럼서 ‘국립공원 정책과 전통사찰의 가치’를 주제로 이같이 강연했다. 이 교수는 강연을 통해 사유지에 대한 존중보다는 이용자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현재의 국립공원 정책을 비판하고, 복합문화유산인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먼저 해묵은 문화재관람료 논란의 배경을 △면적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부족 △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제한 △사찰 종교기능 존중 부족 △사찰보존지 국민 홍보 부재 등으로 정리했다.

국립공원 정책 문제점 지적
사찰지 중심 공원 지정하고
보상 없이 50여 년간 이용해
“종교가치 훼손 위험 직면”

그러면서 이 교수는 가장 큰 문제를 홍보 부재로 꼽은 뒤 “전통사찰보존지를 중심으로 국립공원이 지정된 이유는 사찰보존지가 다른 산림보다 생태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자원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라며 “사찰보존지를 잘 보존해온 소유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상식적이지만 사회적 인식은 전혀 없다. 정부는 사유지에 대해 형평성 있는 대책이나 보상 없이 50년간 국립공원이라는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경 동국대 교수가 30차 불교포럼서 현행 국립공원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생태가치만 조명… 종교 위축

이 교수는 이어 현행 국립공원 정책의 문제점을 보호지역 내 토착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사찰을 규제대상으로 보는 수직적 공원 관리, 사찰보존지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관리 카테고리 적용으로 분류했다. 특히 국립공원이 2005년 이전 관리 카테고리 V였으나 변경작업을 거쳐 2017년 카테고리 II로 변경된 것을 집중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카테고리 II 보호지역은 자연적인 상태를 위해 인간 활동을 최소화하는 곳이다. 하지만 카테고리 V는 문화경관으로서 자연보존과 함께 지속적인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관련한 다른 가치(문화가치, 문화적 관련성)도 보호 유지해야 한다. 즉 카테고리 변경으로 인해 종교가치나 역사문화가치 등이 생태가치보다 덜 중요하게 취급받는다는 게 이 교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실제 2012년 작성된 오대산 국립공원 보존관리계획을 보면 관리목표를 자연환경 보존과 생태복지로 설정하고, 문화유산관련 예산도 매우 적다”면서 “문화유산관련 예산은 공원자연보존 분야 총 예산 63억 원 중 1.48%, 지역사회협력분야 총 예산 28억 원 중 3.51%로 계획됐다”고 강조했다.

정부-조계종 공동관리 필요

이 교수는 또한 “앞선 연구결과서 사찰보존지 방문자들은 사찰보존지의 유산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반면에 종교가치를 가장 낮게 혹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보존지의 종교가치가 훼손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정부는 조계종단과 공동으로 전통사찰보존지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으로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와 함께 조계종단이 △불교계 내부 정보 공유 및 교육 강화 △사찰보존지 가치 및 문화경관 보존을 위한 연구수행 △사찰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반 기준 마련 △사찰보존지 가치 및 문화경관 보존을 위한 내부 관리체제 확립 △공원지역 내 사유지 소유자들과의 재산권 보상 및 지원을 위한 연대 결성 등에 힘 쏟을 것을 주문했다.

사노위, “이주노동자는 토끼가 아니다”

11월 19일 출입국관리소 이주민 강제단속 비판


故딴저테이 노동자 영정을 든 스님 뒤로 사노위 스님 등 오체투지 행렬이 이어졌다.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토끼몰이식 강제단속 과정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토끼가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故딴저테이 노동자 사망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살인단속 중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는 11월 19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부터 청와대까지 ‘살인단속 미얀마 딴저테이 노동자 진상규명을 위한 오체투지’를 진행하고,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사노위 소속 실천위원 스님들과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를 비롯,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위원장 등 30여 명이 동참했다.

미얀마 출신의 이주노동자 故딴저테이(25) 씨는 지난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단속 중에 사망했다. 뇌사 상태에 빠진 故딴저테이 씨가 한국인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단순 미담으로만 알려졌지만, 해당 죽음에 많은 의문점이 있다는 것이 사노위 측 입장이다.

혜찬 스님은 이 자리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란 말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도 포함돼야 한다. 오늘 오체투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故딴저테이 노동자 사건을 알리고,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노위는 전날인 11월 18일까지 법무부와 김포경찰서 측에 단속과정이 담긴 원본 CCTV영상과 단속보고서 등을 요구했지만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고인이 단속을 피하다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고 밝히고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김지원 기자

방탄소년단 팬들, ‘나눔의집’ 후원 잇달아

트위터 커뮤니티 등 SNS 통한 후원운동도

‘위안부’ 피해할머니를 응원하는 BTS 팬들의 후원이 줄을 잇고 있다.

‘위안부’ 피해할머니 후원시설인 나눔의집(원장 원행)은 “최근 방탄소년단(이하 BTS)의 팬들의 기부와 응원 메시지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 올해 BTS 이름으로 후원된 금액은 약 1천 400여만 원이다”고 11월 18일 밝혔다.

2015년부터 시작된 BTS 팬들의 후원은 올해 11월을 기점으로 접수 건수가 늘었다. 나눔의집 관계자는 “국내 팬들 기준으로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약 130건의 총 350만원 후원금이 입금됐다. 11월 16일부터는 해외팬들도 5달러, 10달러의 소액 후원에 동참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160명 이상이 후원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월 8일 유니버셜뮤직재팬이 BTS 멤버 지민이 착용한 ‘광복절 티셔츠’ 디자인을 언급하며 출연 취소를 통보한 것과 관련, 팬들이 BTS를 여전히 지지하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고통받았던 일본군 성노예 피해할머니들을 응원하는 의미로 후원하는 것으로 안다”고 나눔의집 측은 전했다.

이 같은 BTS 해외 팬들의 후원은 트위터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트위터 커뮤니티 ‘the Twitter handle @doolsetbangtan’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고 역사 바로 알기 및 후원운동 참여를 독려한다.

나눔의집에 후원금을 낸 크리스티나 듀란은 “나는 BTS를 대신해 후원했다. 우리는 어두운 시기였지만 그 역사가 반드시 기억돼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야 우리는 미래에 잔혹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BTS 팬들의 후원이 미국, 유럽, 아시아, 남미까지 접수되고 있다”며 “단순히 후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본 침략의 역사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자는 또 다른 운동이다”고 강조했다. 김지원 기자

“동국대 발전, 기부자 공덕 덕분”

동국대, 20일 기부 감사의 밤

동국대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희사한 기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행사가 열렸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11월 20일 그랜드앰배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기부자 초청 감사의 밤’을 개최했다.

기부자들과 가족 등을 초청한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광 스님, 총장 보광 스님, 전영화 총동창회장, 전순표 세스코 회장, 박준형 신라교역 회장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를 통해 “동국대의 도약과 발전은 우리 불교의 밝은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부대중 모두가 동국대와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사장 자광 스님은 “오늘 이 자리는 지금까지 동국대를 위해 아낌없이 불사를 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학교에서 준비한 여러 행사를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국대는 11월 20일 학교 발전에 기여한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기부자 초청 감사의 밤’을 개최했다.

총장 보광 스님은 환영사에서 “개교 112주년을 맞은 올해는 그동안의 노력들이 좋은 성과로 나타난 의미 있는 한 해였다. 무엇보다도 로터스관 건립 기공식을 거행해 동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며, 최근 각종 대외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동국대의 변화와 발전은 모든 동국가족의 노력과 기부자들의 지속적인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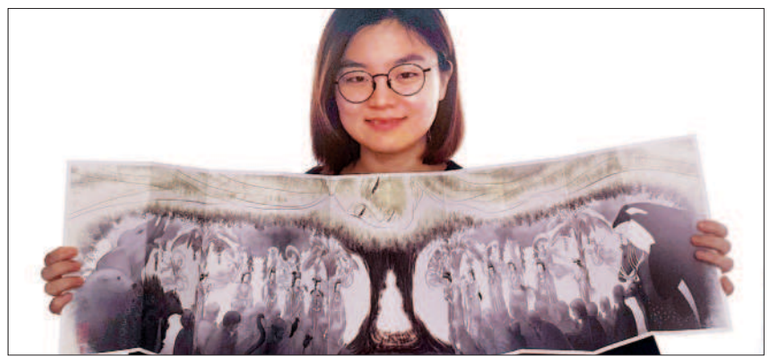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앞으로 동국대가 대한민국 대표 사학에서 세계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동문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야단법석’ 타악 공연을 시작으로 연극학부 학생들의 뮤지컬 ‘렌트’ 갈라, 음악원 교수들의 성악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청년불자 사경집 '자비경' 출간 눈길

불교 디지털 아티스트 김계륜 작가
책 · 리플렛 형식으로 구성

1994년생, 매일 108배
선원 스님들이 도움 줘
"자비 · 포용 사회 형성 일조"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가 종교적 실천의 당의적 원리로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자비(慈悲)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매일 108배 기도를 하며 자비실천을 화두로 정진한 한 청년불자가 또래 청년들이 쉽게 사경에 동참할 수 있는 한글사경집을 펴내 눈길을 끈다.

도서출판 '피안가는 길'은 최근 한글 사경집 〈자비경 Metta Sutta〉을 출간했다. 〈자비경〉은 불교 초기경전 중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알려진 숫타니파타에 자경(慈經)이란 이름이 붙은 10개의 시구로 되어있다. 남방불교권에서 대중적으로 수지 독송하는 〈자비경〉이 국내에서 사경집으로 출간되기도 처음이다.

작가는 1994년생인 김계륜 씨〈사진〉로 매일 108배를 하며 〈자비경〉을 설한 부처님을 상상해 이번 책을 디자인했다. 김 작가는 봉암사, 선운사, 비로자나국제선원을 다니면서 스님들의 조언과 응원으로 자비경의 이미지를 완성할 수 있었다.

재가불자들에게 사경은 생활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눈으로 읽고 독송하며 마음으로 새기는 수행은 잡념이 사라진 자리에는 성찰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김 작가는 청년불자들이 쉽게 사경 수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번 사경집을 구성했다.

사경집은 두 가지 종류로 책 형과 리플렛 형으로 되어 있다. 특히 사경한 경전을 가까이 두고 볼 수 있도록 리플릿 형에는 삽화가 담겨져 있다. 리플릿은 작은 병풍형태로 앞면은 보살들과 중생들이 부처님법을 듣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사경할 때 앞에 펼쳐두고 하면 좋고, 뒷면에는 책형태의 사경집에 10번을 사경한 후 정성스럽게 1번 사경하여 매일 자기만의 경전을 만들어 독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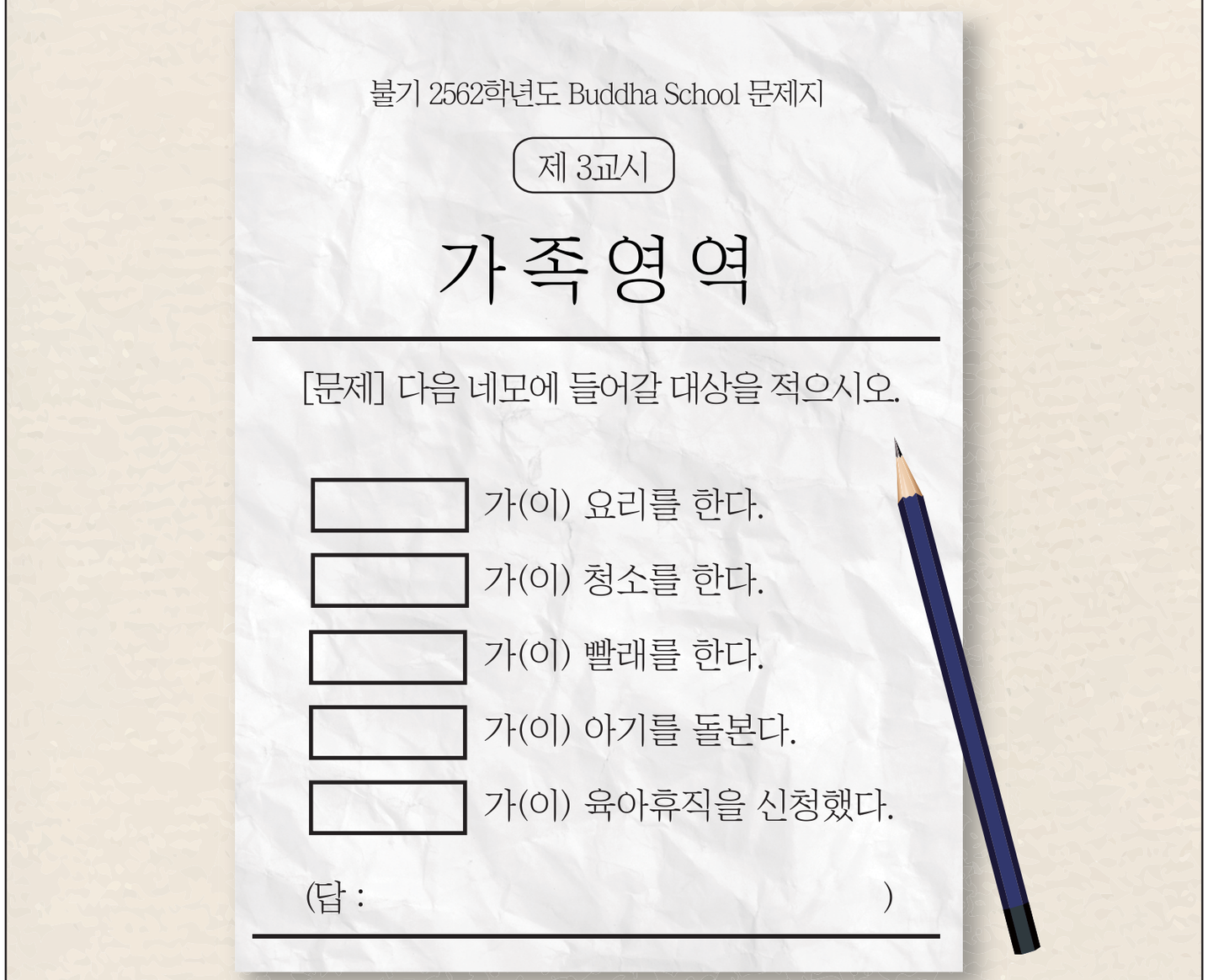
김 작가는 어릴 때부터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의지하게 됐고 어머니의 영향으로 차를 생활화 하면서 선다일여(禪茶一如)를 꿈꾸기도 했다. 현재는 디지털 애니메이션 전공으로 불교 일러스트, 동화 등을 제작해 청년작가로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원력을 갖고 있다.

김 작가는 사경집 발간을 두고 최근 사회적 화두 중 하나인 포용사회를 강조했다. 김 작가는 "특정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화를 뱉어낸다. 자비심으로 포용하는 사회가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라며 "미움, 성냄, 어리석음을 포용하고 나도 포용 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작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원력은 6개월 동안 108배를 꾸준히 한 것"이라며 "매일 기도가 끝나갈 때면 눈을 감고 어두운 시야 속에서 확연하게 떠올린 한 부분의 완성된 그림을 그려나갔다. 또 스님들의 조언과 응원으로 마침내 자비경의 이미지를 완성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수행하면서 자비심을 좀 더 갖기를 바라며 이번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성냄에서 벗어나 자비심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아졌으면 합니다."

이번 사경집 발간에 대해 비로자나국제선원 측은 "김 작가와 함께 청년수행 진작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당신은 누구를 적으셨나요?"

이젠 대한민국도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집안일,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보건복지부

한마음선원 2018수계식 봉행

국내외 지원서 총 4614명 수계 · 연비 받아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11월 18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2018년 수계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계식에는 4237명이 연비를 받았으며, 377명이 새로 계를 받고 불자로의 삶을 다짐했다.

수계법회는 10시 30분 예불을 시작으로 거향찬, 청성, 청법삼배, 청사, 오계, 연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안양본원 김홍보살의 수계자 발원문 낭독과 강릉지원 함춘석 거사에게 대표수계첩 수여, 이사장 혜수 스님 말씀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수계식에서 김홍 보살은 수계자들을 대표해 "세상사 어떠한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고, 반석같은 신심을 다져가겠다"며 "이토록 소중한 공부 인연을 만난 감사함을 거름 삼아 진실한 실천행으로 하루하루를 밝고 푸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사장 혜수 스님은 수계자들을 대표해 강릉지원 함준석 거사에게 수계첩을 전달했다.

혜수 스님은 "오계를 해마다 받지만, 생활하고 있는 자체에 오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일상 생활에서 큰스님 가르침 대로 늘 맡겨놓고, 모든 생명 소중히 생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계를 지키고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이 연비 하고 있다.

스님은 이어 "수계첩을 늘 가까이 두고 일상 생활에서 내가 오계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인지, 큰스님 가르침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살펴봐달라"며 "연비 자국을 보며 오계 잘 지키고 있나를 돌아보며 열심히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인재원, 동안거 〈백일법문〉 공부결사

12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12주 과정

성철 스님이 동안거 기간 '불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설한 '백일법문'을 함께 공부하는 결사가 시작된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성철선사상연구원(이사장 원택)과 함께 12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7시 서울 조계종 전법회관 지하1층 교육관에서 〈백일법문〉 공부결사를 실시한다.

이번 공부결사는 동안거를 맞아 재가불자들의 수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희승 불교인재원 이사와 서재영 불광연구원 박사가 강사로 〈백일법문〉 상권을 교재로 불교의 본질, 백일법문의 의의, 중도사상의 독창성 등에 대해 12주 동안 강의한다. 또 성철선사상연구원 이사장 원택 스님이 '성철스님 백일법문에 대하여'를 주제로 강연한다. 또 김성구 이화여대 물리학과 명예교수의 '불교의 근본 중도와 현대 과학' 특강도 진행된다.

참선 실습도 함께 진행돼 충주 석종사서 혜국 스님의 법문을 듣는 수련회도 열린다.

수강료는 15만원(인재원 회원 12만원)으로 인터넷으로도 지원된다. 1661-1108 노덕현 기자

"어르신에 사찰음식으로 차린 생일상을"

동행, 저소득 독거어르신 대상 '동행수라' 사업

불교계 세 기관이 홀로 지내는 어르신에게 '사찰음식 생일상'을 대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력했다.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 이하 동행)은 11월 1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서 서울노인복지센터 ·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동행수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참석한 동행 상임이사 자공 스님, 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 서울노인복지센터장 희유 스님은 △사업기금 지원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 장소 및 음식 지원 △대상자 추천을 각각 맡기로 했다.

자공 스님은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끼니를 라면으로 대신하거나 사회적으로 단절돼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며 살고 있는 분들에게 특별한 생일을 만들어드리고자 한다"며 "뜻 깊은 사업에 교계 기관이 한마음으로 흔쾌히 협력해 줘서 감사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동행수라는 경제 · 심리적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교문화 및 정신을 나누고, 사회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을 주관하는 동행은 생일을 맞은 어르신들에게 건강 식단을 제공하는 한편, 지원단 봉사자의 말벗 서비스 및 사찰 경내 산책하기, 귀가 서비스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은 11월 27일을 시작으로 총 12회 진행된다. 동행수라는 화요일마다 발우공양서 오전 11시 30분에 시작되며, 매주 8명씩 총 96명의 어르신들이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에는 불교계 공적사회기금 캠페인 '8만4천 결사' 운동을 통해 모인 기금이 사용된다. (02)737-9595 김지원 기자

"죽음 준비교육은 '삶' 준비교육"

희유 스님, 노인집단상담 '사는기쁨' 출판기념회서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센터장 희유)는 11월 21일 서울 마이크 임팩트 스퀘어 12층 라운지서 '죽음준비교육 노인집단상담프로그램 '사(死)는 기쁨'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계, 학계를 비롯해 서울지역 복지분야 실무자 등 각계 관계자가 참석해 죽음준비 집단상담을 통해 본 불교적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저자 및 책 소개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 소감 발표 △저자와의 대화(희유 스님, 최정훈 공저가) 등 순으로 진행됐다.

센터장 희유 스님은 "'사는 기쁨'은 노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지만, 노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며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순간, 곧 삶에 대한 고민과 성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죽음은 인간의 삶과 표리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삶을 끝맺는 방식은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와 직결된다. 죽음준비교육은 죽음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삶을 보다 의미있게 살게 하고 죽음을 한층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돕는 삶의 준비교육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는 2003년부터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다양한 경험적 성과들을 축적해왔다. 센터는 이를 기반으로 죽음준비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인 '사는 기쁨'을 개발해 실시하고 있다.

매뉴얼북 〈사는 기쁨〉은 10년간의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담은 책으로,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실천가 및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지원 기자



일본 요코하마 퍼시피코 국립대홀서 3일간 열린 달라이라마 방일법회. 이날 법회에는 달라이라마의 법문을 듣기위해 5천여 명의 대중이 몰려들었다.



법회에 앞서 달라이라마 방한추진위원회 스님들이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있다.



법회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가는 달라이라마.

"한국과 티베트, 대승불법의 나라"

[현장] 2018 달라이라마 일본법회

日 요코하마서 5천여 불자 운집
〈반야심경〉〈수습차제〉 등 주제
한국불자들도 500여 명 참석해
"오래 전 대승불법 전해진 한국"

보통 해외법회서 수여하지 않는
'금강상사 관정' 내려 파격 선봬

요코하마=박영빈 객원기자

세계 각국 불자들이 달라이라마의 법문을 듣기 위해 일본에 모였다. 법회장인 요코하마 퍼시피코 국립대홀 앞은 이른 아침부터 참가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넓은 홀에 한 자리도 남김없이 앉은 불자들은 단상에 마련된 달라이라마의 법좌를 향해 눈을 반짝였다. 단상을 향해 삼배를 올리거나 조용히 염불을 하는 불자들도 곳곳에 보였다.

티벳하우스재팬(대표 룽똑)은 11월 14일부터 3일간 요코하마시의 중심에 위치한 요코하마 퍼시피코 국립대홀에서 '2018 달라이라마 방일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지난해 달라이라마의 건강상 이유로 취소됐던 법회주제를 그대로 이어 진행됐다.

매년 진행되던 방일법회가 취소된 것은 지난해가 처음. 달라이라마의 건강이상설을 의식해서인지 예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법회에 참석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한국에서도 500여 명이 넘는 사부대중이 법회에 참석했다.

이번 법회로 29회째 일본을 방문하는 달라이라마는 첫날 〈반야심경〉과 〈수습차제:중편〉을 주제로 법회를 시작했다. 달라이라마는 "저의 오랜 벗이자 도반인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됐다. 우린 여기에 재물을 위해서나 구경거리가 있어서 모인 것이 아니다.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배우기 위해 모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달라이라마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들을 뿐만 아니라 숙고하고 실천하는 문사수(聞思修)의 수행을 닦아야 한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불자들이 스스로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러한 모든 가르침은 모든 현상이 그 실체가 없다는 무자성을 말한다"고 강조하고 공성을 숙고할 때 집착이나 번뇌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모든 행복은 이타의 보리심에서 생겨난다. 언제나 자비심을 키우고 개발하면 마음의 평화가 생길 것이다. 이생과 내생의 행복을 위한다면 공성과 보리심 두 가지 수행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튿날 오전 7시 법회가 시작되기 직전, 달라이라마가 묵는 호텔에서 한국인 단체친견이 있었다. 새벽부터 친견을 위해 모인 500명 남짓의 사부대중은 '옴마니반메훔'의 6자 진언을 외우며 달라이라마를 기다렸다.

약 10분간의 단체친견에서 달라이라마는 "한국은 오래전부터 대승불법이 전해지는 나라"라며 티베트와 동일한 불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지혜가 없는 믿음은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믿음이다. 지혜를 가지고 불법을 배우십시오"라고 격려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감동은 길었다. 서울에서 왔다는 정견화 보살은 "건강에 이상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나이에 비해 너무나 정정한 모습이라 안심했다"고 말했다.



한국인 단체 친견에서 한 신자가 내민 탱화에 서명하는 달라이라마.

이날 봉행된 관세음보살 관정은 항례적인 관정과 달리 특별하게 진행됐다. 달라이라마는 "이 관정이 밀교의 관정 중에 제일 상위 관정인 무상요가부의 관정이며, 5대 달라이라마부터 전승되는 법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통 해외법회에서는 수여되지 않는 '금강상사 관정' (제자에게 장래에 밀교를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아사리의 자격을 수여하는 관정)까지 내린 것은 파격적인 진행이라고 일본 현지 관계자는 전했다. 오사카에서 왔다는 히로메 이쿠오 씨는 "달라이라마께서 참석한 모든 이들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관정의 마지막까지 아낌없이 내리시는 것에 감동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달라이라마의 법회를 위해 티베트에서 친구와 함께 왔다는 한 남성은 "해외출장을 둘러대고 여권을 발급 받았다. 달라이라마의 법회에 왔다는 것을 중국당국에 들키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면서도 "달라이라마를 직접 뵙고, 관정까지 받았으니 다음 생엔 삼악도에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신심에 가득 찬 눈빛을 보였다.

마지막 날인 16일, '근대과학과 불교과학의 대화'라는 주제로 대담회가 열렸다. 인지심리학자인 요시카와 사키코 교수, 뇌신경 과학자 이리키 아츠시 박사, 물리학자 주황씬 박사가 단상에 올라 차례로 최근 연구경향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후 달라이라마는 과학자들과의 대화에서 "최근 뇌과학에서 미세한 의식에 대해 말한다. 불교에서는 일찍이 유식학파를 중심으로 미세한 의식을 설명했다"며 불교의 과학적인 논리체계와 근대과학의 논리체계가 상호보완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주장했다.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된 대담회의 마지막에 짧은 질의응답시간이 있었다. 참가자들 중 발언권을 얻은 이들은 각자의 수행경험이나 이틀간의 법문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했다.

이 중 한국에서 온 효림 스님은 "이미지를 떠올리는 관상명상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 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하는가?"라고 질문했다. 달라이라마는 이에 대해 "단지 대상을 보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명상이 아니다. 그 대상의 개념[共相]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명상"이라며 "단지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에 집중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달라이라마는 법회장을 퇴장하기 전 마이크를 잡고 5천명의 대중에게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서 상기하시길 불제자로서 부탁드린다. 부처님께선 '자신이 자신의 스승'이라고 하셨다. 미래는 자신이 정하는 것이지, 부처님조차 정해줄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용수보살과 같은 위대한 스승들과 수행자들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었고, 우리는 그분들과 똑같이 두뇌를 가진 인간으로서 정진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가졌다"며 불법을 배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수행정진 할 것을 당부했다.

박수갈채 속에 자리를 뜨던 달라이라마는 출구 바로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달라이라마가 다시금 대중들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으고 잠시 기도를 올리자 회장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봤다. 모두를 위해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그 모습에 눈시울을 붉히는 참석자들도 있었다. 기도를 마친 달라이라마는 손을 흔들며 3일간 법문을 들은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다.

달라이라마가 퇴장한 후로도 많은 이들이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고 법좌가 있던 단상을 바라봤다. 긴 여운과 감동을 남기며 달라이라마의 방일법회가 회향했다.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9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 집
어학단기반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 http://www.njutcm.co.kr

불퇴전 각오로 매일 發心·信心 다지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綠樹靑山毘盧身(녹수청산비로신)이요 海上波濤廣長設(해상파도광장설)이라 若人問我解何宗(약인문아해하종)하면 金剛般若定慧力(금강반야정혜력)이라

푸른 나무 푸른 산은 비로자나 전신(全身)이요, 바다 위의 파도소리는 모든 부처님의 법문이라.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종지(宗旨)를 아느냐고 묻는다면 금강반야의 정(定)과 혜(慧)의 힘이라 하리라.

금일(今日)은 무술년 삼동구순(三冬九旬)의 안거(安居)를 시작하는 동안거(冬安居) 결제일(結制日)이라.

결제에 임하는 사부대중들은 이번 안거에는 반드시 대오견성(大悟見性)하겠다는 태산 같은 용맹심과 불퇴전(不退轉)의 각오로 매일 매일 새롭게 발심(發心)과 신심(信心)을 다져야 할 것이라.

화두참선(話頭參禪)은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을 챙겨도 뼈골에 사무치는 간절한 마음으로 화두와 씨름하듯이 화두를 챙기고 의심해야 함이라.

화두와 씨름하라는 것은 씨름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샅바를 잡고 온 정신을 집중해서 경기에 임하듯이, 간화수행자는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고, 또 챙기고 의심하기를 끊어짐이 없이 해서 번뇌와 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 인가? 하는 이 화두를 들고 앉으나 서나, 가나오나, 산책을 하나 일을 하나, 하루에도 천번 만번 챙기고 의심하야야 함이라.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마조(馬祖)선사와 석두(石頭)선사, 그리고 혜충(慧忠)국사 이 세 분 선사(禪師)께서 선풍(禪風)을 크게 드날리시던 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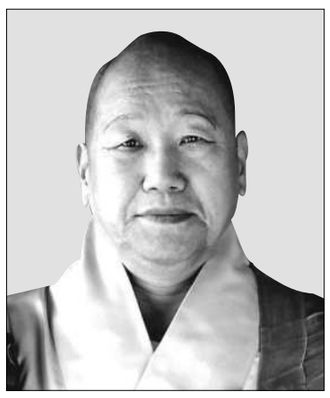
마조선사의 제자인 남전선사가 마조 도인께 인가(印可) 받으신 후, 어느 고암(高庵)에서 지내면서 시절인연(時節因緣)을 기다리시던 때가 있었다.

고암에서 한가로이 생활하고 계실 때, 하루는 객승(客僧)이 찾아와서 하룻밤 머물기를 청했다. 하룻밤을 함께 지내고 아침 공양을 지어 드시고는, 남전 선사께서 객승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다.

"나는 산등성이 너머에 있는 밭에 가서 일을 하리니, 점심 공양 때가 되거든, 스님이 밥을 지어 드시고 나에게도 한 그릇 갖다 주시오."

그러고는 남전 선사께서는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점심 공양 시간이 한참 지나도 객스님은 깜깜 무소식이었다.

그래서 남전 선사께서 암자로 돌아와 보니 그 객승이 암자 안에 있는 살림살이를 모조리 부숴 놓고는 평상(平床)



에 태연히 누워 있었다.

남전 선사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객승이 누워 있는 평상으로 가서 나란히 누우시자, 객승은 벌떡 일어나서 그만 가버렸다.

여기에 불법(佛法)의 고준한 안목(眼目)이 있음이라.

남전 선사께서 후에 출세(出世)하셔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암자에서 살 때에 어떤 영리한 객승이 한 분 왔었는데 오늘에 이르도록 그 객승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하고 그 객승을 두고 크게 칭찬하셨다.

시회대중(時會大衆)이여!

암자 안의 살림살이를 다 부숴버리고는 평상에 누워 있다가, 남전 선사께서 옆에 와 누우시니 벌떡 일어나서 가버린 그 객승의 용심처(用心處)를 알겠는가?

"불조(佛祖)와 더불어 동행하는 안목을 갖추었음이로다."

남전 선사께서 살림살이가 다 부서져 있는 광경을 보시고, 객승이 누워 있는 평상에 가서 나란히 누우셨던 뜻을 알겠는가?

"구름이 허공 가운데 일어났다가 멸하는 것을 스스로 관찰하는 눈을 갖추셨도다." **〈중략〉**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다 하더라도 불법정안(佛法正眼)을 갖춘 선지식을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다. 선지식은 그 낙처(落處)를 먼저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입을 여는 순간에 바로 그 진위(眞僞)를 척척 가려내지 못한다면, 아직 정안(正眼)을 갖추지 못한 참학도중인(參學途中人)인 것이니, 마땅히 다시 참구해야 옳음이라.

그러면 남전 선사께서 귀종선사와 마곡 선사의 답처(答處)를 보시고 혜충국사를 친견하러 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시회대중(時會大衆)은 남전 선사를 알겠는가?

백주 대낮에 도적질을 하다가 도적의 몸이 드러나 간파(看破)당함이로다.

세 분의 도인들이 한가하게 사는 세계를 알겠는가?

相喚相呼歸去來(상환상호귀거래)하니 不覺露濕全身衣(불각로습전신의)로다

서로 부르고 부르며 오고 가다가 전신이 이슬에 젖음을 깨닫지 못함이로다.

은산철벽 뚫는 용맹정진을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납자(衲子)의 본분(本分)은 모름지기 화두공안(話頭公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새소리 물소리 들으며 기와집 판도방에서 결가부좌로 용맹 정진하는 것은 은산철벽(銀山鐵壁)을 뚫고자 함이니, 바깥 경계에는 잠시 눈을 감고 내관(內觀)에 집중하여 석 달 후에는 출격장부(出格丈夫)의 모습으로 대면할 것을 바라노라! **〈중략〉**

"3세의 부처님들도 이러했고 역대의 조사스님들도 이러했으니 만일 본국(고려) 대왕의 청이 아니었더라면 나는(태고) 이렇게 설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왕 대신들이 여기서 이렇게 믿는다면 그 부처님 네의 보호를 받고 모든 하늘이 복을 내릴 것이다. 국왕은 수명이 길어지고 문무 신하들은 왕의 교화를 도우며, 어진 신하와 재상들은 수명과 녹(祿)이 더욱 늘어나 그 덕화가 백성들에게 미쳐 집집마다 표창을 받을 것이다. 백 천의 요괴들은 그 자취가 사라지고, 간사한 혼과 원한을 품은 도적은 그림자와 얼굴을 감추어 천지는 다시 변하고 일월은 더욱 맑으며, 산하는 더욱 튼튼하고 사직은 거듭 흥왕할 것이다. 그리하여 때를 맞추어 비가 내리고 때를 맞추어 볕이 나 온갖 곡식은 잘 영글고 백성들은 즐거워하며, 상서로운 기린과 고운 빛깔을 가진 봉황은 상서의 징조를 다투어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선조의 성현들이 말씀하신 그 말과 같이 부처님을 믿고 하늘의 이치에 순종하여 저절로 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太古錄〉



태고종조(太古宗祖)님의 금구성언(金口聖言)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여 21세기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1만 태고종도와 4천 사암에서 전법 포교하는 주지 교임 전법사는 항상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번영을 위하여 기원하는 염불소리 그치지 않도록 하고,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칠전선원에서 사생결단 정진하는 본분납자들의 외호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 마친 장부는 걸림이 없다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了事丈夫意縱橫(료사장부의종횡) 하니 地獄鐵圍(지옥철위) 也無驚(야무경)이로다. 萬陀靑山自在遊(만타청산자재유) 한대 一珠光明照無窮(일주광명조무궁)이로다.

일 마친 장부의 뜻은 종횡으로 걸림이 없으니 지옥과 철위산도 또한 놀라지 않는도다. 만타청산에 자유자재로 노는데 한 구슬의 마음광명이 비추어 다함이 없도다.

今日(금일)은 三冬結制日(삼동결제일)이라 時會大衆(시회대중)은 個個丈夫(개개장부)어니 如何不了(여하불료)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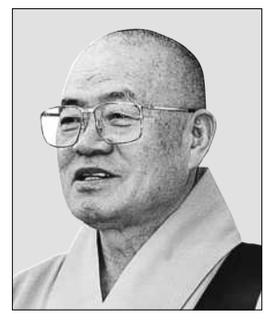
明眼衲僧(명안납승)은 且道(차도)하라. 那箇是了事丈夫(나개시료사장부)인고? 大衆(대중)이 無言(무언)이어늘 良久(양구)에 一喝云(일할운) 江北成枳(강북성지) 江南橘(강남귤)이로다.

芥子一粒(개자일립)이 呑盡法界(탐진법계)하고 瀉出妙用(사출묘용)하니 頭頭(두두)가 活釋迦(활석가)요 物物(물물)이 華藏(화장)이로다. 會麽(회마)?

須是吹毛劍(수시취모검) 丈夫(장부)라야 始得(시득)다.

오늘은 삼동결제날이라 시회대중은 개개인이 대장부거니 어떻게 요달하지 못했는고?

눈 밝은 납승은 한마디 일러라! 어떠한 것이 일 마친 장부인고? 대중이 말이 없거늘 잠깐 있다가 "할" 을 한 번하고 이르시되 강북쪽에는 탱자요 강남쪽에



는 귤이로다.

겨자 한 알이 법계를 삼켜 다하고 묘용을 쏟아내니 낱낱이 산 석가요 물건마다 화장세계로다. 알겠는가?

모름지기 이 취모검의 장부라야 비로소 알리라.

〈중략〉

眞言不可出口(진언불가출구)인데 如何更說(여하갱설)고?

참된 말은 가히 입으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시 설하겠는가?

빗장을 대문으로 만들라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장경혜릉(長慶惠稜)선사가 어떤 납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가?"

"고산(鼓山)에서 옵니다."

"고산에는 문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구절, 즉 '불과석문구(不跨石門句)' 가 있다고 들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그것을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일찍이 고산신안(鼓山神晏)선사는 문하의 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산에게는 불과석문구(不跨石門句), 즉 문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구절이 있으니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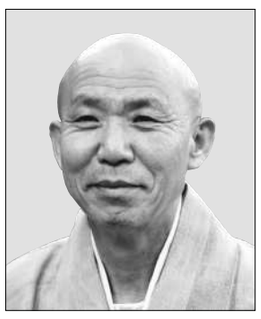
이 물음에 수없는 납자들이 입술을 놀리다가 주장자로 입을 얻어맞거나 할(喝)을 하다가 등짝을 방(棒)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단도직입으로 씹어서 부수려고 하다가 이가 시려 포기하거나 아니면 치아가 그대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침묵으로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마다 선사는 사정없이 꾸짖었습니다.

"이 물음은 반드시 본분사를 깨달은 사람이라야 제대로 알 수 있으니 아무렇게나 대답하지 말라."

이후로 '불과석문구' 는 많은 공부인의 지남(指南)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략〉

이제 일주문을 석문삼아 그 문지방을 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구순(九旬)의 삼동결제입니다. 일주문에는 모양 있는 자물쇠와 문빗장은 없지만 결제대중은 모양 없는 자물쇠와 문빗장으로 스스로



를 경계해야 합니다. 무문관은 문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문입니다. 이처럼 일주문은 자물쇠와 문빗장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물쇠요 문빗장인 것입니다. 우리를 가두는 것이 자물쇠와 문빗장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통해 문밖으로 나가는 대문이 되기도 합니다. 90일 이후에도 빗장이 될 것인지 대문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입니다. 또 결제가 제대로 된 결제가 된다면 매일 매일 문내(門內)가 문외(門外)와 다름없이 자유롭겠지만 결제가 제대로 된 결제가 되지 못한다면 하루하루마다 문내(門內)에 스스로를 억지로 가두게 될 것입니다. 문내와 문외가 둘이 아닌 도리를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오직 애써 정진해서 공안(公案)을 타파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내와 문외의 구별이 필요 없는 대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득여마칠천팔혈(得與麽七穿八穴)하고 득여마십자종횡(得與麽十字縱橫)이로다

이렇게 사방천지 어디에나 통함을 얻었고 이렇게 네거리 어디에나 막힘없음을 얻었네.

자구에 얽매여 허물 짓지 말라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또 다시 낙엽이 지고 눈내리는 동안거가 시작됩니다. 묵연히 앉아보니 젊을 때 시봉했던 어떤 선지식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그 분 유언은 저의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늘 살피고 새기는 제 삶의 가장 긴 화두입니다.

念佛落伍(염불락오) 律假面(율가면)
염불은 낙오자의 일이고, 율사는 가면극을 하고
眞言雜術(진언잡술) 禪詐欺(선사기)
진언은 잡술이요, 선사는 사기다.
理判事判(이판사판) 空事判(공사판)
이판, 사판은 모두 허망한 일판이고
이敎, 저敎 雜神堂(잡신당)
이 종교, 저 종교 모두 잡신의 판이라.
이派,저派 謀利輩(모리배)
이 계파, 저 정파 모두 정상모리배요,
學生求職(학생구직) 師糊口(사호구)
학생은 무슨 자리나 구하는 배움이요, 선생은 호구지책
引導巫堂(인도무당) 餘無外(여무외)
어산소리는 무당짓이니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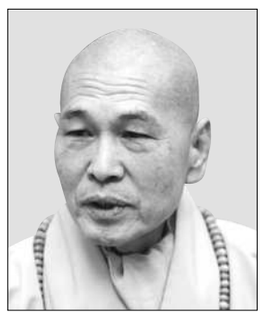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적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어찌 그러할까?' 불만도 있었고 너무 시니컬한 소리로도 여겨졌습니다. 나이가 들고 이래저래 절집에 살아보고 여러 소임도 겪어보고 이것저것 경험도 해보니 점점 그 노스님 말씀 깊은 뜻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제 인생은 허명과 영욕 속에서 낭비하였고, 노년에 이르고 보니 이 말씀이 소중한 법문이었고 화두 중에서 가장 긴 화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도 치우친 견해를 바로 잡기 위한 방편이 됨입니다. 또 자구에 얽매여 허물을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자는 흙덩이 던지는 이를 물어 죽이는 법이니 잘 알아들으십시오.

위에 나온 여러 길 중에서 한 길을 가는 불자라면 살피고 또 살펴서 속지 말고 진실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목표는 모두 같으나 늦고 빠름의 시차가 있고 작은 차이에도 종극에는 천지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자본(돈)과 욕망의 부속품으로 청맹



과니 하수인 노릇하며 살다가 결국은 대소사찰 문화재 지킴이, 산지기 신세 되어 그렇게 저렇게 허망하게 세월을 보내어 정법 속알머리는 이교도나 제도권 학자들에게 다 내어줘 버린 것이 아닐까 스스로 참회해봅니다. 離苦得樂(이고득락) 정토세계는 이론으로만 이어져가니 생각하고 또 생각해봅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한번 해보았으니 그저 一笑(일소)하시기 바랍니다.

반야지 구족한 원력보살의 삶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入海算沙徒費力(입해산사도비력)이라
區區未免走紅塵(구구미면주홍진)이니
爭如運出家珍寶(쟁여운출가진보)하야
古木生花別是春(고목생화별시춘)아

바다에 들어가 모래를 세는 일 헛되이 힘만 소비하니 구구히 홍진에 허덕임을 면치 못하리. 힘써 내 집의 진귀한 보배를 꺼내어서 고목에 꽃 피우는 특별한 일만 같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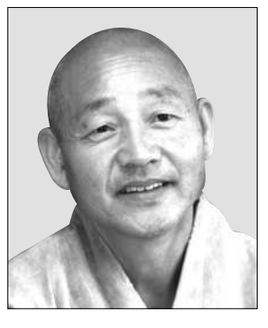
총림대중이 산문출입을 삼가며 삼동결제를 하는 이유는 스스로 구족하고 있는 본성을 바로 보고 대자유인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내 집에 갖추어져 있는 진귀한 보배를 꺼내어 늘 넉넉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범부는 본래 넉넉하게 갖추어져 있는 보물창고를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며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삼독의 업풍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삼독의 업풍을 소멸하고 다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삼동 결제를 하고,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게 하며 일을 줄여서 안으로 모든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많은 방법이 있으나 그중 가장 수승한 방법이 화두를 참구하는 일입니다. 각자가 지니고 있는 화두를 잠시도 놓치지 않고 참구하다 보면 반야의 지혜가 현전하고 본래 생멸이 없는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보시를 하면 무주상보시가 이루어지고, 계행을 실천하면 최상승의 무생계(無生戒)를 이루게 됩니다. 인욕 · 정진 ·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두를 타파하고 반야지를 구족한 수행자는 행주좌와에 모두 보살도를 실천하고, 어묵동정에 佛行(불행)을 보이게 됩니다. 역경에서 더욱 당당하고 용맹스러운 원력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반야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火不能燒(화불능소)요 水不能溺(수불능약)이며 風不能飄(풍불능표)요 刀不能劈(도불능벽)하니 軟似兜羅(연사두



라)하고 硬如鐵壁(경여철벽)하니 天上人間(천상인간)에 古今不識(고금불식)이로다

불이 태우지 못하고 물이 빠트리지 못하며 바람도 날리지 못하고 칼도 자르지 못하네. 부드럽기는 도라솜과 같고 단단하기는 철벽과 같으니 천상 인간이 예나 지금이나 알지 못하도다.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佛畵僧으로 초의 면모 확인하다



박동춘의

초의 스님 前 上書

㉒ 소치 허련이 보낸 편지

소치 허련(小癡 許鍊, 1809~1893)이 대흥사로 초의를 찾아간 것이 1835년경이다. 이 무렵 초의의 명성은 경향에 퍼졌는데, 이는 1831년 봄 흥현주의 별서 청량산방에서 열린 시회에서 그의 글재주를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진도 쌍계사를 내왕했던 소치도 익히 초의의 명성을 들었을 터다. 그러므로 그림에 대한 열망으로 불탔던 소치가 초의를 찾아 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초의는 대흥사를 방문해 자신을 찾아온 소치를 위해 한산전에 거처를 마련해 주고 불화(佛畵)를 가르쳤으니 그가 초의에게 그림을 배웠던 정황은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1839년 4월의 편지에서도 드러난다. 편지 내용은 이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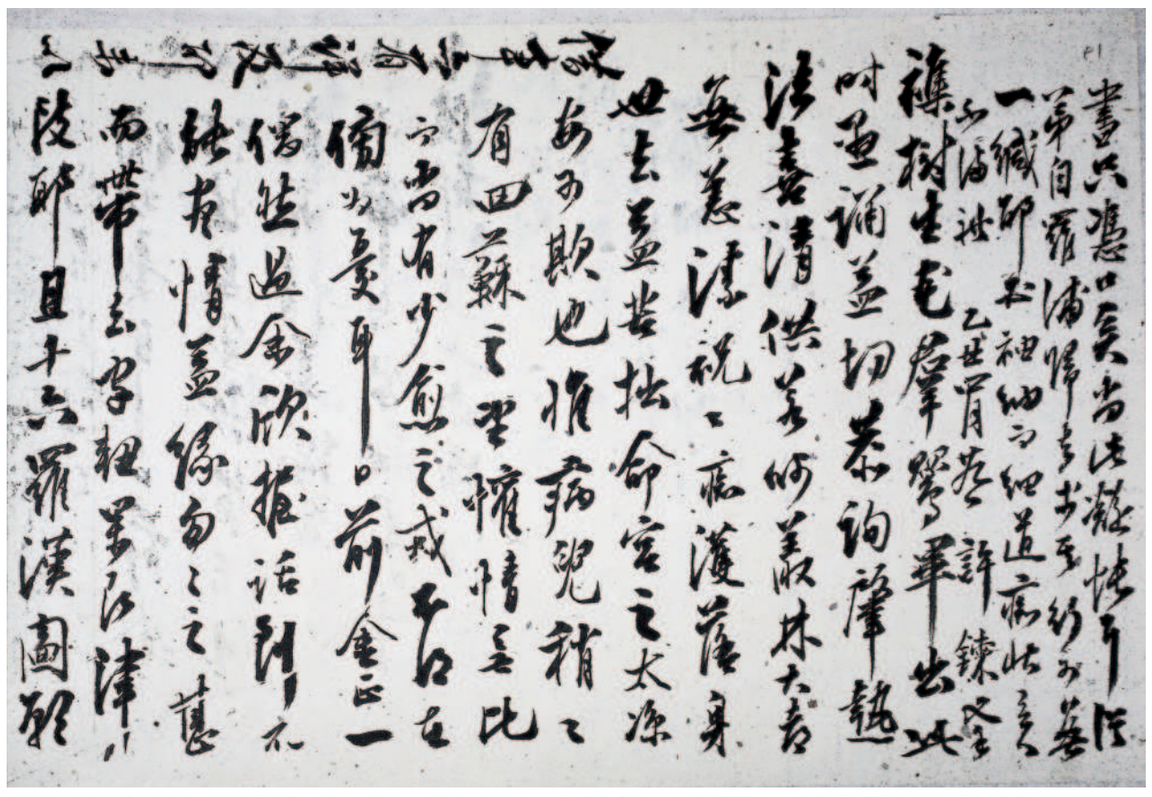
그런데 관음진영을 그리는 필법이 언제 이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소. 경탄을 금할 길이 없구려. 대개 초묵법(焦墨法, 먹을 진하게 쓰는 기법)은 전하기 쉽지 않은 오묘한 진리인데, 우연히 허소치가 이어 드러냈으니 전해지고 전해진 초묵법이 또 그대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겨집니다.

앞에 언급한 추사의 편지에는 불가에 이어진 불화(佛畵) 기법인 초묵법(焦墨法)은 초의를 통해 소치에게 전해진 내력을 언급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초의가 그림 '관음진영'을 황산 김유근(黃山 金逌根, 1785~1840)이 소장하려는 의사를 밝힌 점과 황산이 '관음상'의 하단에 손수 찬탄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는 사실을 초의에게 전한 셈이다.

그렇다면 추사가 초의에게 이 소식을 전한 연유는 무엇일까. 아마 황산이 권문세가(權門勢家) 김조순(金祖淳, 1765~1832)의 아들로, 그림에 대한 안목이 출중했기에 초의 그림에 대한 관심은 바로 "초의 그대는 선림예단(禪林藝團)의 이름다운 얘깃거리"가 되리라는 것이다. 더구나 황산이 초의가 그림 '관음상' 끝에 글을 쓰고자 했다는 사실은 초의의 명성을 단번에 드러낼 것이라는 점도 강조된 것이 아닐까. 아무튼 초의 불화(佛畵)는 당시 이름이 있는 추사나 황산 등도 인정했음을 드러낸다.

한편 소치의 그림에는 선종의 초묵법도 함의된 것이다. 특히 소치가 자신의 그림 세계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타고난 재주나 열정뿐 아니라 초의와 추사라는 징검다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소치가 두 스승에 대한 의리를 평생 잊지 않은 것은 이런 인연의 지중함 때문이었다.

이번에 소개할 소치의 편지는 1865년 4월 29일 초의에게 보낸 것인데 초의는 이 편지를 받은 다음 해에 열반했다. 특히 초의가 그린 '16나한도'를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빌려달라는 내용과 소치의 어려운 상황도 함께 드러냈다. 편지의 크기는 42.3×29cm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865년 4월 29일 초의에게 보낸 소치 허련의 편지. 초의의 16나한도를 김정일이라는 사람에 빌려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러 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꾀꼬리 떼도 모두 나오는 이때 염려하는 마음, 더욱 간절합니다. 삼가 여쭙건대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법희(法喜) 청공(淸供)은 어떻습니까. 대도총림(叢林大都)이 무탈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속세에 떨어져 더욱 고통스럽고 졸렬해졌습니다. 명궁(命宮)이 너무 싸늘하니 무엇을 속이겠습니까. 오직 아이의 병이 점점 회복될 희망이 있으니 기쁜 마음 비교할 수 없는데 오히려 조금 나아짐을 경계해야하니 곁에서 근심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김정일이 우연히 제가 있는 곳을 지나다가 기쁘게 손을 잡으며 이야기했지만 마음을 다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더욱 더 바쁜 와중에 자축(字軸)을 가져갔는데 과연 바로 스님에게 도착했나요. 또한 십육나한도를 빌려달라는 바람도 상세히 들으셨는지요. 편지로는 다 쓰지 못해 구두로만 전하니 오히려 이에 슬픔만 더합니다. 종제(從弟)가 나포에서 돌아갔는데 그 행차에 편지 하나가 없을 수 있나요. 반드시 편지를 가지고가서 저의 상황을 세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예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1865년 4월29일 허련이 예를 표하며

雜樹生花 群鳥畢出 此時懸誦益切 恭詢肇熱 法喜淸供若何 叢林大都無恙 溱衄溱衄 痴 護落身世 去益苦拙 命宮之太凉 安可欺也 惟病兒稍稍有回蘇之望 懽情無比 而尙有少愈之戒 不得在傍爲憂耳 日前金正一 偶然過余 欣握話到 不能盡情益緣怒怒之甚 而帶去字軸軸 果卽津致耶 且十六羅漢圖願借事 亦有詳及耶 未以書 只憑口矣 尙此凝悵耳 從弟自羅浦歸去 於其行可無一緘耶 必袖納而細道痴狀矣 不備禮 乙丑 四月 卄九日 許鍊 叉手

조선 후기 서화가 소치 허련

대흥사서 초의에게 불화 배워

소치 작품, 선종 초묵법 함의

편지엔 초의가 보인 배려 담겨

소치의 고단한 삶 속에 버팀목

소치의 편지는 초의에게 보낸 안부 편지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하면서 늘 스승이 수행하시는 대흥사 총림이 무탈하기를 축원했다. 하지만 속세에 사는 자신의 처지는 "더욱 고통스럽고 졸렬해졌습니다. 명궁(命宮)이 너무 싸늘하니 무엇을 속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명궁(命宮)은 수명과 운수를 보는 별자리로, 생년월일의 방위이다. 명궁이 너무 싸늘하다는 것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쓸쓸하고 어렵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초의가 불화에 능했다는 사실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는데 이 편지에 초의가 나한도를 그린 사실을 "얼마 전에 김정일이 우연히 제가 있는 곳을 지나다가 기쁘게 손을 잡으며 이야기했지만 마음을 다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더욱 더 바쁜 와중에 자축(字軸)을 가져갔는데 과연 바로 스님에게 도착했나요. 또한 16나한도를 빌려달라는 바람도 상세히 들으셨는지요"라고 한 점이다. 초의의 '십육나한도'는 범해(梵海)의 시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다. 따라서 초의 불화에 대한 명성이 당시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소치의 편지는 몇 편이 더 전해진다. 1860년 3월 6일에 보낸 편지에는 부인의 상을 당한 자신의 슬픔 처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

예를 생략하고 말씀 드립니다. 마음이 온통 쏠려 있던 중에 스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삼가 살펴보니 서글픈 추운 봄에 법체를 보살핌이 중하시고 청공(淸供)도 자재하다니 구구한 마음 위로가 됩니다만 안 스님(眼衲)이 오랫동안 속인의 집에 있는 것은 인연을 함부로 한 근심 때문에 실로 민망할 만합니다. 이미 그러하니 즉 근일 공양의 절차는 누가 그것을 맡겠습니까. 더욱 그것을 위해 생각에 장애가 됩니다. 저는(心制人) 한 가닥 목숨을 구차하게 이어가니 문득 종상(終祥)이 지나면 하늘을 우러러 땅을 굽어보며 울부짖을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더욱더 궁하여 1월 28일 또 아내가 죽는 슬픔을 만났으니 마음을 갑자기 어찌해야할까요. 도리어 다시 생각하니 즉 지금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금강보살이 한번 도의 길을 보고 진실로 크게 개오한 것인가. 너무 슬퍼하던 끝에 곧 막힘없이 확 트인 듯 함을 느끼겠습니다. 지난 번 일도 이미 끝났습니다. 또한 담제(禫祭)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빨리 지팡이를 들 수는 없습니다. 월여(月如)스님과 약속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별도로 계획할 뿐입니다. 감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낄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삼가 감사 편지를 올립니다. 1860년 3월 6일 심제인 허련 올립니다.

省禮言 懸戀之餘 獲承禪椷 謹審春寒惻惻 法體衛重 淸供自在 區區慰誦 而眼衲之長在俗第 縱緣憂故 實爲可悶者也 旣然爾則近日供養之節 誰其任之耶 尤爲之碍念 心制人 一縷苟延 奄過終祥 俯仰叫號 人理益窮 而正月卄八日 又遭叩盆之慟 情悰倘如何 還復思量 則今焉解脫牢獄 金剛一見道路 寔大開耶 悼傷之餘 便覺豁如也 襄事亦已完矣 且緣禫期之取次來 當不得飄擧一&笻也 月如所約事 終始另圖耳 柿貼何以送及耶 還庸感愧耳 餘不備 謹謝狀

庚申 三月 初六日 心制人 許鍊 狀上

1860년경 자신의 호를 심제인(心制人)이라 하였다. 그리고 초의와 관련이 있는 승려로 추정되는 안 스님이 무슨 연유에선지 "오랫동안 속인의 집에 있는 것은 인연을 함부로 한 근심 때문에 실로 민망할 만합니다. 이미 그러하니 즉 근일 공양의 절차는 누가 그것을 맡겠습니까. 더욱 그것을 위해 생각에 장애가 됩니다"라고 한 대목이 눈에 띈다. 무엇보다 소치는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을 "사람의 일이 더욱더 궁하여 1월 28일 또 아내가 죽는 슬픔을 만났으니 마음을 갑자기 어찌해야할까요. 도리어 다시 생각하니 즉 지금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금강보살이 한번 도의 길을 보고 진실로 크게 개오한 것인가. 너무 슬퍼하던 끝에 곧 막힘없이 확 트인 듯함을 느끼겠습니다"라고 했다. 아! 슬픔이 지극하면 막힘없이 마음이 확 트인 듯함을 느끼는 것일까. 소치의 슬픔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한편 소치의 편지에 "월여 스님과 약속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별도로 계획할 뿐입니다. 감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낄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삼가 감사 편지를 올립니다"라고 하였다.

실제 초의의 제자 월여와 무슨 약속을 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 소치는 초의의 제자들과도 막역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다. 특히 초의가 보낸 감은 어려움에 부닥친 소치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 마음의 선물이다. 더구나 한양에 낙향한 후에 진도에서의 소치 일상을 그리 편안하지만은 않은 듯하다.

이런 곤란함 속에서도 "오늘 막내아이가 아들을 낳았다는(添丁) 소식을 들었는데 이는 경사스러운 일입니다"라는 기쁜 소식도 있었으니 1859년 정월 초의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 내용이다. 늘 소치의 고단한 삶에 위안을 주었던 초의의 따뜻한 배려는 속 깊은 스승의 인정이었고, 이는 소치의 버팀목이었다. 고통과 환희,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소치의 일상에 손자를 얻는 기쁨은 그의 답답한 마음을 씻어내는 청량제라고 하겠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화계사 미륵존불 낙성·점안법회 봉행



삼보에 귀의하옵고,
저희 화계사에서 이번에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오랜 숙원인 석조 미륵보살입상 조성 불사를 원만히 회향하며,
대덕스님들을 모시고 점안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대덕스님들께서 이 자리를 함께하시어 축하해 주시고
법석을 빛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주지 수암 합장

일 시 2018년 12월 7일 (금) 오전 10:00
장 소 화계사
식 순 상단불공 10시 | 점안법회 12시
문 의 02)902-2663

대한불교조계종 三角山華溪寺

돌아온 신중도… 아직 제자리 못 찾은 불화들



최선일의
다시 찾아야 할 聖寶들

㉒ 청송 대전사의 도난 성보



대전사 신중도는 2014년 회수돼 은해사 성보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청송 대전사에서 도반된 후불도(사진 왼쪽)와 지장시왕도(사진 오른쪽).

대전사	은해사 말사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명칭	품질	수량	기타중요사항	적요
불상(佛像)	토체도분(土体塗粉)	3位		
불탱(佛幀)	지본채화(紙本彩畫)	1位		
지장탱(地藏幀)	〃	2位		
신장탱(神將幀)	〃	1位		
시왕상(十王像)	목체도분(木体塗粉)	19位		
불상(佛像)	석체도분(石体塗粉)	1位		
후불탱(後佛幀)	지본채화(紙本彩畫)	2位		
나한상(羅漢像)	목체도분(木体塗粉)	16位		
불상(佛像)	철체도금(鉄体塗金)	3位		
소종(小鍾)	유철(鍮鉄)	3介		
향로(香爐)	〃	3介		
다기(茶器)	〃	3介		
불반(佛盤)	〃	1坐		
불기(佛器)	〃	1立		
요령(搖鈴)	청동(靑銅)	3介		
광금(廣金)	〃	3介		
중불기(中佛器)	유철(鍮鉄)	3立		
소불기(小佛器)	〃	16位		
화엄경(華嚴經)	쇄본(刷本)	15冊		
식정(食鼎)	수철(水鉄)	1		

경상북도 청송은 동쪽으로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험준한 산악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군(郡)으로, 태백산맥과 주왕산을 경계로 영덕군, 포항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남쪽의 보현산맥은 영천시와 경계를 이룬다. 예로부터 '청송고추'로 알려진 고추의 주산지이다. 조선전기 청송은 토질이 기름지지 못하고 메마르고, 풍속이 남보다 검소하다고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하였다.

여말선초 이래 이 지역의 대표적인 가문은 청송심씨(靑松沈氏)로서 청송을 도호부로 승격시키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을 한 심청(沈淸)·이홍중(李弘重) 등이 이 지역 출신이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은 대전사(大典寺), 보광사(普光寺), 수정사(水晶寺)밖에 없다.

이 가운데 청송을 대표하는 사찰은 부동면 주왕산(周王山)에 위치한 대전사이다. 이 사찰은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말사로, 672년에 의상(義湘)이 창건했다는 설과 919년에 주왕(周王)의 아들이 창건하였다는 설이 있다. 사찰에 관련된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연혁은 전하지 않고,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주방사(周房寺)로 기록돼 있다. 대전사는 16세기 말에 일어난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 유정(惟政) 스님이 승군(僧軍)을 훈련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임진왜란 당시 대부분 전각이 소실된 후, 1672년에 중건됐다.

1751년에 이중환이 쓴 인문 지리지인 〈택리지(擇里志)〉에 대전사가 신선과 스님이 살기 좋은 곳이라 언급되어 있다. 사찰 내에는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삼층석탑, 17세기 후반에 승호 스님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이 만든 석조석가여래삼존상과 18세기 전반에 수연 스님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석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1806년에 종간과 정철 등이 명부전 후불도로 조성한 지장시왕도, 승탑원에 청심당태옥대사탑(淸心堂太玉大師塔), 경월대화상사리탑(慶月大和上舍利塔), 낙진당혜웅대사탑(樂眞堂惠雄大師塔, 1714년 건립), 국일도대선사양종정사경월당비(國一都大禪師兩宗正事慶月堂碑, 1846년 건립) 등이 남아있어 조선후기에도 지속적으로 법등이 이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전각은 보광전(普光殿), 명부전(冥府殿), 산령각(山靈閣), 요사채 등이 있다. 보광전(보물 제1570호), 석조여래삼존상(도 유형문화재 제356호), 지장보살도(도 문화재자료 제468호), 석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도 문화재자료 제469호), 주왕암 나한전 후불탱화(도 문화재자료 제470호)가 지정문화재이다. 부속암자로는 백련암(白蓮庵), 주왕암(周王庵) 등이 있다.

20세기 전반에 대전사에 소장된 불교문화재는 1920년을 전후해서 작성된 재산대장(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을 통하여 자세히 알 수 있다. 재산대장에 의하면 대전사에 봉안된 성보문화재가 20건 100점이고, 이 중에 불상 42점, 불화 6점이 적혀 있다.

따라서 대전사는 20세기 전반에 주불로 봉안된 불상이 3건이고, 시왕상(19위)과 나한상(16위)을 상호 비교하면 전각이 보광전, 명부전, 영산전이 운영되던 작은 사찰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대전사에서 문화재청과 조계종 총무원으로 도난 신고를 한 불화는 2000년 9월4일에 잃어버린 후불도와 지장시왕도이다. 각 불화의 크기는 후불탱화가 세로 365cm, 가로 315cm이고, 지장시왕도의 크기는 세로 275cm, 가로 332cm이다. 이외 신중도는 2014년에 사립박물관장이 은닉하고 있던 도난문화재를 환수하여 현재 은해사성보박물관에서 보존 중이다.

이 신중도를 찾게 된 경위는 조계종 문화부에서 도난문화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고미술품경매시장에 나온 4점이 도난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문화재청 사범단속반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신고했다. 그 결과 긴급조사를 통해 고미술품 경매사에서 운영하던 '조선시대 불교미술 특별경매' 출품작 가운데 한 점이 청송 대전사 보광전에서 도난당한 작품과 같은 작품으로 판정이 난 것이다.

청송 지역 대표 사찰인 대전사
불화 6점 · 불상 42구 상존 기록
현재 후불도 · 지장시왕도 도난돼

2014년 도난된 신중도는 '환수'
조계종 · 경찰 · 문화재청 협력 사례

이 신중도는 1806년 비단바탕에 그려졌는데 화면의 크기가 세로 261cm, 가로 205cm로 비교적 크기가 큰 작품이다. 화면을 살펴보면 아랫부분에는 무장한 호법신들이 서로 마주보듯 배치되어 있으며 화면의 윗부분에는 제석천과 범천 위태천이 그려졌고 그 사이에 사천왕을 비롯한 수호신들이 상반신만 모습을 드러낸 채 서로 마주보듯 시선을 맞춰 도열해 있다.

불교우주관에서 보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수미산, 그 정상 도리천에 살고 있는 제석천을 부각시켜 그린 대전사 신중도는 붉은색과 녹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면서 호분과 청색 그리고 중간색으로 부분 채색하였다.

대전사 신중도는 이전 불화에서 보이던 본존을 중심으로 권속이 둥글게 에워싸던 형식에서 벗어나 권속을 빽빽이 그려넣고 배열한 화면구성으로 복잡해지고 주조색인 적녹색의 색감도 짙어지고 탁해진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화기가 좌우로 묵서되어 남아있는데 박락된 부분이 있어 온전하지가 않지만, 같은 해 조성된 명부전의 지장시왕도 화기와 비교해보면 몇 글자 정도는 꿰맞출 수가 있어서 조성 당시의 시주자는 달라도 연화질 명단을 확인해 갈 수 있다. 일례로 신중도에는 '供養主 比丘幻○ 比丘抱○ 比丘幻○'를 읽을 수 있지만, 지장시왕도 화기에는 '供養主 比丘幻友 比丘抱還 比丘幻○'라 적혀 있어 공양주비구가 환우스님과 포환스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도난 성보의 환수는 성보로서의 위의를 갖춘 예경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보문화재의 의미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 2017년 환수해 온 대전사 신중도를 성보박물관에 이운 봉안하면서 소회를 밝혔던 은해사 성보박물관 부관장스님의 언론 인터뷰 내용처럼 신성한 종교적 신앙물인 불상, 서지, 탱화 같은 전통적 성보들이 경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다.

대전사 신중도 환수사례와 같이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사찰과 종단관계자 그리고 불자를 비롯한 문화애호가 등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
공저=홍은미 옥천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 (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 (제 3의 눈 · 뇌의핵심 〈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 6 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 (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 후원계좌 : 국민은행 (611225-92-12142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과학연구소 (소장 : 처명)

九龍 의 소원...

❑ 사찰의 모든 장소 장식 가능, 분수 가능
❑ 소원당(소원지, 소원패등) 주작품
❑ 작품 소장사찰 : 여수 향일암, 강화보문사 등
❑ 크기 : 4,200(가로) × 1,000(세로) × 1,300(높이)mm
❑ 가격 : 상담 후 결정

기획불사상담문의
승원아트조형 010-9195-1044
네이버 : 승원아트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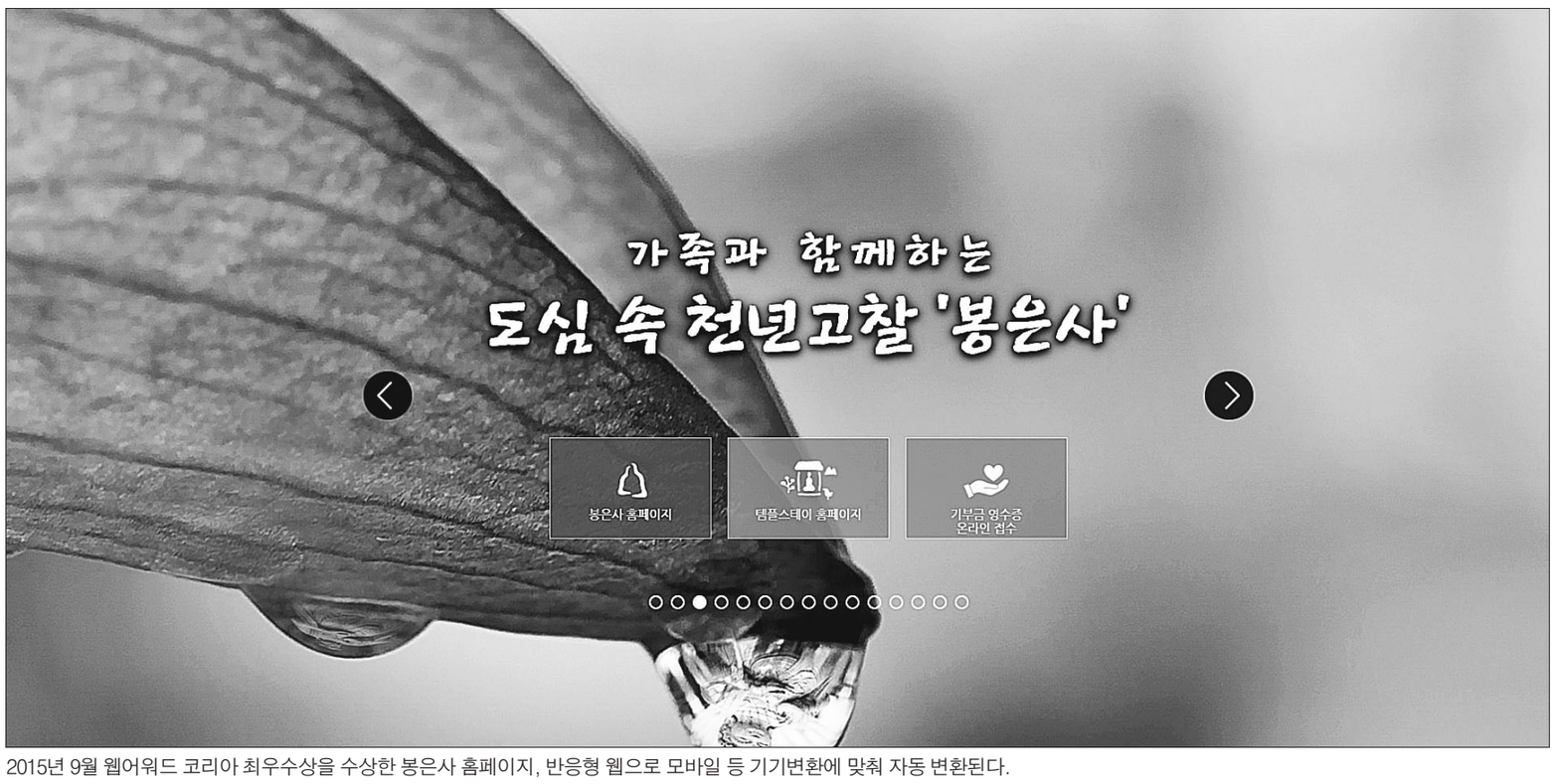


이제 사찰도 홍보해야 산다



조기룡의
사찰경영, 산문에 들다

㉒ 사찰홍보



2015년 9월 웹어워드 코리아 최우수상을 수상한 봉은사 홈페이지, 반응형 웹으로 모바일 등 기기변환에 맞춰 자동 변환된다.

사찰홍보! 교회홍보와는 달리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색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말이다. 아마도 산중불교라는 고정관념이 깊기 때문일 것이다. 사찰은 산중에 은둔한다는 인식이 있기에 사찰을 홍보한다는 생각은 거리감을 만든다. 혹자는 심지어 사찰이 홍보를 하는 것이 점잖지 않은 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도시포교에 사활이 걸린 한국불교의 상황에는 걸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사고다.

현대사회에서 홍보는 조직의 사활이 걸린 과제다. 사찰의 본분은 포교이며, 포교에 사찰의 명운이 달려있다. 이는 사찰재정과 전법교화의 측면을 아우르는 의미다. 사찰재정의 측면은 포교가 되지 않으면 신도를 모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사찰의 재정이 어려워져 존폐의 위기에 놓이는 상황을 지칭한다. 그리고 전법교화의 측면은 사람들에게 사찰의 존재를 알려야 그들이 사찰을 찾고 붓다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는 전법교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을 지칭한다. 이 측면에서 홍보는 포교의 첫걸음이다.

사찰의 홍보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한 가지는 '유형적 · 직접적 방법' 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SNS 등의 홍보와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소식지, 전단지, 현수막, 포스터 등의 홍보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무형적 · 간접적 방법' 으로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사찰의 평판과 인지도를 제고하는 홍보이다.

먼저 유형적 · 직접적 홍보 방법부터 살펴보자. 홈페이지는 온라인 기반의 사찰 홍보를 생각할 때 흔히 가장 먼저 생각하는 방법이다. 현대인들은 어떤 단체나 조직에 대해 궁금하면 인터넷을 검색한다. 이때 가장 정확하면서도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이 홈페이지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의 홈페이지는 검색자가 궁금해 하는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어야 한다. 사찰의 법회 종류와 시간, 주지 스님의 이력, 사찰의 역사, 사찰의 전각 소개로부터 불교교리와 불교상식, 그리고 신행활동 및 봉사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홈페이지의 구성에 있어서는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정보의 업데이트가 중요하다. 사찰의 홈페이지는 불교의 전통미를 세련된 현대미로 승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사찰 측의 불교에 대한 전문성과 홈페이지 제작자 측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한 일이기에 양측의 의견이 아우러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홈페이지의 외형을 담보한다면 정보의 업데이트(update)는 홈페이지의 내용을 담보한다. 사람들은 사찰의 정보가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가 때때로 실망하고는 한다. 홈페이지가 방치되어서 수년전 정보만 올라와 있고 자유게시판에는 상업성 글로 도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홈페이지는 방문자에게 정보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사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정보의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외부 전문 업체에 맡기거나 사찰 내에 능력을 갖춘 전담인력이 있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 제작비와 관리비가, 후자의 경우 고정 인건비가 들어가야만 한다. 사찰의 입장에서는 그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사찰의 이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홍보 방법이 인터넷 카페다.

인터넷 카페는 홈페이지와는 달리 전문기술이 없어도 개설과 관리가 용이하다. 누구나 쉽게 온라인에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인터넷 카페는 화면의 기본구조와 콘텐츠의 기본배정이 규격화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운영자는 그때그때 정보만 업데이트 해주면 된다. 혹자는 인터넷 카페가 홈페이지보다 시각적 아름다움과 정보의 전달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할 수도 있지만, 제작과 관리의 비용을 감안한다면 사찰 홍보에 상당히 유용한 방법임이 분명하다.

홈페이지와 인터넷 카페 이외에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유튜브(youtube) 등 SNS를 병행하면 온라인 홍보의 효과를 보다 극대화할 수 있다. 다만 SNS(Social Network Service) 홍보는 신도 특히 젊은 층의 개별적 참여가 중요하므로 그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과제다.

젊은 불자층 참여 중요한 시대
sns, 웹 활용 홍보 필요성 높아
소식 외 다양한 콘텐츠 담아야

아무리 인터넷 시대라고 할지라도 신도의 상당수가 온라인 미디어에 익숙지 않은 연령대임을 감안하면 사찰 홍보에서 오프라인 기반의 방법은 여전히 간과할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찰의 소식지인 사보(寺報)다.

사보는 사찰 내의 소식지이자 사찰 외의 홍보지다. 좋은 사보는 사찰 내 신도로 하여금 일체감과 소속감, 자긍심을 갖게 하여서 사찰의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 또한 좋은 사보는 사찰 외의 비불자와 비신도들에게 사찰을 안내하여 이끄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보의 기획에 있어서 신도를 위한 소식뿐만 아니라 비불자 · 비신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사가 게재되어야 한다. 불교교리, 불교상식, 불교경전, 불교문화, 불교인물 등이 그러하다. 더불어 사찰의 행사 소식은 신도와 비신도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보 발행의 현실을 돌이켜보면, 답습적인 유인물로 여겨져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아이디어 창출과 자료 수집부터 원고 작성, 편집, 교정, 인쇄, 배포 그리고 평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 투자가 있어야 한다. 예산 확보 이외에도 많은 시간과 다양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중 사보의 질을 담보하는 핵심은 콘텐츠와 디자인이다. 우선 사보의 콘텐츠에는 사찰의 이념과 비전, 사찰의 행사와 교육, 경전의 문구와 해설, 스님의 법문과 동정, 법회의 안내, 포교 활동, 재정의 운용, 신도의 신행수기와 문예, 신도의 애경사와 동정, 봉사활동, 이외 일반 문화와 교양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사보의 디자인은 콘텐츠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한다. 읽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디자인의 역할은 뒷받침 그 이상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사보의 내용(콘텐츠)를 읽기 전에 디자인을 보고 읽을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사보의 레이아웃(layout)은 전문적이고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데 눈길을 먼저 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진과 일러스트는 필수적이며 문안이 많을 때는 발문이 효과적이다. 사보는 그저 줄만을 짜 맞추고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내용을 알기 쉽고 읽기 편하게 하는 제2의 글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서체 또한 사보의 전체 느낌을 좌우하는 디자인임을 유념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과 본문 그리고 발문에 따른 서체의 크기, 간격, 행간, 색채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적절해야 한다. 제목의 서체는 눈에 잘 띄도록 하고, 본문의 서체는 읽기 쉽고 피로감이 적게 하고, 발문의 서체는 제목보다는 약하되 본문보다는 강하게 해야 한다. 더불어 여러 가지 서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가독성과 안정감을 저해함도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전단지 홍보를 살펴보자. 주로 개신교인들이 교회 홍보를 위하여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해서인지, 불자들은 전단지 홍보를 불교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단지 홍보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면 이런 인식은 바뀌게 될 것이다. 흔히 종교단체의 전단지 홍보를 신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한다. 물론 종교단체도 그런 생각으로 전단지 배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런 목적은 불교적으로 여법(如法)하지 못하다. 사찰의 전단지 홍보는 전법(傳法)의 수단이어야 한다. 신도를 모으기 위하여 전단지를 뿌리는 단순한 호객 행위가 아니라 한 장의 전단지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 전하는 순수한 전법이어야 하는 것이다. 전단지가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불교와 불법(佛法)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하여 사찰을 찾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전단지에는 사찰의 소개와 법회 안내 등 홍보성 글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안과 감동을 주어 회심(回心)을 유발할 수 있는 경전의 글들이 담겨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글귀의 선정에 있어서 대중의 고민과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이밖에 현수막과 포스터도 사찰 홍보 특히 산사음악회 등의 일회성 행사나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등의 정기성 행사의 홍보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현수막과 포스터가 정례적으로 반복되어 거치되거나 부착되면 지역주민들은 그 행사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수용한다. 그만큼 사찰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것이다.

이제 무형적 · 간접적 홍보 방법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자. 이 방법을 달리 말하면 '입소문' 이다. 눈에 보이는 홍보 매체가 없고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사찰을 홍보하지도 않지만, 사찰이 지역 내에서 열심히 활동하여 지역주민들의 긍정적 평가를 받음으로써 사찰의 인지도가 제고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무형적 · 간접적 관점은 홍보의 영어 표현인 PR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PR은 Public Relation의 약자다. 즉 대중과의 관계맺음이 홍보인 것이다. 사찰이 봉사활동, 복지활동, 행사참여 등을 능동적, 주체적 그리고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찰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입소문으로 퍼지고 지역주민들이 친밀감과 호감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찰 홍보가 사찰 광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찰 홍보와 사찰 광고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요점만 이야기하면, '홍보=저를 알아주세요!' 인 반면에 '광고=저를 사주세요!' 다. 사찰 홍보는 교화를 위한 전법이지만 사찰 광고는 자칫 영리를 위한 매불(賣佛)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은 양자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광고가 아닌 홍보를 해야 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chokiryong@dongguk.edu〉

한국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한국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등록증
- 주지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300번지 (오정산 백봉사)
■ 종무소 : 전국대표번호 1577-1016 / 054)571-6973 / 054)571-1030 / 054)571-7497 / 팩스 054)571-7498
■ 한국불교방송 : 대구시 달서구 새동네로107 예림빌딩 606호

대한민국 불교종단 역사

대한민국 불교종단 역사는 신라시대 5교9산의 선문(禪門)전통에 따라 비로서 종문(宗門)이 개창(開創)되고 고려시대에 이르러 천태, 조계종을 필두로 종파(宗派)가 설립되어 제종파(諸宗派)가 제각기 부종수교(扶宗樹敎)의 일념으로 불조(佛祖) 혜명(慧命)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을 면면히 계승해 오다 조선조에는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제종을 통합하여 오다가 그후로는 조계종(曹溪宗)만의 단일종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제종파 시대가 열리고 또한 1988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불교 수 많은 종단이 창종되고 소멸되고 이제 그 실체를 파악하여 관계부처에 자료제공과 신문과 방송, 불교언론에 널리 홍포코자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종승(宗承)을 선양하니 해동대한민국에 불일(佛日)이 중휘하고 자비광명이 삼천리 강토에 비추리라. 이와같이 종지 종풍으로 일가를 성립할 수 있어 각기 종명을 세우고 이 땅에 불일중흥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한국불교 조계종 (사)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한국불교방송 ㈜한국불교방송신문사
대구시 달서구 새동네로 107 예림빌딩 606호 / 전화 1670-2012

중생에 희망 주는 아름다운 말씀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㊷ 〈법화경(法華經)〉 1

〈법화경〉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는 경전이다. 일체 중생은 부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니(一切衆生實有佛性), 우린 모두 부처님과 더불어 평등하다(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는 가르침은 〈화엄경〉에서 52계위의 수행으로 펼쳐진다. 〈법화경〉은 이 정신과 수행이 실행되어 우리에게 희망을 주며 믿음으로 실천하는 신앙의 길로 이어지고 있다. 부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낱낱이 "우리 모두는 아무 날 몇 시에 모두 부처를 이룬다"며 수기(예언)를 하여 〈수기(授記)의 경전〉으로 불린다. 아마 이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면 불자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법화경〉의 본래 이름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으로 한글대장경 제 41책 pp1-260에 수록되어 있다. 경전 제목의 의미은 '무엇보다도 바른 백련과 같은 가르침' 이다. 경전번역자인 축법호(266~313)는 본래 뜻에 따라 〈정법화경(正法華經)〉로, 구마라즙(344~413)은 이정(正)을 묘(妙)로 해석하여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으로 번역하였다. 총 7권 28품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삼국유사〉 권3 대산오만진신조(臺山五萬眞身條)에 이 경의 이름이 처음보인 이래로, 대각국사 의천(義天)의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에 등장하며 한국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며 사랑받고 있는 경전이다.

고려시대에는 사경전문기관인 금자원과 은자원을 설치하여 금과 은으로 사경했다. 바로 감지은니묘법연화경(국보 제234호), 취지금니묘법연화경(보물제 314호)과 백지묵서묘법연화경(국보 제211호)을 비롯하여 단일경전으로는 문화재 등록이 가장 많이 지정되었다. 사경한 경전들을 보면 가슴이 설레고 말할 수 없는 환희심이 솟아난다. 사경한 이의 숭고한 마음이 사무치도록 느껴지는 정교한 글씨의 아름다움에서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전서사의 공덕이라는 신앙적인 입장, 한 점, 한 획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일자 삼배하는 수행의 입장과 고귀한 재료로 법사리를 장엄하게 공양하는 입장에서 사경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부처님이 열반을 앞둔 어느 날, 영취산으로 대중을 다 모이게 하시어 엄중한 말씀을 하신다.

"지난 40년간 그대들에게 한 나의 설법은 사실 성불하는 길을 안내하는 임시방편의 가르침이다. 획기적인 대승적인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 가르침을 받을 이는 남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는 떠나라, 나는 이제 새로 대승의 가르침, 이타의 가르침을 설하려 한다."

이 말을 들은 대중은 충격으로 혼란에 빠졌다. 지금까지 정진하고 성취한 모든 삶을 버리고 새 길을 따라 오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 아라한이 되어 대중의 존경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자신들이 이미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비롯하여 모든 수행을 내려 놓아야 한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다. 그들은 그동안 이룬 삼승(三乘)의 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사성제로 수행한 성문승, 연기의 이치를 관찰하는 연각승, 육바라밀을 닦는 보살승까지 목숨을 걸고 수행했었다. 그러다 수행은 했으나 이타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 소승에 비해 대승은 자신들이 이룬 수행 위에 바라밀행을 통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로 자신의 수행을 완성하는 자리(自利)의 삶을 살고 있었다. 또한 방편, 원, 력, 지혜를 통해 불교의 목적인 이타(利他)의 삶을 통해 중생교화라는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이제 이들은 40년 동안 이루었던 가치관 전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기로에 선 것이다. 죽도록 했던 이 수행이 다 불승(佛乘)으로 가기 위한 서막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에 낙담한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회삼귀일(會三歸一)을 위하여 가차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한다.

드디어 비로소 대승불교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그 첫 출발점에 대중을 이끈 가르침이 바로 〈법화경〉이다. 대승의 길, 바로 일불승의 길이 드디어 열리고 있었다. 〈계속〉

〈서울 반야사 주지〉

부처님 지혜로 미완의 물리 문제 풀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㊶ 과학에 적용하는 금강경

수행 중에 얻어진 이러한 지혜는 수도장을 떠나 사회생활을 하고 학문의 세계에 뛰어들면서 더욱 빛을 발하였습니다. 뒤늦게 대학원에 입학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던 것은 '액체점성(Liquid Viscosity)'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액체점성 연구는 세계적으로 기라성같은 학자들도 모두 풀지 못한 난제이며, 또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물리학의 미완성 과제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오직 금강경 공부에만 몰두하면서 학문이나 연구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학문의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더구나 액체점성에 관하여서는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을 비롯해 그 누구도 의논할 사람이 없었고 참고할 문헌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액체점성에 대해 연구하겠다고 나선 것은 말하자면 아무것도 모르는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빈 꼴이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나에게는 자연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 훌륭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강경 공부를 통해 획득한 무기, 즉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정성껏 부처님께 바치는 방법입니다.

'액체점성의 정체성이란 무엇일까?' 도대체 모르겠다는 생각이 수시로 들 때마다 그 생각에 대고 정성껏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모른다는 것이 착각이므로 알아질 때까지 바치고 또 바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 신기하게도 액체의 점성과 기체의 점성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엮을 수 있다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를 수식화할 수 있게 되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액체점성에 관한 수많은 비밀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토대로 새로운 논문을 쓸 수 있었고 지도교수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이 논문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훌륭한 논문이라며 칭찬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방면의 학자들은 액체의 점성과 기체의 점성은 전혀 다른 매커니즘으로 설명되는 것이고 하나의 일관된 매커니즘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런 가정을 뒤집고 액체의 점성과 기체의 점성을 동일한 매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많은 점성의 이상(異常) 현상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획기적 논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연구 과정에서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정성껏 부처님께 바침으로써 자연과학에서도 난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른다는 사실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는 이 가르침을 프로그램화하여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면 모르는 사람, 즉 둔재를 영재로 만들어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강경 가르침은 일체유심조, 공(空), 불이(不二), 구족(具足)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금강경 제 3분, 제 4분, 제 5분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강경속에는 부처님의 법식, 도인의 법식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이런 금강경은 근기가 높은 잘 닦은 사람들만 공부할 수 있는 경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을 비롯한 그 누구도 이 금강경을 공부함으로써 밝아질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금강경 속의 부처님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빈곤한 삶이 풍요의 삶으로,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무지의 삶이 지혜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 고달프고 어려운 이 세상이 즐겁고 희망에 찬 극락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자들의 고유영역인 자연과학의 난제에도 적용이 되어 우주의 비밀을 풀어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제일구(第一句)와 '이 뭣고'

조주(趙州) 선사께서 하루는 임제사(臨濟寺)를 방문해 발을 씻고 있을 때, 임제 선사께서 다가와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서 오신 뜻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마침 노승이 발을 씻고 있는 중이니라"라고 답하였다.

이에 임제 선사께서 조주 스님에게 다가가 귀 기울여 듣는척 하니, 선사께서 "알면 바로 알 것이지 되새김질 해서 무엇 하려는고"라고 하자, 임제 스님은 팔을 흔들며 돌아 셨다.

제일구(第一句)서 깨치면 부처님과 조사의 스승이라 했고, 제이구(第二句)서 터득하면 인천(人天)의 스승이라고 하였다. 듣고 바로 깨치면 제일구이며, 귀 귀울여 되새김질하면 제이구이다.

임제 선사가 하루는 발우를 갖고 탁발을 나갔는데, 한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탁발 왔다고 하니까, 노보살이 대문을 열고 나오며 임제 선사에게 "염치 없는 중이로고"라고 쏘아 붙이고 시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임제 선사가 "탁발하러 왔는데 어째서 한 푼도 주지 않고 염치없는 중이라고 하는고" 물으니, 그 보살이 대문을 확 닫고는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에 머쓱해진 임제 선사도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임제 노장이 노파에게 허물을 보임으로써 그 노파의 빗장 관(關)의 '할'에 임제의 귀를 꽉 먹어 버리게 하고, 누구나 자성 안에 가득찬 천연무가보주(天然無價寶珠)의 문을 활짝 열어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임제 선사를 꼼짝 못하게 한 할망구의 제일 구이며, 그 유명한 임제탁발화(臨濟托鉢話)이다.

당나라 때 위산 선사에게 향엄(香嚴)과 앙산(仰山) 두 제자가 아침마다 문안을 드리는데, 하루는 앙산 스님이 문안 드리자 위산 선사는 벽을 향해 돌아누우며 말하길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대가 나를 위해 해몽 해보게나"라고 했다. 그러자 앙산 스님이 즉시 밖에 나가 세수 대야에 물을 떠다가 위산 스님 앞에 놓고 나갔다. 그 다음에 향엄 스님이 문안 드리자 앙산 스님과 똑같은 말을 하니, 스님은 즉시 밖에 나가서 정성껏 차(茶)를 달여와 바쳤다. 그러자 위산 선사는 "내 두 제자의 신통(神通)이 목련존자(木蓮尊者)를 지나가는 구나" 라고 하며 크게 칭찬했다.

생사(生死)서 벗어난 꿈을 깬 진여실상에서는 억지로 꾸미지 않는 순수한 평상심(平常心)이 지극한 도(道)이며, 그 행선(行禪)이 바로 '이 뭣고' 인 것이다.

다음은 용성 선사와 전강 선사의 전신구(轉身口) 법거량이다.

전강: 어떤 것이 제일구입니까?

용성: 영신아!

전강: 예

용성: 제일구를 일러 마쳤느니라.

전강: 허허(박장대소)

용성: 자네가 전신(轉身)을 못했네.

전강: 전신구를 물으옵소서.

용성: 여하시 전신구인고?

전강: 낙하여고목제비(落霞與孤鶩齊飛)하고 추수공장천일색(秋水共長天一色)입니다.

전강 스님이 "저녁 노을은 따오기와 더불어 날고 가을 물은 하늘과 함께 일색입니다"라고 하니, 용성스님이 아무 말 없이 방장실로 돌아갔다.

이환즉각(離幻卽覺)이라는 말처럼, 꿈을 여읜 제일구서 진성과 하나된 깨달은 경지를 보여 준 것이다.

오조 홍인 선사가 이르길 "무상보리(無上菩提)는 모름지기 언하(言下)에 제 본심을 알고 불생불멸하는 제 본성품을 보아서 언제나 만법에 막힘이 없으며, 일진(一眞)이 일체진(一切眞)이라 만경(萬境)이 스스로 여여하니 그 마음이 즉시(卽時) 진실(眞實)이니, 만약 이와같이 보면 곧 이것이 무상보리(無上菩提)의 자성(自性)"이라 했다. 그러니 만법이 모두 자기 마음속에 있음을 알고 자기 마음 속에서 진여 자성을 본다면 이 제일구 듣는 언하에 대오(大悟)하는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본지 윤호섭 기자 불교기자상 수상

종교편향 행사명칭 교체 이끌어



올해 한국불교기자상 취재보도 부문에 본지 윤호섭 기자의 '패럴림픽 페스티벌 종교편향 명칭 비판 보도'가 선정됐다.〈사진〉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현태, 이하 불기협)는 11월 19일 한국불교기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호성 · 동국대 교수) 회의를 열고 2018년 한국불교기자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권오영 법보신문 기자의 기획연재 '조계종 총무원장 열전'을 대상인 선원빈 기자상에, 이경민 불교신문 기자의 '해보니… 체험기'를 기획 · 해설 부문 수상작으로 각각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패럴림픽 페스티벌의 종교편향 명칭 비판 보도'는 2018년 3월 패럴림픽 기간에 강원도와 한국관광공사가 준비한 축제 명칭이 '3월의 크리스마스'인 것에 대해 공공기관의 종교중립을 지적했다"면서 "행사명칭을 '스노우 페스티벌'로 교체하는 성과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김지원 기자

"서예와 수행은 하나"

최연소 청남서예대상 김상지 서예가



김상지(29 · 사진) 청년서예가가 제29회 청남서예대상 전국휘호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11월 18일 부산시민공원 전시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상지 씨는 "서예를 수행의 방편으로 정진하겠다"며 "부모님과 은사스님인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최연소 대상 수상자인 김상지 작가는 '독서파만권하필여유신(讀書破萬卷 下筆如有神)'이라는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로 작품을 출품했다.

청남서예대상 전국휘호대회는 청남 오재봉 선생을 기리고 선(禪)서예술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양인숙 시인, 불교아동문학상 수상

시집 '그 너머가 궁금해'로… 24일 시상



제35회 불교아동문학상 수상자로 양인숙 시인〈사진〉이 선정됐다.

한국불교아동문학회(회장 이창규)는 "제35회 한국불교 아동문학상 수상작으로 양인숙 시인의 동시집 〈그 너머가 궁금해〉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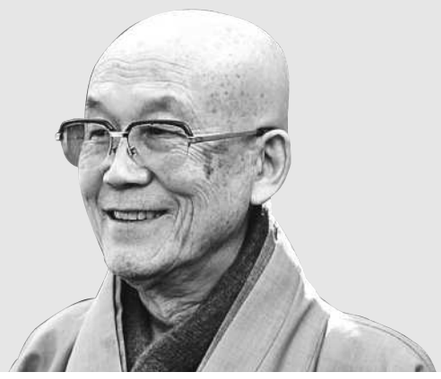
곽영석 · 김종상 · 신현득 심사위원은 "수상작은 비교적 단시가 많으면서도 구호적이며 비문학적인 요소를 충분히 소화했다"며 "문답식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 '마주보며' 등 보시와 보살심을 형상화한 불교 시에 높은 점수를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시상식은 11월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예술가의 집에서 열린다. 김지원 기자

"정통 조사선 체험 선풍진작 주춧돌"

Interview

조사선 수련회 여는 원명선원장 대효 스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2월 7~9, 21~26일 걸쳐

청소년 · 일반인 대상으로

간화선의 화두참구 도와

"대승불교가 훼손되고 붕괴되며 일어난 조사선을 대중에 전하지 못하면 불교는 대중과 격리돼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 조사선을 비롯한 선불교는 기존 인식을 뒤집는 일대 혁명적 사상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방식에도 맞습니다. 불교를 위한 불교, 불교만을 위한 불교에서 벗어나 새롭게 대중에게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조사선으로부터 선수행 진작을 도모하는 수련회가 열린다. 제주 원명선원(선원장 대효)은 12월 7~9일, 12월 21~26일 조사선 수련회를 개최한다.

제주 원명선원 선원장 대효 스님은 "청소년과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삼매체험을 통해 빗나간 습관과 태도를 바람직한 자리로 돌려놓는, 깨달음을 구하지 않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깨달음이 다가오는 무공용(無功用-한다는 의식 없이 함)의 공부법 수련회를 지속적으로 연다"고 밝혔다.

원명선원 수련의 특징은 일상생활에서 간화선 화두참구를 통해 나의 주인은 '나'임을 자각케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원명선원에서는 참선과 금강단식을 함께 병행한다. 참선을 통한 단식의 어려움을 쉽게 극복해 수련의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대효 스님은 "참선 · 단식 수련을 통해 심신의 홀가분한 경쾌함을 통감할 수 있고 심신개벽을 통해 자신감, 신념증대, 창의성, 능력개발 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식에 대해서도 스님은 "원명선원에서 하는 금강단식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것과 달리 단식 전 감식과 단식 후 보식이 전혀 필요 없으며 요요현상도 없다"고 밝혔다.

대효 스님은 그동안 대중 선수행 진작을 위해 50여 년간 제방에서의 참선 수행과 지도를 해오고 있다.

원명선원에서 고통 끝 행복시작을 의미하는 '고(苦)땡 캠프'를 시작으로 어린이, 청소년, 부자, 부부, 가족집단 수련회와 제주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선 실참과 불교 체험을 제공하는 '인문학의 숲' 강좌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화두참구의 간화선보다 조사와의 문답을 통해 정진하는 조사선 보급에 힘쓰고 있다. 스님은 "조사선 정신은 힘을 쓰는 과정을 통해 목적을 이루거나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며 "'말 듣다 깨닫는 법'이 조사선의 핵심사상이다. 서로 주고받는 이 순간 깨어난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 순간순간 '모름'이 촉발된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한국불교계가 이러한 선지식으로부터의 가르침과 지도의 방식을 놓치고 있다. 간화선의 위기도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조사선은 전통이나 가치체계 및 사상적 권위 등 일체를 부정하고 시작한다"며 "기도 중심의 불교사상을 부정한 새로운 불교다. 이 시대 조사선을 통해 대중교화와 불교 전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종소리, 호국 등불로 빛나길"

고창 선운사-육군 35사단 호국 충경사 범종각 낙성



호국 충경사 범종각 낙성식에서 내빈들이 기념 테이프를 자르는 모습.

전북도민들의 안녕과 향토방위를 책임지는 육군 35향토사단 호국 충경사에 범종각이 새롭게 들어섰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와 육군 35사단(사단장 석종건)은 11월 20일 부대 내 호국 충경사에서 '충경부대 안전과 발전, 평화기원을 위한 범종각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해 홍련암 재정 스님, 강천사 주지 종고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선운사합창단 불자들과 석종건 사단장 등 부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낙성법회는 경과보고와 리본커팅, 타종, 환영사, 법문, 음성공양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범종각은 청정하고 맑은 소리, 하늘의 소리, 진리의 소리가 퍼져나가는 곳"이라며 "범종소리가 35사단 장병과 가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모두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주고, 지역주민들에게도 화합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종건 사단장은 환영사에서 "범종각 낙성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충경부대에 울려 퍼진 범종소리가 장병들 가슴마다 호국의 등불로 빛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석종건 사단장은 경우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경우 스님은 소형 범종을 석 사단장에게 선물했다.

이날 낙성한 범종은 500관 규모로 옛 9군단에서 1988년 제조됐으나 부대 해체로 인해 106연대에 있던 종으로, 석종건 사단장이 선운사 경우 스님에게 이전 불사를 요청해 35사단 호국 충경사에 종각을 새로 조성하고 낙성법회를 봉행하게 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계종 성찬회, 동국대에 장학금

20명에 각 100만원… 총 2천만원



(재)불교문화진흥 조계종 성찬회(이사장 정념)는 11월 15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성찬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수여식은 동국대 서울캠퍼스 15명, 경주캠퍼스 5명 등 총 20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성찬회는 조계종 초대종정 한암 대종사의 도심 포교 발원을 받들고 탄허 스님과 만화 스님의 유지에 따라 설립됐다. 신성민 기자

"국내외 소외 이웃 돕고자"

조계종 19교구, 동행에 5500만원



조계종 제19교구장 덕문 스님(구례 화엄사 주지)은 11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자비나눔기금 5,500만원을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 이하 동행)에 전달했다. 기금은 교구 본 · 말사가 함께 모연한 것으로 인도네시아 재해복구 500만원, 여수시 이웃돕기 1000만원, 언양자재병원과 화엄사 역경사업에 각각 2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김지원 기자

"스리랑카 스님 위한 공양"

광주 길상사, 고월당서 카티나 법회



광주 길상사(주지 도제)는 11월 18일 스리랑카 불자들 200여 명 참여한 가운데 안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카티나 법회를 고월당에서 열었다. 카티나 법회는 스리랑카의 전통법회로 매년 음력 9월 28일 하안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가사와 음식을 올리는 법회로, 스리랑카에서는 1개월간 전역에서 진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전쟁 없는 평화에 매진을”

태고종 전북종무원, 부사관 후보생 수계식

태고종 전북종무원이 육군 부사관 후보생들을 위한 수계식을 봉행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종무원장 진성)은 11월 18일 육군부사관학교 호국 충국사 큰법당에서 교육중인 부사관 후보생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법회 및 위문공연을 펼쳤다.〈사진〉 수계법회는 진성 스님, 교임국장 천지사 주지 현진 스님, 원경사 주지 자비 스님, 혜동사 선덕 교임과 마이산 탑사 나누우리 봉사단, 부사관 후보생 500여 명이 동참했다.



진성 스님은 후보생들에게 삼귀의계와 오계를 설하고 “전쟁 없는 평화를 위해 간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위문공연은 율범 문화예술단이 출연해 달마그림 퍼포먼스, 전통무애 춤, 라틴 왈츠 댄스, 상모굿판 등이 이어졌으며, 후보생들과 출연진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동한마당으로 마무리됐다.

황정은 후보생은 “입대 전에도 절에 자주 다녔는데, 군에 와서 새롭게 수계 받으니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성미 후보생도 “불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했지만 이번 수계식을 계기로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빛고을 불교계 자비나눔

빛고을나눔나무, 승려복지 · 아동복지 나서

지역 불교모금단체를 통해 자비의 손길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돼 감동을 주고 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동현) 부설 빛고을나눔나무는 11월 17일 담양 호국사를 찾아 말기 신장병과 고혈압으로 혈액 투석을 받는 지궁 스님에게 치료비 600만원을 전달했다.

빛고을나눔나무 승보공양은 어려운 여건에 처한 스님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지궁 스님에게는 매월 50만원씩 1년간 지원된다.

북구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전달도 화제다. 무등산 원효사(주지 해중)는 15일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 회향을 맞아 동참자들이 낸 기도비 300만원과 빛고을나눔나무 ‘붓다의 선물’ 기금을 더해 광주 북구청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에 전달했다.

드림스타트는 조손가정 및 저소득가정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날 전달한 붓다의 선물은 지원대상 아이들 중 중학교에 진학하는 39명에게 ‘사랑의 책가방’을 선물한 것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신심 · 화합 위한 삼보일배

범어사 불교대학총동문회 초발심 다져

삼보일배로 초발심을 다지는 정진의 자리가 개최됐다.

범어사불교대학총동문회(회장 여예진)는 11월 18일 범어사 입구에서 대웅전 앞마당까지 구법삼보일배 수행정진을 진행했다.〈사진〉 삼보일배는 2시간 동안 총 1.2㎞를 이동해 회향했다. 200여명의 참가자들은 석가모니불 정근에 맞춰 발걸음을 옮기고, 합장하며 차가운 바닥에 몸을 엎드렸다. 합장을 풀고 바닥을 짚을 때는 벅차오르는 환희심으로 눈물을 쏟았다.



범어사불교대학총동문회는 매년 삼보일배로 신심을 고취하고 바른 정법의 길을 안내하며 강조해왔다. 출발에 앞서 범어사 포교국장 효산 스님은 “평생 한 번 해보기 힘든 경험이며 진심으로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돌아보는 자리가 된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다문화가정 “김치 담그며 우리는 하나”

삼광사, 부산 다문화가족 김장나눔문화제 개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이역만리 고향을 떠나 우리나라에 정착해 한국문화를 배워가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사찰에서 한국 전통음식문화인 김장을 배우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지원까지 이어져 세밑 한파를 앞두고 훈풍을 불어넣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세운)가 11월 20일 경내 마당에서 ‘부산다문화가족 김장나눔문화제’ (이하 다문화김장나눔)를 개최했다.

다문화김장나눔은 우리나라 김장문화를 결혼이주여성에게 알리는 한편 전통문화를 익히도록 돕고, 아울러 담근 김장김치를 소외계층에 전달해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삼광사는 김장배추 1만 포기를 마련했다. 김장김치는 다문화가정뿐 아니라 소외계층 3000세대에 지원될 예정이다.

다문화김장나눔에는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 천태종복지재단 사무총장 덕중 스님, 박상준 부산시 정무부시장, 백정림 부산시 여성국 국장과 다문화가족 500여 명 및 신도 100여 명이 동참했다.

본격적인 김장에 앞서 삼광사는 개식선언을 진행했다. 개식선언은 내빈소개와 개회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다문화김장나눔 후원금 전달식 및 자비의 쌀 전달도 진행돼 훈훈함을 남겼다.

다문화김장나눔을 위해 먼저 시원공익재단에서 앞치마와 물티슈 등 300만원 후원물품을 전달했으며 패밀리병원에서 후원금 300만원, 신세계안과에서 후원금 100만원을 삼광사에 전달했다. 이어 삼광사는 다문화가정 및 소외이웃을 위해 쌀 10㎏ 2000포 총 20톤을 후원했다.

결혼이주여성 500여 명 참가
김장 1만 포기 담그며 ‘화합’
소외계층 3천 세대에도 나눔
“한국문화 배울 기회 많아지길”

김장에 동참한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처음해보는 김장이 즐겁고 한국문화를 좀 더 알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천태종 삼광사가 개최한 김장나눔문화제에서 스님과 불자, 결혼이주여성들이 함께 배우에 김장양념을 버무리고 있다.

륜싼원(중국) 씨는 “김장이 처음이다. 집에서도 한 번도 담가본 적이 없었다”며 “새롭게 알게 된 한국문화가 좋다. 매년 이렇게 행사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이린(필리핀) 씨는 “김치를 먹을 때마다 톡 쏘는 맛과 매콤한 맛에 조리법이 궁금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다”며 “자주 이런 기회가 있어서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장 만들기 시범을 마친 스님들은 다시 불자들과 다문화가정 여성들과 함께 김장을 이어갔다. 주지 세운 스님은 무엇보다 다문화가족이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스님은 “우리 전통김장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독특한 음식 문화이다”며 “다문화가족들이 소통하고 하나 되며 이들이 담근 김장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으로 자리이타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라밀로 다진 대학생 마음공부

부산대 불교바라밀회 34회 창립법회 봉행

부산대학생 포교의 산실인 부산대 불교바라밀회가 최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수를 확대하고, 선후배간 소통의 자리를 통해 포교의 선사례를 만들고 있다.

부산대학교 불교바라밀회(회장 박선혜)는 11월 17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소강당에서 제34회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매주 목요일마다 법회를 가지며 마음공부의 재미에 푹 빠져있던 이들은 창립기념일을 맞아 지도법사 혜영 스님(한마음선원 부산지원)과 재학생, 신입생, 졸업생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을 초대해 선배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대학생 포교활성화의 원을 세우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선혜 불교바라밀회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마음공부를 통해서 바깥으로 향했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고 제 중심을 바르게 세워가는 법을 배웠다”면서 “바라밀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님들의 끊임없는 응원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부산대학교 불교바라밀회가 11월 17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소강당에서 제34회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지도법사 혜영 스님은 “저는 마음공부를 가르치지만 법우들은 저에게 밝고 순수한 에너지를 아낌없이 내어준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 가르침을 주는 법회를 하고 있다”고 인사했다.

이어진 후배들의 장기자랑에서는 대중가요를 마음공부에 맞춰 개사한 음성공양, 선배들의 추억을 되살리는 7080노래 그리고 신세대 댄스 등으로 선배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마음이 담긴 선물을 선배들에게 전달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창립기념법회에는 바라밀회 초대회장 해피 스님(해피법당 선원장), 법천 스님(무량사 주지), 장상목 교수(부산교수불자연합회 회장), 정태권 교수(전 부산교수불자연합회 회장), 이승한 회장(바라밀회 총동문회), 김상희 총무(부산대 불교학생 동문회) 등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1985년 창립된 부산대학교 불교바라밀회는 한 때 회원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매주 정기법회와 템플스테이 체험, 혜영 스님이 직접 개발한 붓다 마블게임 등 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회원수가 48명으로 늘어났고 대학생 포교활동에 좋은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한편, 바라밀동문회 한사랑회에서 50만원, 부산대 불교총동문회에서 3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한마음선원은 매달 도서지원비 30만원, 연말장학금(부산지원) 200만원, 한마음선원 재단에서 바라밀회 회장에게 대행장학금 300만원을 지원하며 대학생 불자 포교를 후원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KBS 과학카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2018@naver.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가르침을 듣고 나서 믿고 기뻐하며 의심치 않는 사람은 최고의 깨달음을 속히 성취하여 여래들과 같아질 것이다.

〈화엄경〉



관상(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모집안내

사암, 포교원 등록
종단, 연합회 등록
불교문화원 시설 등록
지방 종무청 설치 등록

한국불교 종무청

종무집정기관 종무집정관
종통정승 011-412-8040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책-검색★

①**천기누설운**(運비밀공개)
②**종교의본질**(최상기도법)
③**대박재테크운**(運재테크)
④**천기소설예언자**(삶인도)
⑤**손도사**(6신통大도사)

책이름검색,1권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뇌강검의 기도가!

칠백신을 소멸시킨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불교용품 고가매입 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산문철학 1개월 완성

▶ 책임지도
▶ 고승비급 전수

동국대 대학원 졸업(석사)
정광 합장
010-3936-2295

곽민 신기원

【예약상담만 가능】

농협 계좌
302-1325-1333-31
곽영리

문의 010-8620-2334

토굴구함

- 정업수행에 적합한 토굴을 구합니다. 산속이나 마을과 떨어진 조용한 곳이면 가능합니다.
- 임대나 매매가능

010-7678-5536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010-7344-1881

(사)한국불교 조계종 영락사

요양하실 분 / 기도 하실 분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033) 435-9556
010-7137-5924 / 010-4717-1960

불보살님 가피체험

-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관계(부부, 자녀, 가족, 직장 내 갈등), 건강, 일, 사업 등등
- 불보살님의 가피를 통해 삶의 지혜를 만난다.
- 달 첫째 주, 셋째 주 (토,일) 스님과의 친견, 면담의 시간

네이버 블로그에서 〈묘진사〉를 검색해보세요
묘진사 (대구 내당동 소재)

053-652-2714
우송스님 010-9616-2477

인간부처 시대위에
십사만사천 신명불하강했다.
신전 두뇌 속 령신 상천 기
연결, 단전속 진아불 불수기
전수 신명, 불, 미륵불,
천주들로 해탈 성불시킴.
일월천불도.

아미타화신 아사라 불
010-6778-8960

사주팔자/관상/손금 수강생 모집(비범)

① 스님 우대, 무속, 일반인, 철학관 개업하실 분
② 말문이 잘 열리지 않는 분(속성지도)
③ 수강 3개월 지나면 개업 가능(뒷바라지 계속 지원함)
④ 개인 지도 가능(상담 후 시간조절)

부산 미래 예측 연구원 원장 **도 담** 합장
H·P 010-5823-2710 TEL 051-804-8688

최면 치료 및 전수생 모집

①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② 최면치료는 부작용이 없다.
③ 빙의(신들림)에서 부터 우울증, 자살충동까지
④ 최면치료는 재발이 없다.
⑤ 사고장 통증 치료까지 전수

HOMEPAGE : www.hypnosis.or.kr
최면치료사 상담치유학 박사 강성진 교수
010-4844-7002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수리 비술
- 수리의 비밀과 의미를 알려 드립니다.
- 손 하나만으로도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 전 후의 운세를 예측할 수 있는 운세 작법
- 명리나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이메일 jabi2018@naver.com | 02) 2004-8214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남의 흉이 한 가지면, 자기 흉은 열 가지가 되는 법이다.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하는 꼴이 되지 말자.

〈법구경〉



삼 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사하구
◎ 대지 : 750평
◎ 법당 : 50평
◎ 요사 : 3층 20평씩
◎ 양도액 : 20억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약 34평
◎ 요사 : 34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북
◎ 총 : 20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절대 비밀보장...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사찰안내(전세)

- 위치: 부산 구서동(지하철 3분)
- 새로 개금불사 및 법당 모두 수리
- 오르막 없는 평지. 주차 넉넉함
- 하천부지 100평(산신각 포함)
- 시설비, 권리금 한푼도 없음
- 전세, 월세 조건 맞추어 드림

010-7121-3030
010-3574-330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6천만원 (대출 1억)

010-8916-5680

사 찰 안 내

- 위치: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 대지:254평, 하천부지330평 총 580평 사용중
- 건물 : 대웅전,산신각,관음전, 공양간, 요사채(방 5개)
- 종무소 2층 건물, 주차장
- 답사 후 절충

010-6514-0405
010-2041-818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소재 (송도해수욕장 인근)
- 대지 : 약 130평
- 건물 : 한옥 2동 (법당 및 공양간 약 22평, 주지실 7평 등)
- 가액 : 보증금 일천오백만원, 월50만원/시설비 : 상담 후 결정

010-3262-1005

광 진 불 사

◎ 위치 : 강원도 천년도량
◎ 부지 : 7000평
◎ 법당 : 50평
◎ 요사 : 70평. 외
◎ 매가 : 20억 3천

◎ 위치 : 서울
◎ 대지 : 100평 사용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 역세권
◎ 매가 : 11억 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사하구 전망좋은 사찰 ●대지: 350평
- 대웅전,삼성각,요사채2동 (1동은 3집 월세받음)
- 많은 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 가액: 13억 5천만원

010-3269-1023

사 찰 안 내

- 법당, 요사체, 토지 3,971.1㎡ / 1,201.26평
- 전북 군산의 조용하고 불심을 다스리기 좋은 최적의 도량
- 인가도 멀지않아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주변이 둘레길 산책로가 형성되어 접근성이 좋음

010-5870-3358
063)451-2505

사 찰 안 내

- 위치: 용인터미널 10분거리. 버스, 빌라, 주택많음. 아파트 단지 건설중
- 대지 456m². 138평. 목조 5칸. 법당3칸. 방2개. 식당 큰방 1개. 창고
- 인연되면 몸만 와도 됨(비구니 최적도량)
- 매일 새벽 4시 도량석,종성 문제없음
- 30년 이상된 고찰. 생활 불편 없음
- 주변 고속도로 완공예정. 무한 발전 지역
- 가액 : 4억 5천

010-3565-008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연산동
- 대지: 121평
- 대웅전 1동, 삼성각 1동
- 소불당 1동(600불 봉안) 요사채 1동, 주지실 1동 용왕당, 사시사철 자연수
- 사찰 연력 130년 완전고찰
- 가액 : 4억

연락처 010-7273-1529
010-2720-1580

암 자 안 내

- 위치:경북 영주시 이산면 영봉로 1031번길
- 토지 120평. 건평 약25평 (등기되어있음)
- 지상권 양도(정남향.지하수)
- 토지 1년 도지세 쌀 한가마
- 삼존불 봉안 양도 금액 1600만원

010-6783-251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339-9
- 법당 30평
- 방1개, 친견실, 공양간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절충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010-7257-4242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화봉로
- 2층 : 33평. 방2,화장실2,법당,난방 완비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준비 할것 없음
- 가액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 1,900만원(가격 절충)

※ 불사관계로 (급)

052-287-8526
010-7572-8526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효목2동 437-5 동구시장 맞은편. 명보약국. 골목
- 4층건물 내 2층 40평 중 내실. 상담실 주방. 세탁실. 화장실. 법당 29평내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신중탱1점 소불 관세보살 지장보살
- 보증금, 시설비 포함 1,700만원 월 45만원,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748-4737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 3층 40평 법당 삼존불 시설원만
- 방2 주방 화장실 옥상사용함
-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5분 거리
- 전세 1,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1,000만원(가격절충가능)

010-7536-25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청통면 보성길70 (산을 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 465평, 현대식 건물 2동 1층 요사 30평, 14평 2층 30평 법당
- 가액 : 3억 9천만원

011-503-051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대전통영 고속도로 고성IC에서 약15분거리
- 대지: 총 3,356평. 건물 84.5평 (대웅전 37평 포함)
- 120미터 지하수 사용. 가건물 약 60평(숙소 및 식당 등)
- 용도: 사찰 및 요양병원, 복지관 등 조건 좋음
- 사찰이 필요치 않고 요양병원 등이 필요만 할시 분할 매각 가능. 분할 매각시 [대지 1,490평. 건물 47.2평(단독주택)] 가능. 지하수 공동 사용가능함
- 매각대금은 상호 절충가능함

010-8785-1574

펜션 별장 토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일월산 자락에 아담한 곳
- 현대식 목재건물
- 건평 30평, 대지 밭 1천평
- 앞마당 계곡, 법당 부지 있음
- 가액 : 2억 4천만원
- 가격 절충 가능

010-5424-496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내서 IC 5분
- 법당: 약 23평. 단청필
- 요사체, 친견실, 산신각 각 1동
- 주차장:넓음 ●대지: 약100평
- 가액: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소백산
- 물 좋고, 공기 좋은 곳, 조용히 공부하실 분 적합
- 불기 일체, 집기 일부, 수도, 전기, 보일러 유
- 벽돌기와건물, 35평, 텃밭, 대형주차
- 총평수 7백14평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가 2억
- 낮 12시 이후 4시전 통화가능

010-4747-346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양군 석보면
- 종교부지 250평 법당 25평, 산신각 5평, 요사채 30평 창고 및 화장실 15평
- 철골, 지붕강판기와
- 가액: 1억 4천

054-683-6496
010-4726-6496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남 양산 남부시장 옆
- 4층 건물 내 2층 40평. 법당, 요사, 공양간
- 보증금 1000만원 / 월 3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최고시설.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709-0108

사 찰 안 내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63-19
- 대지 200평, 군임대부지 약 300평
- 법당 10평, 산신각 2평, 용왕각 6평, 요사채 20평, 황토방 4평, 창고 약 5평
- 외불미륵불, 지장보살
- 금액: 1억 8천. 가격절충가. 집기일체

010-3757-3699

사 찰 안 내

- 전남 진도군 지산면 앵무리 산 19번지/21-2번지/22번지
- 3필지 도로접. 5m 넓이로 3필지 안까지 차 들어감
- 청정지역. 사찰 및 암자 적합
- 3필지 14600~14700평
- 1억 600만원. 조정가. 상담 후 결정

주인직 010-8666-621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 전원 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총대지 300평
- 정자(3×5m) 원목
- 진주20분 도로 잘되어 있음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 벽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2억3천만원

문의처 010-2607-7114

사 찰 안 내

- 호미곶 대보리 최고요지
- 대지 : 약 200평
- 2층건물 옥상 해수관음 설치 7자
- 바다 조망권 최상
- 태양광 설치, 전기 절약
- 묫땅 : 4억 3천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선산에 법당 건립 관계로..
- 전세 : 1억 가능

010-7441-2345

사 찰 안 내

◎ 요사채 30평 1개, 40평 1개
◎ 법당 30평(깨끗)
◎ 노천불, 용왕당 대지 100평
◎ 田(밭) 1,000평
◎ 국유지 500평
◎ 가액: 5억 5천

◎ 유실수 과수원, 田(밭) 700평 ◎ 가액: 2억

- 위치: 경북 예천. 현지점에서 신도청 8㎞, 예천군청 8.5㎞
- 현 땅값 시세 5억 5천 ~ 6억 사이
- 사단법인 종단 함께 인수가능 ●답사 후 가격 절충

010-3526-7066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시내
- 대지 : 2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40평
- 산신각 : 10평
- 묫땅 : 1억 1천만원

010-8861-1785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거창군 양평리 15-5외 5필지
- 면적 5,000여평
- 기와 건물(주택)1채
- 산과 산 가운데 아늑한 위치
- 거창읍이 한눈에 내려다 보임
-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청정거창

010-4661-7734

포교원 임대

- 위치 : 강동구 소재
- 상단 : 삼존불 후불탱화
- 중단 : 신중,산신,칠성탱화
- 하단 : 인등,연등 집기류일체 포함
- 2층 건물 35평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13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 교통편리함. 지하철 버스정류장 2~3분내

010-7135-6349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오거리 ●법당: 38평
- 불단 청동 3존불 후불
- 후불, 신중탱화 인등 2개
- 영단 영가등 1개
- 법당 집기 및 주방용품 일체구비
- 가액 1000만원 / 월세 90만원
- 시설비 5000만원 ●답사후 절충 가능

010-3661-1920

포교원 안내

- 위치: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역 1, 5호선 7분거리
- 3층 건물 중 2층 40평, 법당 18평(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7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

010-3167-1774
02-848-17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집현면
- 대지 : 약1000평,산 약1만평
- 건물 : 법당 30평, 요사25평, 산신각 3평, 기도방 1칸
- 가액 : 4억 2천(절충가능)
- 대출 : 1억 8천만원

010-6520-5859

사 찰 안 내

- 위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가액 : 7억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불상,불화등 기타)
-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 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010-8716-2399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법회, 환갑, 칠순, 돌잔치, 명절 등 각종 행사, 가족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행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일본 最古 사리장엄 발견되다

나라현 타이마데라, 서탑 상륜부에서 발견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나라현에 소재한 타이마데라(612년 창건)에서 일본 최고(最古)로 추정되는 사리장엄구가 발견됐다. 11월 15일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의 일본 현지 언론들은 "현재까지 일본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 중 가장 오래된 연대의 유물"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4일 타이마데라 · 나라국립박물관 · 나라현교육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타이마데라의 서탑(西榻) 상륜부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는 7세기 후반 하쿠호(白鳳時代)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리장엄구는 지난 7월 서탑 보수공사 중에 발견됐다.

사리장엄구는 깊이 17㎝가량의 동제 외함에 담겨있었으며, 각각 다른 크기로 금, 은, 금동제의 사리함이 3중으로 담겨 있었다. 가장 안쪽에 담겨있는 사리호는 80%의 순금과 20% 순은을 합금해 높이 1.2㎝의 크기로 조성, 안에서 투명한 사리가 발견됐다.

사리구와 함께 외함 내부에서는 수정 구슬과 10세기경의 동전, 12세기에서 17세기까지 다양한 연대의 문서와 사경 등 탑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들도 발견됐다.

나라국립박물관은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 서탑의 보수는 약 1914년이다, 당시 조사에서도 사리장엄구를 발견했으나 시대를 밝히진 못했다"며 기록에 남은 사리장엄구가 이번에 발견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리장엄구의 양식에 대해서는 "금, 은, 동의 삼중 사리구는 석가모니가 입

7세기말 조성한 것으로 추정
동제 외함에 3중으로 담겨져
10세기 이후 사료들도 발견
"창건당시 건축구조도 짐작"

적한 후 법구를 금, 은, 동으로 만든 삼중관에 안치했다는 이야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삼중 사리구를 탑에 봉안한 것은 하쿠호 시대 다른 탑에서도 발견된다"고 전했다.

조사에 참여한 일본불교미술사의 권위자 세키네 슌이치 나라대 교수는 "화려한 장식 없이 소박한 조형미를 강조한



타이마데라 서탑 상륜부에서 발견된 삼중 사리장엄구. 사진출처=산케이뉴스

당시 사리구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제 사리호와 은제 사리구의 뚜껑이 "은과 납을 합금해 땜질을 하는 은납 접착을 사용했다"며 불교미술사에서 매우 보기 드문 귀중한 사례라고 밝혔다.

또 서탑 보수공사책임자인 야마시타 히데키 니라현 문화재보존 사무국 주임은 "하쿠호시대 사리장엄의 발견으로 사찰의 창건당시 건축구조를 짐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사리장엄구의 발견으로 서탑의 건축 추정시기도 앞당겨지게 됐다. 서탑은 지금까지 9~10세기경에 건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0년 전 보수공사에서 "심주(心柱)가 초석에 비껴서 부자연스럽게 서있다. 또 초석의 형태와 크기 등이 10세기경의 초석으로 보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점에 대해서 타이마데라 측은 "절의 전승에 따르면 타이마데라는 현재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축됐다고 한다. 심주에 비껴난 것은 이러한 이축에 따른 것 아니겠는가"며 의견을 전했다.

발견된 사리장엄구는 보존처리를 거쳐 내년 2월 19일부터 약 한 달간 나라박물관에 특별 전시될 예정이다. 그 후 나라박물관에 기탁된다. 타이마데라 측은 "사찰의 명확한 창건시기를 알 수 있는 귀중한 보물이다. 탑에 다시 봉안하면 몇 백 년을 볼 수 없다"며 기탁 이유를 밝혔다. 대신 동일한 복제품을 제작, 발견된 사리만을 다시 봉안하여 탑에 안치한다.

스리랑카서 스님 '강경 진압' … 대통령 사과

경찰, '도로 점거' 이유로 물대포 · 최루탄 발포

스리랑카 정부 반대 시위에 참석한 승려 및 신도들에게 경찰이 무차별 물대포와 최루탄을 쏜 데 대해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이 11월 19일(현지시간) 공식 사과했다.

Hiru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리세나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평화적으로 시위에 참석한 승려 및 신도들에게 강경 진압을 한 경찰 관계자를 면밀히 조사에 즉각 조치에 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급진 불교 단체 보두발라세나(Bodu Bala Sena) 스님들과 신도들은 이날 창립자 갈라고다 아세세 그나나사라(Galagoda Aththe Gnanasara Thera) 스님의 석방을 요구하며 오전 대통령 비서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물대포 및 최루탄을 쏘며 진압했다. 이와 관련 현지 언론은 "스님들을 포함한 시위대가 대통령 비서실 진입로를 막은 채로 시위했다. 경찰은 시위대 분산을 위해 물대포 및 최



시위에 참여한 불교 단체 보두발라세나 스님들과 신도들이 물대포를 맞고 있다. 사진출처=데일리미러

루 가스를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급진 불교계를 중심으로 경찰의 이 같은 조치가 '강경 대응'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교 탄압'이라는 말까지 나오며 단체 행동까지 암시됐다. 불교단체 지도부들은 스리랑카 대통령실을 직접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이 직접 사과, 진화에 나섰다. 이들이 석방을 요구했던 갈라고다 아세세 그나나사라 스님에 대한 사법적 검토도 다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정현 객원기자

日, 높이 6m '토끼 관음상' 탄생

제초 도와주는 토끼들에 보은 의미 담아

일본 니가타(新潟)현 사도(佐渡)시에 특별한 불상이 조성됐다. 지난 11월 15일 일본의 인터넷 매체 '이로이로뉴스'는 사도시 쵸코쿠지(長谷寺)는 높이 6m의 '토끼 관음상'을 특별 보도했다.

쵸코쿠지는 807년 세워진 천년고찰. 경내에 모란과 철쭉, 민들레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꽃으로 유명한 사찰이다. 쵸코쿠지는 지난 2006년부터 제초제를 사용해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화초는 물론 참배자들과 경내환경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제초제 사용을 중지했다. 이와 함께 대체방안으로 "토끼들을 경내에 방사해 잡초를 먹게 하는 '토끼 제초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내에는 약 140마리의 토끼가 살고 있다.

토끼 관음상은 그간 경내 환경보호에 공헌한 토끼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조성됐다. 좌대를 포함해 높이 6m, 하얀 석영석으로 조성된 거대한 토끼석상의 가슴에는 쵸코쿠지의 본존 11면 관세음보살의 얼굴이 부조로 새겨졌다. 토끼의 눈에는 붉은색 발광다이오드를 설치, 밤에는 토끼의 눈처럼 붉게 빛난다.

쵸코쿠지의 주지 토미타 호겐 스님은 "토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조성



사도시 쵸코쿠지에 건립된 토끼관음상과 야간에 점등된 모습. 사진출처=이로이로뉴스

했다. 토끼들이 절을 지키기 위해 힘써주는 만큼 관세음보살님께서 토끼들을 지켜달라는 뜻에서 토끼의 몸에 관세음보살님의 얼굴을 새겼다"고 조성 의의를 밝혔다. 또 호겐 스님은 "토끼 관음상을 일부러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특이한 모습으로 조성했다, 앞으로 싱가폴의 머라이언(Merlion)과 같이 사도시의 심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토끼관음상의 뉴스를 접한 일본 누리꾼들은 "토끼를 위해 관음상을 조성했다는 점이 귀엽다" "반드시 보러 가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야간에 붉은색 눈이 켜진 사진에 대해서는 "밤에 눈이 붉게 빛나서 무섭다" "마치 게임 속 악당 캐릭터 같다" 등의 반응을 보여 낮과 밤의 두 가지 캐릭터가 공존하는 점에 호평을 보냈다.

박영빈 객원기자

무자비한 미얀마 군부… 로힝야족 무차별 총격

경찰 "칼로 위협해 불가피" 난민 "경찰 공격한 적 없어"

미얀마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군부의 무자비한 행태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로힝야족을 보호하겠다며 만든 내국 난민촌(IDP)에서 무장경찰이 난민들을 향해 총을 쏘는 참사가 벌어진 데 이어, 최근 로힝야족 난민 송환 실패 책임을 방글라데시에 전가해 국제사회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11월 19일 VOA뉴스 ·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경찰은 전날 라카인주(州) 주도 시트웨 인근 아 나욱예 IDP에 20여 명의 무장한 경찰관을 보냈다. 최근 로힝야족 난민 100여 명을 태운 채 양곤 인근 해역에서 적발된 선박의 소유주를 검거하기 위함이었다. 이 과정에서 4명의 난민들이 총상을 당했다.

경찰 측은 난민들이 자신들을 에워싸



미얀마 현지 경찰의 발포로 총상 입은 로힝야족 주민들. 사진출처=더인펜던트

고 칼로 위협해 불가피한 발포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난민촌 벵갈리(군부 및 극우불교단체에서 로힝야족을 낮춰 부르는 말)들이 검거 과정을 방해해 발포 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벵갈리가 다쳤다고 들었다.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로힝야족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 로힝야족은 로이터통신에 "우리는 경찰을 공격한 적 없다. 경찰은 경고 사격 없이 곧바로 주민들에게 발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에 당초 방글라데시로 도피한 로힝야족 난민들의 송환 계획도 무산됐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양국이 방글라데시로 망명한 로힝야족 난민 일부인 2251명을 1차 송환 대상자로 선정, 본국행을 추진한 지 약 일주일만의 일이다. 로힝야족은 총격 사태 등이 발발하자 시민권 및 안전 보장을 촉구하며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문제는 미얀마 당국이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채, 로힝야족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적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특히 난민들의 송환 거부를 두고 방글라데시 측에 원인을 돌리면서 자신들은 '할 만큼 했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국제사회 공분이 일고 있다. 그동안 중재 역할을 하던 UN에서도 '내로남불'식의 미얀마 당국의 행태에 우려를 표명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비난했다.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도 송환중단을 촉구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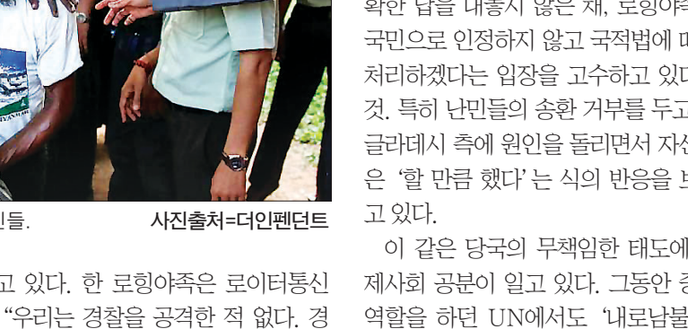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 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아잔 브람

〈11〉 삼매의 가르침(사념처와 팔정도)

모든 생각은 바르지 않다

오늘은 '마음챙김의 확립 경'의 앞부분에서 시작하는 대신 경전의 끝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전의 끝 부분에 사람을 놀라게 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을 이와 같이 칠 년을 닦으면 두 가지 결과 중의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취착의 자취가 남아 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기대할 수 있다. 비구들이여, 칠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육 년을 닦으면 …오 년을… 사 년을… 삼 년을… 이 년을… 일 년을… 일곱 달을… 여섯 달을… 다섯 달을… 넉 달을… 석 달을… 두 달을… 한 달을… 보름을 닦으면, 아니 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을 이와 같이 칠 일을 닦으면 두 가지 결과 중의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취착의 자취가 남아 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기대할 수 있다.

〈맛지마 니까야〉 '마음챙김의 확립 경'
-초기불전연구원



이 경전의 끝 부분에서 부처님은 적게는 칠 일 동안 사념처 수행을 하면 누구든지 구경의 지혜를 얻어 아라한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환과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곳 명상 수련회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수행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호흡 수행을 하면 사념처 수행을 성취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호흡 수행을 한 여러분은 왜 아라한이나 불환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부처님이 거짓말을 했나요?

물론 부처님은 가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말한 이야기 속에서도 나이 든 스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농부와 법률가와 장군은 처음에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이 든 스님의 말을 있는 그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이상 수행하고서도 아라한이나 그 밖의 도와 과를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잘못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선행 조건 하나를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한 '세상에 대해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라는 구절입니다.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세상에 대해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리고 수행을 하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사념처 수행을 하기에 앞서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 즉 다섯 가지 장애를 어느 정도 약화시켜야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른 마음챙김이 팔정도에서 일곱 번째인 것입니다. 팔정도의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수행을 통해 다섯 가지 장애가 약화되어야 사념처 수행, 마음챙김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사념처 수행
누구든지 구경의 지혜 얻게 돼
문제는 5가지 장애의 걸림돌
팔정도로 장애부터 약화시켜야

바른 견해

우리는 인생의 즐거움을 늘이기 위해 마음챙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양에서는 생활에서 스트레스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일상생활이 더 즐거워진다는 이유로 마음챙김 수행을 합니다. 그들은 윤회를 마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수행은 바른 목적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며 바른 견해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이 수련하는 마음챙김에는 결정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마음챙김 수행을 가르친 목적에 못 미치는 마음챙김 수행입니다.

바른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는 팔정도의 두 번째인 '삼마 상깝빠'의 의미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마 상깝빠는 영어로 '바른 생각'이라고 번역되는데 제 생각에는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생각이나 사념은 바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각은 '바르지 않은 생각'입니다. 결국 삼마 상깝빠는 '바른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놓아버리는 마음가짐, 적개심 없는 마음가짐,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른 말 · 행동 · 생계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말을 했다면 그 결과가 수행 중에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누군가에게 불친절한 행동을 했다면, 예를 들어 개를 걷어찼다면, 그러한 행동의 결과로 수행자는 평화로움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챙김은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에 좌우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면 다섯 가지 장애 중 하나인 '후회와 들뜸'이 일어나 평화로움을 방해합니다.

바른 정진

편하지 않은 자세로 오랫동안 수행하는 것은 신체에 대하여 자애롭지 못한 것입니다. 간지러움이나 통증을 느낀다고 곧장 움직이기보다는 몇 번 정도 가볍게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의 불편함도 못 참거나 아니면 반대로 심한 통증을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중도를 취해 자애롭게 신체를 대하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챙김

마음챙김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마음의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멈추어야 합니다. 마음의 속도가 빠르면 달리는 차 안에서 차창 밖의 풍경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이 내면에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며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마음챙김을 위해 '멈춤'이 필요한 것입니다.

몸

사념처 수행은 몸, 느낌, 마음, 정신 현상의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몸에 대한 마음챙김 수행입니다. 이 수행의 설명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이런 반복은 빨리어 특유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몸에서'라는 앞의 단어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라는 구절은 그저 '몸을 관찰하며'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호흡 수행이고, 그 다음 네 가지 자세의 알아차림, 일상의 알아차림, 서른 두 가지 몸의 부위에 대한 관찰, 사대(四大)의 관찰, 그리고 시체의 관찰 등이 있습니다.

느낌

느낌은 접촉이라는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접촉이 멈추면 느낌도 멈춥니다. 시각적 접촉, 청각적 접촉, 후각적 접촉, 미각적 접촉, 촉각적 접촉, 이 다섯 가지 접촉이 사라지면 느낌도 소멸합니다. 행복한 느낌도 사실은 괴로움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도 시각적 경험이 닫혔을 때의 아름다움만 못합니다. 최상의 음식 맛이나 섹스의 경험도 신체적 감각이 사라지는 즐거움만 못합니다. 다섯 가지 감각적 경험이 사라지면 최고의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감각적 경험에서 비롯되는 느낌은 모두 괴로움입니다.

느낌은 그저 느낌입니다. 우리는 느낌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도 그저 그뿐입니다.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도 그저 그뿐입니다. 그 느낌은 나도 아니고 나의 소유도 아닙니다. 집착할 것도 없고 붙잡을 이유도 없습니다.

마음

그 다음은 '마음에 대한 마음챙김 수행'입니다. 탐진치가 있는 마음을 탐진치가 있는 마음으로, 탐진치가 없는 마음을 탐진치가 없는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삼매에 든 마음을 삼매에 든 마음으로,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을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으로 분명히 아는 수행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안다'는 것은 장애가 지나간 이후에 스스로의 마음을 반조하여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이해하는 지혜도 포함됩니다. 몽롱함과 졸음이 지나간 이후에 몽롱함과 졸음이 있는 마음 상태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삼매에 든 마음을 삼매에 든 마음으로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정에서 나온 후에 '반조하는 지혜'를 통해 알게 됩니다.

법

장애가 일어나는 원인은 '지혜롭지 못한 주의 기울임'입니다. 감각적인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감각적인 생각은 점점 커집니다. 감각적인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거리를 두면 감각적인 생각은 점점 약해집니다. 눈앞을 가렸던 손을 치우면 시야가 넓어져서 손 이외의 다른 것도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에 강박적으로 매달리지 않고 상대의 다른 부분을 보면 미움이 줄어듭니다.

장애가 사라져서 수행이 깊어진다는 것을 칠각지, 즉 깨달음을 이루는 마음의 좋은 특성이 계발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행의 과정에서 칠각지가 계발되는 원인을 이해하게 됩니다. 칠각지가 계발되는 원인은 '지혜로운 주의 기울임'입니다. 깨달음을 이루는 마음의 좋은 특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주의 기울임'입니다.

이 글은 아잔 브람의 위빠사나 명상 강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불광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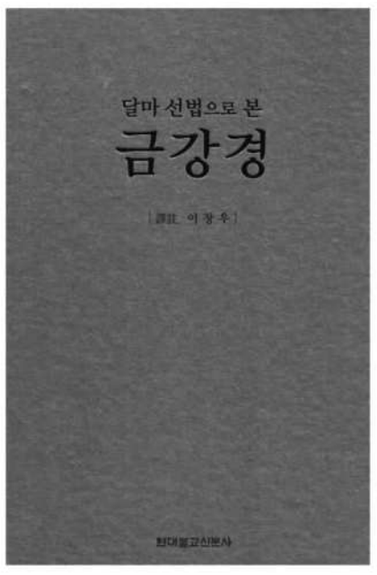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
여시아문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는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 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에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 구입문의 : 02)2004-8216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똥 누고선 반드시 밑을 닦고 깨끗하게 일어설 수 있어야!

(지난 호에 이어서)

하여튼 여러분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남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이 어려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진로를 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부잔데도 가난한 사람 또 정말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 그렇게 하세요.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북하면 몸을 뒤틀고 못 쓰는 사람 또 단전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가정 파탄이 나고 모두 못 살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한 집이라도 알게 하면 좋은 일인데, 정말이지 이 공부를 여러분이 하면서 얼마나 좋게 사는지 나는 그거 생각만 하면은 흐뭇하고 또 내려다보면 '아휴, 모두 나 예전에 모를 때 모습이구나. 저렇게 모자라게 사는구나.' 하고 씁쓸하게 침을 삼키죠.

하여튼 그저 하치 못하다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실천에 옮기면서 생활 자체가 그대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재료니까, 모든 것은 당신이 있길래 세상이 있고 상대성 원리가 생긴 거니까, 모든 거는 당신에게서 나오는 거 당신에게 모든 거를 맡겨 놓고 그래야 입력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새 입력이 들어가면서 새로이 살 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중에 공부하는 데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아프니 어쩌니 하는 거는 그냥 평상시에 11시서부터 12시 반까지 이렇게 하니까 평상시에 오시고요.

대중 스님 가운데서 스님, 아직 1번은 말씀 안 하셨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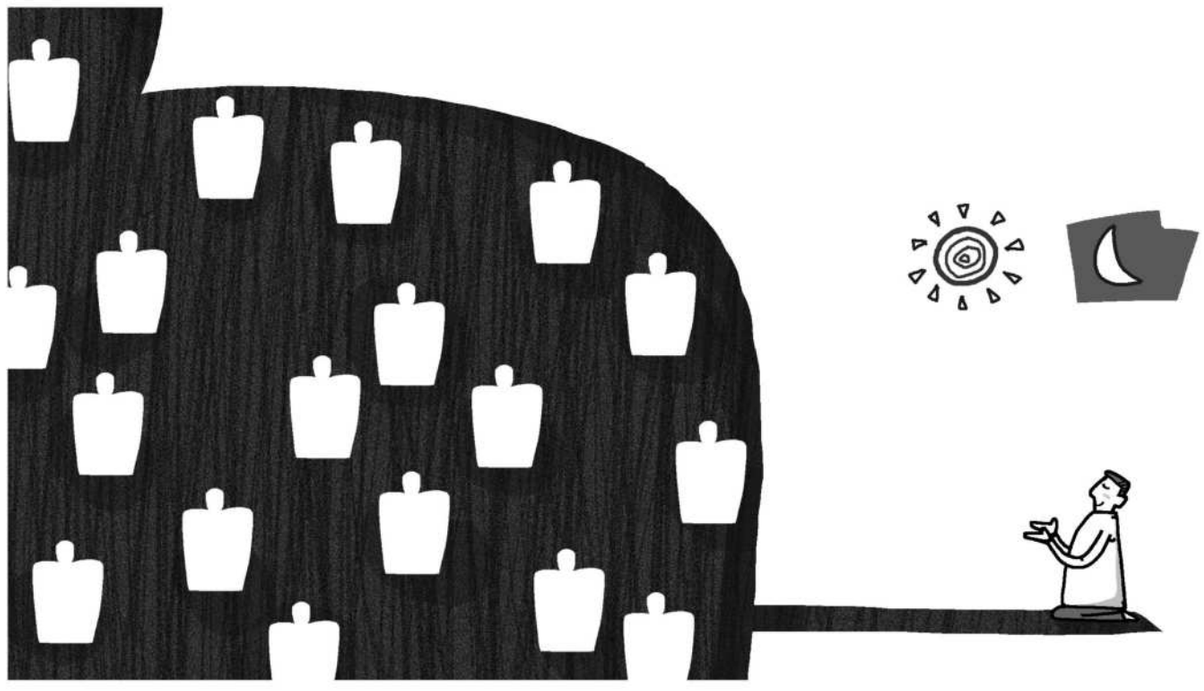
큰스님 아이, 그것도 또 잊어버렸네. 하하하. 이 질문이 들어온 게 말입니다, '주인공뿌리 너만이 잘 이끌어 줄 수 있어.' 이러라고 내가 일렀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말입니다, 때에 따라 곤충도 됐다 짐승도 됐다가 작부도 됐다가, 남자도 됐다 여자도 됐다, 아이도 됐다가 어른도 됐다 늙은이도 됐다가 별게 다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여여하시고 걸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부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이름은 이름일 뿐입니다. 이름은 이름일 뿐이에요. 너라고 한들, 부처라고 한들, 관세음보살이라고 한들, 지장이라고 한들, 이름은 이름일 뿐인데 내가 그렇게 말해 드리는 거는 자기 중심 주는 자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살던 자기기 때문에, 이것이 밀접하기 때문에, 너라고 하는 게 더 정답고 더 밀접하게 들어가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긍정적인 진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라고 한다고…, 왜 이런 게 있죠. 자식이 귀하면은 손주가 귀하고 귀엽고 그러면 "어휴, 요놈의 자식!" 그러고서 요렇게 궁둥이를 쳐 주는 수도 있죠. 그게 욕입니까? 그건 욕이 아닙니다. 또 "아! 이 문둥이 같은 놈의 새끼! 왜 이제 왔어?" 하고 그럴 때 그것이 욕입니까? 욕 아닙니다. 이름이 욕일 뿐이지 그 속에는 뜨거운 정열이 포함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얼마나 치열하게 믿고 얼마나 밀접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만이,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게 못된 이름입니까? 아주 깔보고 그냥 뭉개는 이름입니까?

자기하고 둘이 아닌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냥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할 때에 문제는 달라지죠. 그게 알아지게 되면, 포함해서 알아지게 되면 그때 가서는, 때에 따라서는 참 크나큰, 정열적이고도 크나큰, 뭐 어떻게 갚을 수가 없으리만큼 될 때에, 자기 마음이 스스로서 존경이 되고 스스로서 알게 되고 스스로서 행하게 될 때에 '아하! 이거는 부처님이라고 해도 내 몸뚱이 전체가 네 것이지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사는 것도 없고 내가 하는 것도 없고, 내가 말하는 것도 없고 내가 보는 것도 없고, 내가 듣는 것도 없구나! 그러니 내가 나라고 할 게 하나도 없구나! 어, 그러니까 당신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모두를 잘 아시고, 너라고 하는 것이 너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허허허, 참, 생각하면 극치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한 말입니다, 극치적이게. 아주 진짜로 형제간에도 진짜로 "너만은 할 수 있어." 이러고 위로를 해 줄 때가 있죠. '너만은 할 수 있잖아!' 하고 그럴 때 진정으로 아주 진실하게 들어가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못된 이름도 아니고 잘된 이름도 아니고, 그 가운데에 뜨거운 정열이 들어간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고요, 그럼 말씀하세요.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스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마음에 불을 밝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마음선원에 처음 입문했을 때 스님께 질문드리는 그 마음과 지금 제 마음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이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 드린다는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같이 더불어서 공부한다는 마음에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네가 열 마디의 진실한 말을 하였을지라도 한 번의 침묵만 못하다." 하셨습니다. 그 말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큰스님 지금 날더러 뭐라고 그랬죠? 전자에 질문할 때와 지금은 뭐라고 말로 할 수 없으리만큼 감사하다 이랬죠?

질문자1(남) 예.

큰스님 나도요, 부처님의 그 뜻과 이 세상 돌아가는 이 모든 뜻을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어떡하면 표현을 좀 해 줄까 해서 그냥 하는 거지 진짜로는 가고 옴도 없이 가고 오고, 온통 그냥 일어나는 줄 모르게 일어나기도 하고, 보이지 않게 그냥 뭐, 모두 그냥 빛보다 더 빨리 돌아가고 온통 이러는데 이거를 뭘로 말을 해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아야만이 아마 이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에, 한 번 침묵만 못하다 이러는 거는 열 마디 말로 아무리 해 봤던들 소용이 없고 한 번 생각의 침묵이 그렇게 우주를 들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선원에 와 가지고 많은 스님들 말씀을 듣고는 저도 처음에는 도를 이루어 보려고 상당히 집착심을 갖고 있었으나, 지금 현재 제 마음은 이 마음공부 하면서 한마음 공부는 단, 도도 아니요, 또 내가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편안함도 아니고, 말로 굳이 표현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맹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올바르게 먹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큰스님 올바르게 그냥 생각하시고 살면요, 이 댁의 몸뚱이 속에 있는 의식들이 다 댁의 생각을 따라 줘서 한 침묵이 한생각이 돼서 한생각의 법이 돼요. 그래서 법이 됨으로써 그거를 이름해서 법신(法身)으로서 움죽거리는 거를 뜻하죠. 그걸 중용이라고 하죠.

그러니 모두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는 질문을 할 때 자기가 알았더라도 남들을 위해서 보살행을 하는 것도 그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것 그것을 잘 생각해서 자기가, 자기가 터득을 해야지 남이 말을 하는 걸 듣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이해만 해 가지곤 안 돼요. 냇물이 흘러가는데 끝이 없다 이러니까 끝이 없는 걸로만 그냥 알지 말고 진짜로 그 끝이 없는 걸 집어먹어 봐야 안단 얘깁니다. 나는 똥 누고 밑 안 씻는 사람은 끝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똥을 누고선 반드시 밑을 닦고 깨끗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라면 앞으로 성취를 꼭 하실 겁니다.

질문자1(남) 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한테 말씀해 주신 감로법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자2(여) 큰스님,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이 운명하시는 걸 지켜보면서 몇 가지 느낀 점과 스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사를 초월하는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막상 그 일에 처하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실 때마

☞ A18면으로 계속

74개의 명당자리가 한 곳에 모여있는
화제의 신간
신비의 명혈명당
명혈명당을 가진 자(者)가 천하(天下)를 지배한다!
명혈명당을 가진 자(者)가 세상(世上)을 변화시킨다!
명혈명당을 가진 자(者)가 입신양명(立身揚名)한다!
천하대지(天下大地)인 천조명당(天造明堂)이 한 장소에 74개씩 네 곳에 296개가 모여있는 명혈명당(名穴明堂)의 실체(實體)를 밝히다.
동선호 지음 / 신국판 / 468쪽 / 정가 30,000원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금강삼매경요해, 드디어 나왔다!!
천년千年의 보물,
불지혜佛智慧 비밀을 세상에 내어놓았다.
그토록 찾던 불佛지혜 깨달음의 보물!
성불成佛의 심오한 비밀 지혜통로와 그 지혜 과정을 상세히 모두 밝혔다.
깨달음 보살세계 무위지혜의 차별차원 대승, 일승, 일불승, 불승, 불佛의 최상 깨달음과 지혜세계를 모두 밝혔다.
최고지혜경전, 금강삼매경 불지혜로 꿰뚫어 자상히 두루 밝혀 5종금강삼매경(고려장경·대정장경·원효본·원정주해·주진통종기) 하나로 묶었다.
대구시 소재 불국정토 세웅스님 신국변형판 / 936쪽 / 정가 70,000원
원각경요해
圓覺經了解
깨달음, 구경성불 과정의 깨달음 지혜를 모두 밝혔다.
여래결정경계 원각삼종자성 수행의 실상, 심오한 각성세계를 밝히며, 대승, 일승, 불승보살 각성차별과 깨달음 각성과정을 모두 밝혔다.
♣ 깨달음 각성과정 지혜세계를 모두 밝힌 지혜집결 책이다.
♣ 구경성불 수행과정 깨달음 경계와 각성세계를 밝혔다.
♣ 본기청정 인지법행 삼종자성 각성지혜를 두루 밝혔다.
♣ 깨달음 상승과정 세밀한 각성체험 세계를 두루 밝혔다.
♣ 사바타 삼마발제 선나의 수행실체와 각성세계를 밝혔다.
♣ 생주멸념 본제두수 심오한 원융각성의 비밀을 밝혔다.
♣ 대승(大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일승(一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불승(佛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반야 법화 화엄경과 보살 3승과 사법계의 각성관계를 밝혔다.
대구시 소재 불국정토 세웅스님 관음출판사 / 신국판 / 644쪽 / 정가 33,000원
新사주학핵심비결 송월스님 지음 / 신국양장본 / 817쪽 / 50,000원
사주풀이의법수 송월스님 지음 / 신국양장본 / 616쪽 / 75,000원
새로운 滴天髓풀이 1,2,3권 慧源 羅明祺 지음 / 신국양장본 / 1,2권 40,000원 3권 50,000원
관음출판사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승가전통 건강비법
마 가 목(원탄)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 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 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탄)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내가 생활하면서 모든 걸 이 한마음으로서 조복을 받아야!

☞ A17면에서 계속

다 정말 맨 처음에는 고통으로 보니까 참 고통스러웠는데, '한마음 주인공에 한자리 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산고를 겪고 있으시구나!' 그렇게 한마음 돌리니까 참 편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언니들이 큰스님 친견하고요, 그날 바로 편히 몸 벗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8형제인데요. 그 당시에 맨 큰오빠가 교도소에 가 있었어요. 이렇게 국토의 버려진 땅을 유용하게 썼는데 현행법으로는 위법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있는 사이에 아버님이 굉장히 위독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도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주인공, 당신이 있다면, 그 80평생을 사신 아버님께 장남 못 보고 가시게 하면 서로 한이 되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러고 탁 맡겼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오빠가 나오고 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서류가 한데 뭉쳐지면 그게 죄가 과해 가지고 입건이 되고요, 서류가 나누어지면 죄가 약해져 가지고 이렇게 풀려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서류가 자연스럽게 풀려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건 저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곤 나중에 아버지하고…. 그런데 자식하고 부모지간이란 참 그렇게 착이 많구나 하는 걸 느낀 게,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경을 헤매시다가도 정말, 정말 곧 돌아가실 것같이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큰오빠 교도소에서 나오는 것 보고 그때 의식 잃으시고 한 삼 일 효도하실 수 있게끔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 8형제 중 6형제는요, 한마음 공부를 다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큰오빠하고 막내오빠가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오빠하고 3일 동안 계속 아버지 이쪽 손 저쪽 손 잡고 오빠랑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대한 얘기하고 불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도 제 자신이 깜짝 놀란 게 그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빠도 교도소에서 6개월 동안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나 봐요. 그래 가지고 둘이 얘기를 하니까 한마음이 그대로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장 그 기독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문제되었던 게 "왜 우리가 갈고 닦으면 부처님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 없을까?" 그러면서 오빠한테 그걸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제 마음에서 '아! 우리 부처님도 내가 부처라고 하면서도 내가 부처라고 내세우면 이미 부처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건 말이구나. 진리는 하나구나.' 그러면서 어렴풋이나마 글자를 보지 말고 백지를 보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장례식 절차가 문제가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세례를….

큰스님 그래서 그렇게 관했더니 오빠가 아버질 만나고 돌아가셨소?

질문자2(여) 예.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영결식장에서요, 저희가 이 공부를 안 했더라면 어쩌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가 돼 가지고 찬송가 부를 때 불러 드리고 모든 그런 절차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초상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잔칫집같이 그렇게 화목하게 이 일을 끝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전부 예배 절차도 다 하고 우리 한마음 선원 광주지원 스님들께서 시다림도 해 주시고 그랬거든요. 모든 걸 그렇게 해서 하나로 돌아갔는데 마음에서 의정이 나는 게, 물론 한마음으로 다 돌아가는데, '형식과 마음이 둘이 아닌데 어떻게 형식이 틀리는데 마음이 하나로 돌아갈까?' 그게 의문이 생깁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제각기 다, 일체 만물만생이 다 다르죠. 모습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고 모두가 달라요. 그러나 다른 그 자체는, 예를 들어서 비유하건대 불기둥이 땅을 딛고 하늘을 꿰고 있다고 합시다. 그 불기둥을 중간에 끼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수레바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그 불기둥에 꿰여 가지고 돌아가는 건데 그 돌아가는 것마다 똑같은 게 없어요. 전부 불기둥에, 한 불기둥에 꿰여서 돌아가는 거는 동일하지만 이 수레가 제각기 돌아가는 거는 차원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모든 게 전부 다르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제각기 돌아가면서도 하나로 돌아가고 하나로 돌아가면서도 제각기 돌아가요.

그러니 이것을 사람들이 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을 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죠. 내 몸뚱이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걸 보지 말고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로 돌아가지 않나. 그러면서도 모습 다르지, 의식 다르지 다 생명은 똑같은데 전부 달라요. 그리고 소임 맡은 것도 전부 다르고요. 안 그래요? 위장 공장, 간장 공장, 허허허, 대장 공장, 소장 공장, 방광 공장, 콩팥 공장, 식도 공장 그냥 모두 제각기 다 다르죠. 그래도 하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의식 자체를 모아서 모두 다스리는 선장 말입니다. 자기 영원한 선장, 주인공 말입니다.

질문자2(여)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맛있게 밥상 차려 주셨기 때문에 맛있게 먹고 맛있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치않다 하지마는, 이게 생활 속에서 다 쓰이고 생활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문제들입니다.

질문자3(남) 저는 오늘 큰스님을 처음 뵙습니다. 그렇지만 큰스님께서 설법하신 책을 보고 수행한 지는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수행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와 닿아서 진짜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건 또 새로운 하나의 탐심이 아니었던가? 오히려 놓고 맡긴다는 게 하나의 그 끊고 뭐를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볼 때 내가 찾아야 될 나, '참나'와 그다음에, 맡기고 놓아야 될 이 '가아(假我)' 이 차이가 많이 혼동이 됩니다.

> **모든 것은 당신이 있길래 세상이 있고 상대성 원리가 생긴 거니까,**
> **모든 거는 당신에게서 나오는 거 당신에게 모든 거를 맡겨 놓고 그래야**
>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새 입력이 들어가면서 새로이 살 길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스님 말씀 중에 다 이렇게 듣고 이해는 가는데, 순간순간 저희들이 경계에 부딪칠 때, 즉 진심(瞋心)이라든가 심한 그 탐심에 부딪칠 때는, 그런 의식 이런 것도 되지도 않고 순간적으로 거기에 말려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니고 아주 심하게 번뇌가 많은 사람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은 안쪽으로 굴리면서 절도 많이 해 보고 또 참선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또 마음이 더 여여하고 좀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찾아야 될 내 '참나'와 그다음에 놔야 될 '가아(假我)'와의 차이, 고다음에 마음은 안으로 굴리면서 절을 많이 하고 참선을 하는데, 그 수행 방법 두 가지를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스님 가아도 없고 참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둥 하나가 이렇게 방편으로 있다면 굴레가, 거기에 끼고 돌아가는 굴레가 있습니다. 기둥은 움죽거리지 않지만 그 굴레는 그냥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고 있는 그 수레가 역시 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가짜 나가 믿고 찾는 거, 또는 진짜 참나가 하는 거, 이렇게 따로따로 찾지 마세요. '주인공!' 했으면요, 그 기둥째, 수레째 내가 찾는 나와 더불어 같이, 지금 댁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수레에서 굴러 나오는 거와 같습니다. 수레에서 자꾸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댁에는 자꾸 수레에서 나오는 대로 그 수레에다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참선을 하고 또는 참나를 찾으면서 절을 하고 이러는 것만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앉고 싶으면 앉고, 서고 싶으면 서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뭐 똥 누고 싶으면 똥 누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럴 때 그냥 그 용도에 따라서 내 앞에 닥치는 대로 가는 그 자체가 바로 참선이자 그냥 도예요. 그러니까 행주좌와(行住坐臥)를 그대로 하시란 말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앉아서 참선할 사이가 없는데도, 시간이 없는데도 참선한답시고 시간을 내서 앉았다면 그건 참선이 아니에요. 진짜 참선이라는 것은, 똥 누면서도 진짜 진실히 돌아간다면 이거는 참선이 돼서 그게 공덕이 되는 거고요, 공심(共心)으로 돌아가는 게 공덕이에요. 공심으로,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한마음으로 움죽거리고, 한마음으로 먹고, 한마음으로 살고, 한마음으로 용을 하고, 모두 이러는 것이 그대로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이렇게 살고 이런다면은, 자기를 보기까지 자기가 자유스럽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들어가세요. '그냥 생활 자체가 당신이 보고 듣고 하고 만나고, 식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사랑하고 돈 벌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 당신 주인공 뿌리에서 나오는 거니깐.' 하고 거기다가 다 맡기고 믿고 일임하고, 그리고 꺼내 쓸 때는 거기서 또 꺼내 쓰고 이렇게 하세요. 아까 얘기 들으셨죠? '어, 아드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게 하는 것도 주인공 너밖에 없다.' 할 때 아드님이 나와서 사흘을 지내고 난 뒤에야, 같이 계시다 돌아가셨다고요. 어때요? 이것이 '우연히' 같죠? 우연히도 없고, 이건 우연히라는 건 더더욱 없어요. 내가 그냥 생각하고 사는 게 그대로 법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얘기했죠. 아, 이성계가 꿈을 다섯 가지를 꿨죠. 그리고 꿈을 꿀 때에 너무나 기막힌 꿈을 꿨죠. 색경이 그냥 와르르르 깨지는 거와, 꽃이 그냥 활짝 폈다 지는 거와, 대문에다가 허수아비를 매달아 놓은 꿈과, 까마귀가 까옥까옥하고 짖고 가는 꿈. 이렇게 모두 꿈을 꿨을 때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럴 때에 무학 대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런 얘긴 다 집어치우고 본론만 말하자면 말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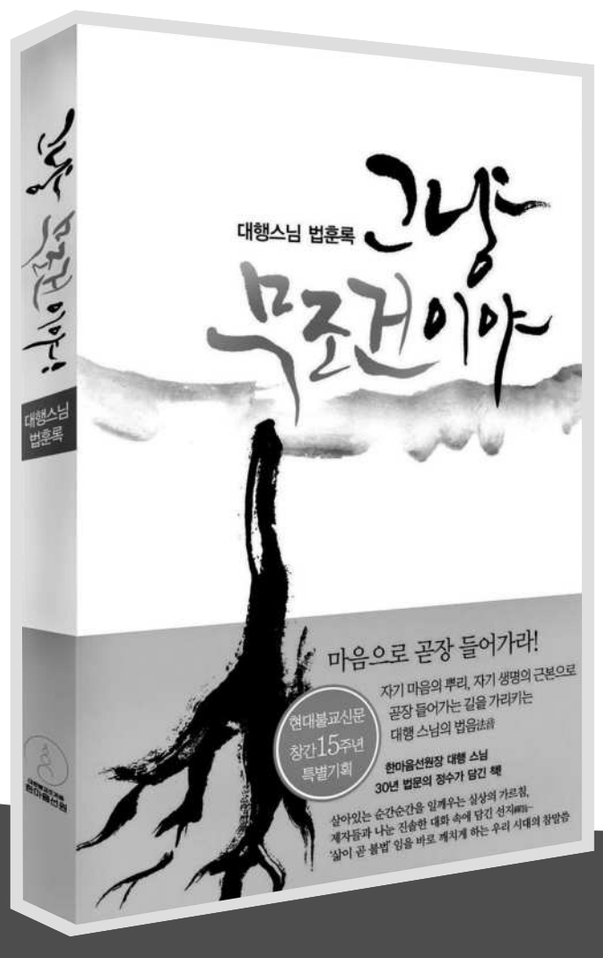
그러니까 무학 대사가 어떻게 꿈 해몽을 해줬는지 아십니까? "당신 생각에 달려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꿈이요, 꿈꾼 것도 꿈이라.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당신 생각하기에 달려 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 하고 나서 잠자코 있으니까 "야, 까옥까옥 짖는 그 까마귀는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이오." 가옥이니까, 음. 하하하. "색경이 와르르르 깨지는 거는 주변의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는 꿈이요, 또 그 꽃이 활짝 피었다가 지는 것은 열매가 맺는 꿈이요, 또 허수아비를 쳐다보는 거는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우러러보는 것이요." 아, 요렇게 딱 말씀을 해 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하하. 그래서 임금 노릇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한생각에 생활이 왔다 갔다 해요. 정말입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맡겨 놓으면은 이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서 모두 사람들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조절을 하게 돼 있죠. 아, 이런 비밀도 내가 얘기를 하니 이거 야단났죠. 하하하.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생중생을 항복을 받는다면은, 조복을 받는다면 보살로 화해서 천백억화신으로서 응신(應身)이 돼서 모든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응해 주시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모든 걸 이 한마음으로서 조복을 받아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이치를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지금.

질문자3(남) 스님! 스님 설법 감사합니다.

큰스님 실천하면서 그걸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이렇게 가야지 언제 이놈의 거를, 이렇다고 하는 걸 배워 가지고 언제 실천하고 터득하겠습니까? 죽고 나서 또 죽고 또 죽고 그러는데. 하하하. 그러니까 미리 아주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합해서 그냥 해 버려야죠.

※위 법문은 1994년 11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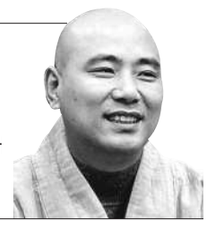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명상으로 '입시 스트레스' 타파



선업 스님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어김없이 찾아 온 수능 시험
많은 노력했을 수험생들에게
"견뎌줘 고맙다" 응원 메시지

입시 마무리, 자기 조절 중요
답 정해져 있으니 바로 '명상'

먹기 · 차 · 움직임 명상 제안한다
각광받는 템플스테이서도 활용
잘 먹고 마시다보면 마음 편안

수능이 끝났다. 이 시험을 위해 수많은 시간을 힘들게 보냈을 모든 이들에게 '수고 많았고, 잘 견뎌주어서 고맙다' 는 말을 해주고 싶다.

이제 각 대학 논술 일정까지 마무리되면 수험생들은 심리적으로 허탈감과 해방감을 함께 느끼게 된다. 게다가 시기적으로 연말이라 자기 조절과 관리를 하는데 애를 먹을 수도 있다.

이 시기, 빛나는 청춘의 황금 같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묻는 이들에게 '답정명(답은 정해져있고 그건 바로 명상)' 이라 답하겠다. 특히 시험 준비하느라 쌓인 스트레스를 날리는 방법으로 명상보다 좋은 것은 없다.

스트레스 해소용 첫 번째 명상법은 역시 '먹기 명상' 이다. 그 동안 그냥 먹었다면 이제부터는 이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존재들의 도움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그 정성을 음미하면서 먹어보자. 그리고 급하게 후루룩 한 술 뜨지 말고 꼭꼭 씹어서 그 맛을 느껴보자. 자세를 바로하고, 먹는 지금에 집중하고 음식을 입안에 넣기 전부터 넣고 나서 씹을 때 까지 알아차리면서 한 술 한 술 뜨다보면 엄마의 손맛이 주는 감동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자꾸만 손이 가는 그 맛에 답답한 가슴이 툭 터지고 이제야 살겠다 싶어질 것이다. 바로 그 때의 심정에 깨어있으면 스트레스는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한다.

스트레스 해소용 두 번째 명상법은 바로 '차 명상' 이다. 명상차를 만드는 재료 준비는 다음과 같다. "욕심은 뿌리를 잘라내고 잘게 다진다. 고장난 생각은 속을 빼낸 후 깨끗이 씻어 말린다. 짜증과 화는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토막을 낸 후에 넓은 마음으로 절여 둔다."

이 재료들을 가지고 차를 끓이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주전자에 실망과 허탈을 한 컵씩 붓고 씨를 잘 빼낸 다음 불을 넣고 푹 끓인다. 미리 준비한 재료에 발원과 정진을 첨가하여 재료를 다 넣고 쓴 맛이 없어지기까지 충분히 달인다. 기쁨과 감사로 잘 젓고 미소를 몇 개 예쁘게 띄운 후 깨끗한 선정의 잔에 부어서 따뜻하게 마신다."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대변하는 잔과 차의 변주인 한 잔의 차는 다리고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한 번의 목 넘김으로도 평화로움과 행복을 가져온다. 천천히 그저 천천히 찻잔을 잡고 감촉을 느끼고 찻잔이 내는 소리를 듣고 차의 색깔과 차의 향기와 차의 맛을 알아차리고 다시 천천히 찻잔을 바로 그 자리로 돌려놓으면 더 이상 스트레스가 붙어있을 공간은 없다.

스트레스 해소용 세 번째 명상법은 '움직임 명상' 이다. 움직임의 대표인 걷기의 경우, 천천히 걷는 것도 좋지만 10분 만이라도 힘차게 걸어보자.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사회심리학을 연구하는 에이미 커디 교수는 단지 2분간 행하는 간단한 자세 즉 '파워 포즈(Power Pose)' 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지수가 감소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정지된 자세도 이 정도인데 자신 있게 걷는 10분의 움직임을 매 순간 알아차리기까지 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되고도 남을 것이다. 가슴을 펴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 쉬며 씩씩하게 걷다 보면 하얗게 질린 스트레스가 손 흔들며 떠날 것이다.

현재 각광받고 있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움직이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결국 스트레스 해소는 명상적으로 얼마나 잘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앎은 행위로 빛을 내니 지금 바로 실천하고 힘차게 내일을 준비하자.



기자칼럼
노덕현 취재부 차장

자살 해법, 불교에 있다

불교계가 자살예방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은 불교계와 자살예방사업을 공동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율 1위를 13년째 기록하고 있다. 하루 평균 34.1명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심각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불교계의 국가 차원에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불교계는 생명살림 운동 활성화와 불교 각 기관의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자살 예방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자살 위험에 빠진 이들이 많다. 10대와 20대,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며, 노인자살률도 OECD 국가 중 최고다. 약 40분마다 1명씩 자살로 삶을 마감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촉탁살인도 등장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주변에 자살의 문제가 얼마나 자주 벌어지는 것인지를 대중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라는 말을 하여도 여전히 실감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각종 수치로 자살이 일어나는지를 알려도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체감하지 못한다면 대중의 관심은 멀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사찰법회마다 모인 사람들끼리 주변에서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우울증,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 등을 서로 토로하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자살 충동 등을 함께 나누면 생각 외로 자살의 위험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알게 된다.

우울증 · 알콜중독 극복을 위한 첫 단계는 대화다. 자살예방도 마찬가지다. 자살자 외에도 일반적으로 20명 중 1명이 1년 중 자살에 대한 생각을 품는다고 한다. 20명이 모이면 그중 1명은 최근에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말이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자살생각이 있는 사람의 80%는 자신의 자살의도를 타인에게 알리려고 하고, 이들 중 50%는 자살생각을 확고하게 표명한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바로 우리 주변에서 자살 위험에 처한 이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자살이란 주제를 때론 무시하고, 때론 두려워했다. 삶과 죽음이란 종교의 근본적인 주제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서로를 보듬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 져야 한다.

이와 함께 불교계 내에서도 자살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해야 한다. 우리는 자살하는 이들이 마음이 약하고 의지가 부족해 자살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살예방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한 이들일수록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고, 이를 시행한다고 한다.

더 치열하게 살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가 좌절에 빠졌을 때 그 좌절감은 더 크고, 자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자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의 좋은 점을 찬양하거나 죽음을 부추기고, 자살의 방법을 일러 준 이는 함께 살 수 없다며 바라이죄를 말했다. 이는 비단 승단이 아니라 모든 불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궁극적으로의 해탈을 말하며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대중의 공동체로서의 해탈을 말한다. 지금 이 사회와 세상이 극락정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손을 잡아야 한다.

社說

불교성전, 현장 목소리 반영을

조계종의 사상 첫 불교성전 편찬이 본격화 되고 있다. 11월 21일 조계종 포교원은 첫 불교성전 편찬을 위한 전문가 연찬회를 열었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다양한 불교성전이 있었고, 특히 동국대 역경원이 펴낸 불교성전은 40년간 약 300부 가량이 보급됐다. 그럼에도 조계종이 종단본 불교성전을 펴내려 하는 이유는 전법 포교의 근간인 성전이 대중화되지 못했다는 인식에서다.

불교성전의 대중화, 요약된 경전을 수지독송하는 신행문화 형성을 위해서 불교성전은 필요하다. 전법 포교, 신행 진작을 위해서는 어떤 불교성전이 필요한지 그 목적을 보면 불교성전의 방향이 나온다.

이런 방향에 맞추기 위해서는 신행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그동안 불교성전이 각광받지 못한 것은 단순히 경전의 번역, 요약에 그쳐서다. 13종에 달하는 다양한 불교성전들이 가정 내 그리고 법당 내 비치용으로 전락하여 신행과 포교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했다.

불교에는 수많은 경전이 있으며, 불자들은 이미 이러한 경전을 공부하고 독경, 사경 등 다양한 수행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경전을 하나로 모은 불교성전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조계종의 종단본 불교성전에 대해 바이블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정관념을 과감히 떨치고,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불교성전이 될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가질 것이다.

시대에 맞는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해석과 풀이, 그리고 편집과 디자인 등이 나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계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익명 기부자의 빛나는 회향

익명의 기부자가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에 200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해 불교계에 감동을 전했다. 조계종이 2016년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설립한 보리가람 농업기술학교 운영에 써달라는 뜻을 담아 기부자는 송금 자명을 '보리가람' 으로 썼다. 때마침 보리가람 농업기술학교는 최근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해 교실과 기숙사 증축, 수업 기자재 확보 등이 필요한 상황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자의 뜻 깊은 기탁에 아름다운동행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기부자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런 정보도 남지 않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기부자의 송금지역이 대전이라는 것이 전부였다. 이에 아름다운동행은 "과거에도 익명의 후원자가 기부를 한 이력은 있지만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불교계에는 이처럼 익명의 기부사례가 종종 알려지곤 한다. 가깝게는 지난해 승려복지를 위해 1000~2000만원을 후원한 익명의 스님과 재가자 소식이 있었다. 2016년 말에는 누군가가 조계종복지재단에 400만원을 후원했다.

이 같은 익명의 보시는 회향의 정신, 그 중에서도 무주상보시와 중생회향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자신이 성취한 공덕을 내 것이라는 관념으로 보지 않고, 중생의 것이라 생각해 아낌없이 내놓는 것이다.

기실 불교계 복지기관을 비롯해 수많은 NGO단체들은 늘 모연에 어려움을 겪는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정진하는 불자들이 육바라밀 중 첫 덕목인 보시를 되새겨 익명의 후원자와 같은 빛나는 회향에 동참하는 일이 늘어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귀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

선조들의 지혜로 탄생한 '무르벤'

참옻들 정태영 대표의 〈무르벤〉개발 이야기

시리고 아픈 무릎, 참옻과 닭발이 만났다

지긋지긋한 몸의 냉기(冷氣)를 잡아라



(주)참옻들 정태영 대표

나이가 들면서 주로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신체 부분이 무릎이다. 주로 서서 집안 일을 많이 하기에 무릎에 무리가 가게 되고 그 결과 시큰거리거나 시리고 아프기 때문이다.
우리의 옛 어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을 했기에 무릎이 더 상했을 것이고 이 때 선조들은 놀라운 지혜를 발휘해 무릎을 보호하는 건강식품을 만들어 먹었다. 바로 참옻과 닭발의 만남이다.
이 시도는 연세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오랜기간 옻을 연구한 ㈜참옻들 정태영 대표와 남편 박기영 씨에 의해 실용화 됐다.

남편과 옻연구 및 개발위해 충북 옥천에 정착

"아내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부친이 예전에 이런 상황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액을 만들어 준 기억이 났습니다. 부친은 국내 최초로 옻전문식당을 운영하셨거든요."

'참옻들' 연구소장이기도 한 박기영 씨는 "이 진액은 아내의 무릎을 낫게 했고 이를 더 많은 분들에게 보급해야 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졌다."며 "그래서 '조선시대 왕에게 옻을 공납했던 충북 옥천에 터를 잡고 본격 연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콜라겐 덩어리인 닭발이 고농축 영양을 제공했고 여기에 옻성분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상승시켜 자신이 나았다고 판단했다. 옻은 위장질환이나 혈액순환, 부인과 질환 등에 효험이 있어 오래 전부터 전통약재로 활용돼 왔다.

전통 끊긴 옻제품 복원 등 옻으로 다양한 식품 개발

물이 맑고 토질이 좋은 옥천은 2005년 옻산업 특구로 지정됐고 정 대표와 남편의 오랜 연구 결과로 '무르벤'이 탄생했다.

무릎시림과 냉기를 잡아라! 농축진액 '무르벤'의 탄생

"80년 이상된 100% 국내산 토종 옻나무와 닭발을 최적의 비율로 결합시켰습니다. 여기에 여러 한방 약재를 첨가함으로 여성들에게 인기 높은 농축 진액 '무르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정 대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은 옻독이 올라 옻건강식품은 못 먹는다고 하시는데 이젠 옻독제거 기술이 발달돼 안정성이 보장됐다."며 "계속 옻을 이용한 다양한 건강식품을 개발해 인기가 높으며 남편과 무독화옻 등 12가지의 특허를 받았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옻제품 원료생산 옻산업특수 지정된 옥천

몸에 냉기가 많은 사람은 대부분 몸이 잘 붓고 목과 어깨가 늘 뻐근하며 푹 자지 못하는 불면증을 앓아 짜증을 자주 낸다. 그래서 질병이 없는데 추위를 심하게 느끼고 손과 발이 찬 분이라면 전통약재를 쓴 이 무르벤에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장수버섯균사체에 의한 옻독제거기술로 옻이 두려운 식물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자원으로 인식됐고 이는 정 대표의 옻제품 개발에도 큰 힘이 되었다.

"지하 200m 암반에서 뽑아 올린 게르마늄 물은 옻 추출물의 품질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일정한 품질유지를 위한 표준매뉴얼도 만들어 품질에 자신이 있습니다."
정 대표는 "남편과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해 만들기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제품이 되고 있어 감사하다"며 "공기 맑고 물좋은 옥천에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니 늘 행복하고 기쁘다"고 밝게 웃었다.



www.sspark24.co.kr
문의)1577-7217

겨울철에 더욱 속 썩이는 기관지
폐 건강이 곧 100세건강
전통韓方비법 영동고로
첨가물을 단 1%도 넣지 않았습니다!



도라지와 120년 이상 천종산삼을 모체로 염기서열 99%일치한 산삼배양근이 함유된 김씨 영동고 골드

김씨 영동고만의 특징
① 4일 이상 가마솥에서 천천히 고는 '전통방식'그대로
② 물, 합성첨가물 없는 도라지 성분 그대로
③ 남녀노소 누구나 섭취할 수 있는 전통방식 재료 그대로

■원료 및 함량 : 배(국산), 도라지(국산), 대추(국산), 은행(국산), 생강(국산), 맥문동(국산), 겨우살이(국산), 수세미(국산), 도라지분말(국산), 둥근마분말(국산), 산삼배양근분말(국산)

문의 ☎ 1577-2298
www.sspark24.com

갱년기 · 항산화 · 기억력 개선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몸으로 느끼는 판토삼명가
식약처 인증 '건강기능식품'



진세노사이드 함량
무려 30mg!

한국인의 체질에는
역시 홍삼과 녹용!(부원료)

문의 ☎ 1577-7217
www.sspark24.co.kr

상상바이오

암 / 당뇨 / 고혈압 / 뇌졸중 등
모든 질병의 90%가 유해산소가 원인!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것은 항산화 수소수!
이제부터 수소수가 당신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화제의 책



임동수 · 김서곤 지음 | 200쪽 | 값 13,500원
상상나무 www.smbooks.com

왜 수소수인가?



수소수, 새로운 '건강법'으로 등장

인체의 에너지 생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산소'. 하지만 사람이 흡입한 산소의 대부분은 물 로 바뀌고 그중 일부분은 '유해산소'로 전환된다.
이렇게 체내에 쌓이는 유해산소는 인체의 노화에 영향을 끼치고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풍부한 수소 함유량을 가진 수소수는 인체 노화 및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자연 항산화제로 이제 수소수로 건강의 변화를 경험해 보자.

수소수, 탁월한 효과 입증

미국 존스홉킨스대 의학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인의 3대 사망원인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을 비롯하여 당뇨, 고혈압, 치매, 염증, 아토피 피부 질환 등 모든 질병의 90%가 바로 유해산소가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수소는 선택적으로 몸 속 활성 산소만을 제거, 노화와 질병의 원인을 해소한다.

늙고 병드는 것은 세포의 손상

「네이처 매디슨」 학술지에 따르면 늙고 병드는 것의 근본 원인은 세포의 손상 때문이며 세포 손상의 원인은 유해산소에 달려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인체는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천연효소 항산화효소(SOD)가 있다. SOD는 20대까지는 왕성하게 생성되지만 35~40세가 되면 더 이상 생성되지 않아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항산화제가 필요하다.

수소는 유해산소만을 선택적으로 제거, 인체 각 기관 및 뇌 세포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항산화제이다. 수소는 비타민 C보다 무려 176배, 코엔자임 Q10보다 865배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인체에는 무해하다.

유해산소만 제거하는 수소수

물을 마시면 혈액과 림프액이 되어 온 몸을 순환 하는데 30초 후면 혈액에 흡수되고, 1분 후에는 뇌, 생식기, 태아에 전달된다. 10분 후엔 피부 조직, 20분 후엔 간, 심장, 신장에 도달하며, 동시에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한다. 물은 모세혈관을 통해 언제 어디든 가기에 수소가 몸 속 유해 산소를 제거할 수 있다.

왜 '물'과 '수소수'인가?

물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모체이며 근원이다. 체내 수분의 70%는 세포 내에, 19%는 조직과 조직 사이, 8%는 혈액에 포함된 형태로 존재한다.
물을 마시면 혈액과 림프액의 '흡수-순환-정화 -배설' 작용으로 산소와 영양이 몸 속에 운반 되고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며 세포를 활성화시켜 면역력과 활력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동시에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한다. 물은 이처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인체 각 부분으로 영양 및 기타 물질을 전달한다.

전국 서점 판매중
문의) 080-606-8000

대한아토피협회 우수 추천 제품
상상바이오

내 몸이 원하는 물 수소수로
바꾸면 정말 달라져요!



특허 6중 티타늄백금 전기분해 시스템
솔고 수소수 발생기만의 수소용존 혁신기술 6중 티타늄백금 전기분해 시스템은 물(H₂O)에서 산소(O₂)와 수소(H₂)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분리하여 수소를 물분자 사이에 강력하게 분산, 용존시키는 특허기술

1 최소 1,000ppb 이상 높은 수소용존 수치
2 수소용존시간이 오래 유지
3 온도변화에도 높은 수소용존량 유지

문의 1577-2298 www.sspark24.com

음성공양으로 하모니 일구는 선재도량



대원사는 부산 영도에 위치한 범어사 말사이다. 1981년 범어사 포교원으로 등록 되었으며 지금 現 주지 담화림 스님이 2014년 8월 부임했다. 이후 2015년 11월 관세음보살을 봉안하고 선재들의 도량이 될 것을 선언했다. 2015년 12월 단원 45명으로 창단을 알린 후 정기 공연 및 연합 무대로 포교에 앞장서고 있으며 어린이 포교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道伴의 향기 부산 영도 대원사 · 대원선재어린이합창단

어린이 포교 원력 불사

2014년 담화림 스님 주지 부임

2015년 어린이합창단 창단

아이들이 어머니 사찰로 이끌어

11월 제3회 합창단 정기공연서

육법공양 의례집 신곡 발표

전국 사찰에 보급 계획

"사찰 의례에 널리 사용되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수월관음도 한 쪽 구석엔 선재동자가 있다. 선재동자는 구법의 길을 나서 53 선지식과 보현보살을 만난 후 아미타정토에 왕생한다. 수월관음도의 한 쪽에 선재동자가 그려져 있는 것처럼 선재들로 가득한 도량이 있다. 그들이 '선재'인 이유는 그들이 불연의 씨앗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그 선재의 이름으로 불연을 넓히고 포교의 전범을 만들어가고 있는 도량의 이름은 부산 영도 대원사다. 그리고 그 도량의 선재들은 대원선재어린이합창단 단원 어린이들이다. 그들은 단순히 선재라는 이름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수월관음도의 선재동자처럼 도량의 곳곳을 채우고 있는 오늘날의 선재들이다. 선재들의 향기 가득한 부산 영도 대원사 대원선재어린합창단의 구법여행이다.

선재들의 합창…음성공양으로 세상 밝혀

11월 24일 부산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는 '육법공양'을 주제로 대원사 대원선재어린이합창단(이하 합창단)의 정기공연 '제3회 선재들의 구법행 2562'가 열렸다. 부처님께 향, 등, 차, 과일, 쌀, 꽃이 차례로 올라가자 합창단은 맑은 음성으로 육법공양의 의미를 담은 노래를 공양했고, 대중들은 합장으로 답했다.

"일체 중생 모든 악업 그 향기로 씻어내어 해탈 열반을 이루게 하소서, 대원으로 심지삼고 자비로 기름 삼아서 반야등불 법계를 환희 비쳐라…"

중생을 향한 선재들의 맑은 기도가 화음에 담겨 성성하게 울려 퍼졌다. 육법공양과 축원까지 장장 40분 동안 쉼 없이 진행된 어린 선재들의 무대였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장엄한 의례로 평가됐다. 처음 발표된 신곡이었고 주지 담화림 스님이 25년 간 꿈꿔온 불사였다.

범어사로 출가한 스님은 개산대재에 처음 참석했을 때 개산조인 의상대사 영정에 다인들이 육법공양을 올리는 모습을 보며 마당에 서있는 합창단을 보았다. 그리고 '합창단의 음악이 함께하면 더욱 환희심이 솟고 더욱 멋진 의례가 될 것'이란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올해 종덕품계를 받은 스님은 회향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공양을 준비했다.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처님과 스승님들 그리고 공양 후원하며 이끌어 주신 시주 시은에 감사하며 공양 올리고자 준비한 음성공양 불사입니다"

스님은 이번에 발표한 육법공양을 의례찬불가라고 설명했다. 그대로 불교의례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단순히 대원사 대원선재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발표용이 아닌 것이다. 한국에 있는 모든 사찰에서 육법공양을 할 때, 헌공물에 맞춘 노래를 각각 부를 수 있어 의례를 더욱 장엄하게 할 수 있다. 음원으로 제작해 녹음까지 마쳐 필요로 하는 모든 사찰에 제공할 계획이다.

"전통의례전승원 원장이신 정오 스님의 포항 천곡사 예경집 헌공 의식을 참고했습니다. 편역하면서 '정법계진언'부터 육법공양 마지막 '보공양진언'으로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축원으로 의례를 모두 담았습니다."

담화림 스님은 무엇보다 불교 의례에 대한 중요도를 높이 평가했다. 스님은 15년 동안 행자를 교육하는 구족계 습의사로 활동했다. 먹고 자고 입는 의식주 기본 행위를 교육하며 여법한 불교 의례에 대해 꾸준히 고민해왔다. 이 모든 고민과 발원이 모여 매년 합창단 발표에서 빛을 발하는 장엄한 기획력을 보여주었다.

대원선재어린이합창단 탄생과 달라진 대원사

합창 무대가 열리기 전 11월 10일 대원사 대원선재어린이합창단 연습실을 찾았다. 영도 봉래산 자락 가파른 언덕에 위치한 대원사는 다닥다닥 붙은 집들과 가게들 사이에 있었다. 어디선가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노래 소리를 따라 찾아간 작은 방에는 30여 명의 아이들이 한창 합창 연습을 하고 있었다. 연습실에 들어서자 신도 한 분이 "여기가 비록 15평도 채 안 되는 작은 연습실이지만 한국불교의 미래인 어린이 불자가 무럭무럭 자라고, 어린이 포교의 산실이 되어가고 있는, 작지만 큰 도량이죠"라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한 소절 한 소절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에 들어온 것은 옆방에 모인 어머니들이었다. 합창단 어린이들의 어머니들이었다. 잠시 후 오전 연습이 끝나자 옆방에 모여 있던 어머니들은 일제히 앞치마를 두르고 공양간으로 향했다. '젊은 엄마'들은 각자가 공양주라는 마음가짐으로 합창단 아이들과 대중들의 점심공양을 준비했다.

"처음에는 앞치마를 매는 것조차 어색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싶었죠."

봉사를 처음 해보는 어머니들은 처음엔 어색했다고 했다. 어머니들 대부분이 절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합창단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들 대부분은 3년 전 합창단이 창단될 때 아이들을 합창단에 보내면서 아이들을 따라왔다가 불교에 귀의하게 됐다. 이제는 모두 조계종 신도로 등록한 어엿한 '불자', 아니 그 이상이다. 그들이 그렇게 '불자'가 되기까지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불연이 컸으며, 각자의 남다른 신행이 있었다. 3년 동안 그들은 절하는 법부터 합장까지 기초적인 습의를 열심히 배웠다. 하지만 그들은 오랜 동안 익숙해져 있는 그 동안의 개인적인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어머니 가운데 문영아(45) 씨는 "처음 보다는 절 생활에 많이 익숙해졌고 맡은 역할을 나름대로 해나가는 제 모습을 보며 기다려준 다른 신도들과 절 대중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선원총림의 납자지도 방법

B5
문화
2018 불교미술 일섭문도전

B6
학술 · 문화재
산청 범학리 석탑 77년만에 제자리

어린이합창단으로 포교 새바람 주역



2015년 창단된 대원선재어린이합창단은 매년 정기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은 2016년 공연 모습.



해금반 연습 모습.



다도반 수업 모습.

'대원선재어린이합창단' B1면에서 계속

"처음엔 일반 음악학원처럼 생각했어요. 아이들을 절에 보내면 끝이라고 생각했죠. 엄마들이 특별히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에 왔는데, 아이들 식사부터 간식 등 소소하게 챙겨야 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다른 신도분들이 자기 일처럼 해 주시더라고요. 같은 불제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생각하고 돌봐주시는 모습을 보았고, 저도 모르는 사이 어느 새 저도 앞치마를 둘렀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니 제 몸도 마음도 부처님 가까이 가 있더라고요."

그들은 기존에 있었던 노보살님들과 스님께 자신들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고 했다. 처음엔 적응도 안 됐고 봉사를 하기엔 자신이 대원사 신도라는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80여 명 어린이 모두가 계를 받았고, 어머니들은 3살 된 아이까지 조계종 신도로 등록할 만큼 불심 깊은 불자들이다.

그래서 요즘 '대원사' 이름 앞에는 'YOUNG(젊음)'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어린이 신도가 어른보다 많다. 3년 만에 벌어진 변화다. 그리고 합창단은 전국의 불교계 어린이 합창단의 모범이 되어가고 있다.

대원사는 몇 년 전만해도 신도의 평균 연령이 60대를 훌쩍 넘는 노보살의 기도처였다. 오랫동안 피란민의 안식처였고 기도처로서 역할을 해왔다. 1981년 범어사 포교원으로 등록됐지만 당시는 작은 천막에 초가집 규모로, 지금의 형태를 갖추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범어사 스님들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하나 둘 요사채와 법당이 늘었고,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은 공양간 및 요사채가 있는 작은 건물과 대웅전과 합창단 연습실, 대원문화원등 총 3건물로 도량을 넓혔다.

현 주지인 담화림 스님은 2014년 8월에 부임했다. 스님은 2015년 11월 관세음보살을 봉안하면서 대원사를 선재들의 도량으로 일구겠다고 서원했다. 스님은 수월관음도의 선재동자가 있듯이 도량에 살아 있는 선재동자를 모시겠다고 서원했고, 그 실천으로 합창단을 조직했다. 신도 중엔 아이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지만 스님은 2015년 12월 자신의 원력을 알리고 1년 만에 45명의 단원을 모집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6년 10월 창단,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극장서 창단 연주회를 개최해 선재불사의 시작을 알렸다.

어린이 포교의 전범이 되다

당시 사찰 내 어린이 합창단은 생소한 포교였다. 어린이 합창단은 규모 있는 사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전유물 정도였다. 아울러 전국 사찰에는 어린이 법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문제를 극복할 방안은 보이지 않는 어린이 포교의 암울한 시기였다.

담화림 스님은 과감하게 투자하기 시작했다. 초창기엔 연습실조차 없어 합창단에게 자신의 방을 연습실로 내어주며 문화원으로 사용하게 했고 자신은 종무소에서 잠을 자고 생활했다. 아이들에겐 화려한 단복을 마련해 입히고 절을 찾아올 때는 법복을 새롭게 선물했다.

스님의 원력불사에 모든 신도들이 동참하기 시작했다. 십시일반 보시하고 어린이를 위한 도량으로 거듭나길 함께 발원했다.

합창단 어린이들의 어머니들은 "스님과 신도들에게 받은 것이 너무 많다"며 "송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철이 신도회장은 "작은 도량이 전국 어린이 포교에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스님의 원력에 고개가 숙여졌다. 전액 사찰에서 후원하고 있다. 활기찬 우리 도량의 변화가 반갑고, 커가는 불사를 바라보는 것이 즐거울 뿐이다"고 말했다.

달라진 포교, 달라진 대원사

합창단 창단으로 '젊은 대원사'

창단 3년, 80여 어린이 수계

매년 '선재들의 구법행' 정기공연

합창단, 어린이포교 전범으로

기타반、해금반、다도반 등 개설

청소년 사찰로 이끄는 계기 마련

선재불사로 신행의 새로운 모델

어머니 '해련합창단'도 창단

"아이들 자신감 얻고 인격형성"

합창단은 처음 창단 발표회를 시작으로 매년 2회 정기 발표회와 연합 합창단 공연 무대 및 각종 무대에 올랐다. 2017년 1월 조직된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가 을숙도문화회관대공연장에서 제1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 '새처럼 날아라 별처럼 빛나라'를 개최했을 때, 제주 약천사의 '리틀붓다어린이합창단', 함양 서암정사 '상림어린이합창단', 부산 관음사 '단이슬어린이합창단'과 함께 참여했다. 어린이 합창단이 처음 연합공연을 가지면서 어린이 합창단이 널리 알려졌고 어린이 포교의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다. 이후 1년 사이 부산 대광명사, 혜원정사, 안국선원 교육관, 대구 동화사 등 어린이 합창단이 창단됐고 어린이 포교에 활기를 더했다.

대원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합창단에 이어 기타반, 해금반, 다도반, 댄스반도 만들어 합창단을 졸업한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열었고 어머니들을 위한 대원 해련(海蓮)합창단도 창단했다. 합창단 아이들은 "무엇보다 절에서 친구를 만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라며 천진불다운 대답을 했다. 친구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즐겁다고 했다.

김채은 학생(태종대중 1)은 "2년 동안 합창을 하고 졸업 후 지금은 기타를 배우고 있다"며 "대원사 오기 전엔 절은 무섭고 딱딱한 곳 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너무 즐거운 곳이다. 친구들과 함께 주말에 만나 악기도 연주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 좋다"고 말했다.

김민서 학생(중리초5)은 "대원사 외에는 절에 가본 적이 없는데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하니 무엇보다 즐겁고 재미있다"고 말했다.

자모들은 주말에 아이들이 핸드폰과 TV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푸는 돌파구가 되고 성격도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고명애(44) 어머니는 "아이들이 처음엔 사람들과 눈도 못 마주치고 쑥스러움이 많았는데 성격도 적극적으로 변하고 관중이 많은 무대에서도 떨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며 "합창단 활동을 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영지(40) 어머니는 "무대에서 자신감을 얻는 것 같다. 해금을 배우면서 지난 해 열린 울산국악경연대회에서 상도 받았다"며 "재능도 찾고 사찰에서 음악을 하며 얻은 지구력과 집중력이 학교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래 가사를 외우니 암기능력도 향상되고 좋은 영향이 많다. 이 모든 기회를 준 대원사 신도와 스님께 감사한다"고 답했다.

담화림 스님은 매년 정기 공연마다 제목을 '선재들의 구법행'이라고 적는다. 살아있는 문수 선재동자를 꿈꾸며 시작한 일이다. 스님은 합창 무대를 단순한 음악대회가 아니라 선재들의 구법여행으로 생각한다. 합창 연습과 봉사활동이 만만치 않지만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들이 깨달음의 노래가 된다는 것이다. 합창은 화음을 맞추는 일이다. 화음의 세계는 높은 음과 낮은 음으로 각자의 파트를 연습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곡으로 완성된다. 화음을 맞추기 위한 일은 서로의 소리를 잘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파트를 완벽하게 이뤄낼 때 화음의 세상은 완성된다. 피아노 반주자부터 지휘자 그리고 합창단 모두가 하나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 '합창'이다. 합창의 의미처럼 대원사는 선재들을 중심으로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부처님 세상이 될 것이다.



범부를 부처로… 독참·청익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㉒ 선원총림의 납자지도 방법(독참(獨參, 入室))과 청익(請益)


방장과 납자의 1:1 개인지도를 독참이라고 한다.

1. 독참(獨參), 입실(入室)

선원총림은 불공이나 기도도량이 아니고 '작불학교(作佛學校)'이다. 종교적 집단 이전에 깨달음을 추구하는 곳이다. 조실과 방장은 교장이고, 상당법어 등 법어는 고준한 작불(作佛) 강의이며, 좌선은 작불 실수(實修)'라고 할 수 있다.

선원총림은 상당법어 등 법문을 통하여 전체적인 지도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납자와 1:1의 개별적인 지도를 한다. 그것을 '독참(獨參)'이라고 한다. 단독으로 참문(參問)한다는 뜻이다. 방장(주지)과 1:1로 독대하여 공부 상태를 지도 점검받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스승의 방에 들어가 지도받는다고 하여 입실(入室)이라고도 하고, 또는 두 단어를 이어서 '입실독참' '입참입실(入參入室)'이라고도 한다.

독참 입실은 정기적 · 의무적인 성격으로 5일에 한 번씩 한다. 독참은 방장과 독대하여 공안이나 화두 참구에 대하여 지도, 점검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대중들은 5일에 한 번씩 독대하여 점검받아야 한다. 요즘으로 말하면 '개별적인 지도 및 점검'이라고 할 수 있다.

입실 독참의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칙수백장청규〉 '주지' 장(章) '입실' 편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입실이란 곧 스승이 학인(수행자)을 감판(勘辦 · 감별, 판단)하는 일이다. 아직 그 이르지 못함을 경책하고, 허항(虛亢 · 건방진 것)함을 쥐어박고, 그 편중(偏重 · 치우침)됨을 쳐버린다. 그것은 마치 용광로에서 금을 녹일 적에 연홍(鉛汞 · 납과 수은. 즉 雜銀)이 남아 있지 않게 하는 것과 같으며, 장인이 구슬을 다룰 때 무부(碔砆 · 옥과 비슷하나 옥은 아닌 돌)가 모두 제거되는 것과 같다. 처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행했으므로 옛적에 납자들은 항상 작은 향을 소지하고 있다가(입실 · 독참 시에는 향을 사른다) 북이 세 번 울리면 곧 달려가서 입실했다. 지금 3일과 8일에 입실하는 것은 옛 일[古事, 제도]을 잊지 않기 위함이다."

정리하면 독참은 ①수행자의 공부 상태를 점검하고, ②허황됨과 치우침(非중도) 등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③가짜를 걸러 낸다. 이상이 대략 독참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청대 후기에 편찬(1823년)된 〈백장청규증의기(百丈淸規證義記)〉 5권 '입실청익' 편에는 입실(독참)의 의의와 목적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입실할 때 수행자는 반드시 진실하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야 하고, 스승은 반드시 노파심으로 지도 점검해 주어야만 비로소 입실청익의 목적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만약 수행자로서 참학(參學 · 묻고 배우는 것)하는 것이 진실하지 못하고, 또 스승도 도안이 밝지 못하면, 비록 모양에 따라 그대로 고양이를 그린다 해도, 실제로는 옛것을 따르는 데 불과할 뿐일 것이다. 요즘 제방 선원 가운데 진정으로 수행하는 총림 한 두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실이 드물게 시행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안목 있는 스승이 제대로 점검해 주지 못하고, 또 수행자도 진실하게 묻지 않는다면 그 독참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독참은 모양(그림 본)에 의거하여 고양이를 그리는 것과 같이 형식적인 데 불과하다.

그런데 인용문 가운데 "요즘 제방 선원에는 진정으로 수행하는 총림 한 두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실이 드물게 시행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는 말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이미 청말에도 독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납자를 점검할 능력을 가진 방장, 안목과 지견을 갖춘 방장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조선시대, 근현대 자료에서는 독참을 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역시 수행자의 공부 상태를 점검, 감파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가진 선승이 없기 때문이다.

독참은 수행자 개개인이 참구하고 있는 공안(화두)에 대하여, 방장이나 조실이 제대로 참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당사자는 나름대로는 잘 참구하고 있다고 해도 스승의 눈으로 볼 때는 사견(邪見)에 빠져 있는 경우, 사량 분별심으로 참구하고 있는 경우, 도가(道家)의 신심단련법에 빠져 있는 경우 등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백장선사가 〈백장청규〉를 제정하면서 좌선은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입실(독참)과 청익은 반드시 하도록 규정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장로종색의 〈선원청규〉(1103년) 2권 입실(독참) 편을 참고해 본다면, 당 · 북송시대에는 2일에 한 번 독참을 했다. 그런데 남송시대(1264년)에 편찬된 〈입중수지(入衆須知)〉에는 "입실은 3일과 8일에 하는데, 이것은 총림의 정해진 규칙이다. 때론 시절에 구애받지 않기도 한다(入室. 三八入室, 叢林定則, 或不拘時節)."고 하여, 5일에 한 번씩, 즉 매달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 이렇게 여섯 번 했고, 이것은 총림의 정해진 제도였다. 1274년에 편찬된 〈총림교정청규(함순청규)〉 '입실' 편의 내용도 일시(日時) 등에 대해서는 거의 같다.

2. 독참 입실의 형식과 절차

독참이 있는 날에는 하루 전이나 몇 시간 전에 고지(告知)한다. 입실이 있음을 알리는 패(牌)를 법당과 승당, 중료(衆寮 · 대중방, 큰방) 등 건물 벽에 내다 건다. 그것을 입실패(入室牌)라고 한다.

입실할 시간이 임박해지면 납자들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다. 주지(방장)로부터 참구 상태에 대하여 점검을 받는 것이므로 긴장할 수밖에 없다. 좀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마치 호랑이 굴속으로 들어가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독참 시간이 되면 먼저 북을 세 번 친다. 그러면 대중들은 모두 도착순으로 방장 외실(外室)에서 대기한다(但聞三下鼓鳴. 卽趨入室. 〈칙수백장청규〉 2권 '입실' 편). 자기 차례가 되어 방장실로

독참… 방장 1:1 개인지도
수행자 공부 상태 점검

청익… 의문점 개별 문의
'개인' 살핀 합리적 제도

들어가면 먼저 방장화상을 향하여 오체투지의 3배를 해야 한다. 방장은 의자(즉 禪椅)에 앉아서 참선자를 직시한다. 이어 문답이 시작되는데, 먼저 납자가 자기의 소견(所見)이나 의문점을 피력하면 방장화상이 질문하는 형식이다.

장로종색의 〈선원청규〉 '입실' 편에는 문답하는 시간과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따라서 문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길어야 10분 이내이다.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거나 세속적인 것을 물어서도 안 된다.

대체로 방장은 수행승을 향하여 냉엄하게 질타한다. 수행자는 나름대로 상당히 준비했을 터이지만 무용지물이다. 독참이 끝나면 참선자는 거의 지옥을 다녀온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렇게 단련시키지 않고는 재목을 만들 수 없다. 독참이 끝나면 참선자는 승당으로 돌아와서 다시 참구한다.

당송시대 방장들은 3~4번만 문답해도 공부 상태를 100% 감파했다. 금(金 · 진짜)인지, 수은(水銀 · 汞. 가짜)인지, 납(鉛 · 가짜)인지를 감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고 있었고, 병통(문제점)에 대하여 즉시 처방전을 내릴 수 있는 투시력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 못하면 수행자를 지도 · 점검할 수가 없다.

방장의 처방전은 파주(把住 · 혹은 把定)와 방행(放行) 두 가지이다. 파주는 현재 납자가 잘못 참구할 경우 질타, 지도하는 것을 말하고, 방행은 잘 참구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놔두는 것을 말한다. 잘 참구하고 있으면 격려해 주고 잘못 참구하면 호되게 질타한다.

참선자의 수행 상태는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독참 시스템을 둔 것인데, 단체 수업에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별적인 점검 시스템을 둔 것이 독참이다.

임제 선사(臨濟 · ?~867)의 처방전은 주로 '할(喝)'이었고, 덕산 화상(782~865)의 처방전은 주로 '방'(棒 · 몽둥이)이었다. '덕산방, 임제할'은 유명하고 한데, 그렇다고 천편일률적인 '방'이나 '할'이 아니다. 번뇌 망상과 분별심을 질타하는 '방할'도 있고, 잘 참구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방할'도 있다. 참선자로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의미의 '방'이고 '할'인지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이다.

입실 독참(개인지도)은 매우 체계적이고도 과학적인 납자 지도 방법이었다. 그로 인하여 당송시대에는 많은 훌륭한 선승들이 배출되었다. 당 · 북송시대 선불교가 중국의 전통 종교인 도교와 자웅을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것도, 중국불교를 석권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교육 시스템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선원에는 독참 시스템이 없다. 독참을 하지 않은 지 오래다. 적어도 근대 150년 동안에는 행해진 적이 없고, 조선시대에도 시행되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독참 시스템이 없으므로 납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참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선원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화두를 준 뒤에는 방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일본 임제종이나 조동종은 여전히 독참을 잘 지켜 오고 있다.

3. 청익(請益)의 형식과 절차

'청익(請益)'이란 '보탬[益]을 청하다'는 뜻으로 ①재삼 가르침을 청하다는 뜻이다. '더 자세하게 가르침을 바라는 것'으로, 평소, 또는 법문을 듣고 나서 미진(未盡)한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묻는 것이 청익이다(請益者, 已受敎而再問未盡之蘊也). 대학에서 정규 강의가 끝난 후 별도로 교수실로 찾아가서 묻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청익 역시 설법, 독참 등과 함께 총림의 납자 지도시스템 가운데 하나이다. 다만 독참과 같이 정기적 ·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수행자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청익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칙수백장청규〉 2권 '대중' 장(章) '청익' 편에는 "무릇 청익을 원하는 자는 먼저 시자를 통하여 주지화상에게 아뢰게 한다. … 청익 시에는 공손하고 엄숙하게 가르침을 살펴 듣는다. 마치면 향을 사르고 9배한다." 〈선림비용청규〉에 있는 청익 내용도 이와 거의 같다.

방장화상에게 묻는 것은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대중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질문하기란 쉽지 않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도 다른 이들에게는 별 것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리석은 질문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각각의 공부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대화, 개인 면담(청익)을 통하여 지도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청익(請益) 제도는 백장회해(720~814)의 〈고(古)백장청규〉(양억, 〈선문규식〉)에서도 매우 중요시하여 명문화했다. 이것을 본다면 백장총림 때부터 제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익은 선종 사원 이전에 중국 고대부터 있었다. 〈논어〉에 보면 공자와 제자 자로(子路) 사이에 있었던 청익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도 청익은 보충 설명이나 추가 질문을 가리킨다.

어느 날 자로(子路)가 스승 공자에게 여쭈었다. "어떻게 해야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솔선수범하고 노력해야 한다." 자로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청했다[請益]. 공자가 말했다. "게으르지 말라."(〈논어〉 子路篇. "子路問政. 子曰. 先之勞之. 請益. 曰, 無倦.)

참으로 훌륭한 말씀이다. 학자든 수행자든 정치인이든 게으름이나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 사람의 생명은 거기서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게으르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노력하는 자만이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

고타마 붓다도 마지막 유언이 "게으름 피우 말고 열심히 정진 노력하여라"(팔리본 〈대반열반경〉)였다. '열심히 노력하라' 이것은 종교와 인류를 초월하여 불변의 진리이다.

수행자나 학자는 욕심을 버리고 부단히 탐구, 사색하고 노력해야 한다. 편안하게 살아도 죽고 고단하게 살아도 죽는다는 것 역시 불변의 진리이다. 스스로를 채근하여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하는 자만이 불사(不死)의 경지를 체득할 수 있고, 영원(永遠)과 동행할 수 있다.

〈민족사 대표〉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서울시 종로구돈의동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 기 도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 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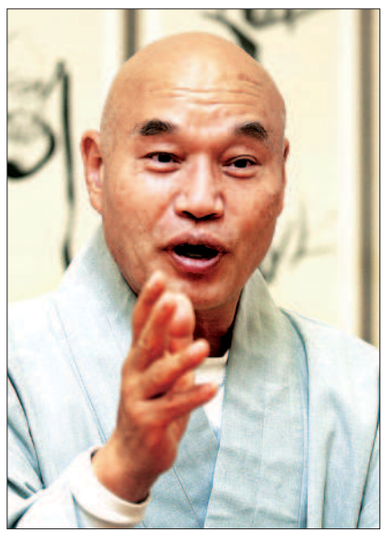
대강백 무비 스님이 우리말로 풀고 강설한 '법성게'



무비 스님이 풀어 쓴 김시습의 법성게 선해

설잠 스님 찬, 무비스님 강설
담앤북스 펴냄
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210자에 화엄 요체 드러낸 법성게 선과 화엄 회통시켜 선리로 해석

해동화엄의 초조로 일컬어지는 의상 스님이 〈화엄경〉의 핵심 사상을 간단명료하게 간추려 210글자로 표현한 것이 법성게(法性偈)이다. '법성원융무이상(法性圓融無二相)' 에서 시작해 '구래부동명위불(舊來不動名爲佛)' 로 끝나는 7언(言) 30구(句)의 게송으로 법계연기사상(法界緣起思想)의 요체를 서술했다.

이 30구의 게송 210자에 그림을 더해 보충한 것이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 이다. 한마디로, 의상 스님이 210개의 글자와 여러 개의 네모난 그림을 그려서 〈화엄경〉에서 밝힌 법계연기사상을 서술한 그림 시(圖詩)를 말한다. 화엄일승법계도는 법계도인(法界圖印)과 법성게(法性偈)로 구성돼 있는데, 의상 스님은 화엄사상을 하나의 도인(圖印)과 7언 30구 210자의 게송으로 드러낸다. 이를 깨달음의 경지에 나타난 우주 전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법계도(法界圖)' 라 하고, 바다에 삼라만상이 도장을 찍은 듯이 다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해인도(海印圖)' 라고도 한다.

이 '화엄일승법계도' 를 매월당 김시습(설잠 스님)이 주해를 내고 서문을 써서 '법계도' 의 사상을 설명했다. 그것이 〈화엄일승법계도주(華嚴一乘法戒圖註)〉이다. 조선시대의 천재 학자이자 생육신의 한 명인 김시습은 세조의 왕위 찬탈 이후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됐는데, 법호가 '설잠(雪岑)' 이다.

김시습은 의상 스님의 〈화엄일승법계도〉를 두고 후대 사람들이 표면적인 교리해석에 치우치자 "동토의 의상법사가 처음 이 그림을 만든 것은 삼세간과 십법계의 장엄하고 다함이 없는 뜻을 나타내어 몽매한 사람을 인도한 것이다. 전문의 구학이 거듭 부연하고 유포하여 변기와 녹초가 세간에 두루 가득하게 되었으니, 왕자로 탄생하였으나 이미 서인이 된 것이다."라고 탄식하면서, 기존의 교학적 해석과 달리 선사(禪師)의 안목으로 선리(禪理)에 맞게 다시 해석하였다. 법계도 30구의 구마다 주(註)를 달았으며, 〈증도가〉 〈벽암록〉 등 선미(禪美)가 풍기는 선시(禪詩)로 착어했다. 그러나 선적 표현 가운데서도 경전의 요체를 잘 파악하여 선의 어록을 구사하면서 '법계도' 의 참뜻을 밝힌다.

이 〈화엄일승법계도주〉를 무비 스님이 우리말로 풀고 강설했다. 〈한국불교전서(韓國佛敎全書)〉에 수록된 설잠 스님의 〈화엄일승법계도주〉를 얻어 번역하고 탐색하면서 강설을 써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이 책을 내게 되었다.

무비 스님〈사진 위〉은 〈법성게〉의 게송 가운데 '능입해인삼매중' 에 대한 기존의 오류를 바로 잡으며 올바르게 해설했다. '능입해인삼매중(能入海印三昧中) 번출여의부사의(繁出如意不思議)' 로 이어져서 '능히 해인삼매 가운데 들어가서, 마음대로 부사의한 경계를 무한히 만들어 낸다' 로 풀이하면서, "능입(能入)은 능인(能人)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많다. 언제부터인가 한 번 잘못 표기하게 되니 그것이 그렇게나 고쳐지지 않고 세상에 파다하게 퍼져 나갔다. 다음 구절인 번출(繁出)이라는 말과 서로 대칭을 이루는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말"이라고 설명을 덧붙이며, 〈법성게〉의 게송 구절구절에 대해 자세하고 세밀하게 밝힌다. 조선시대의 설잠 스님이 주해를 내고 선(禪)과 화엄(華嚴)을 원융(圓融) · 회통(會通)시켜 선리로 해석한 법성게를, 이 시대의 대강백 무비 스님이 우리말로 풀고 강설해 이해를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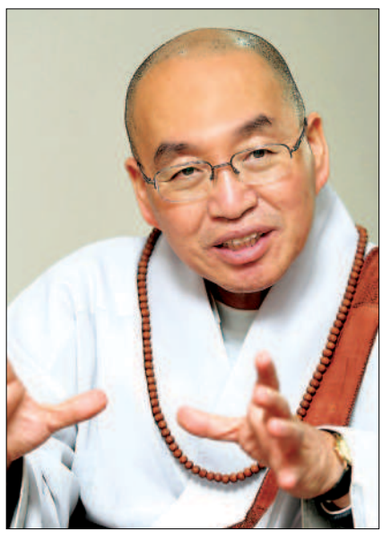
▲저자 **무비 스님**은?
1958년 출가해 덕흥사, 불국사, 범어사를 거쳐 1964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동국역경연수원에서 수학했다. 1977년 탄허 스님에게 〈화엄경〉을 수학하고 전법, 이후 통도사 강주, 범어사 강주,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동국역경원장,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부산 문수선원서 200여 스님과 300여 재가 신도들에게 〈화엄경〉을 강의중이다. 또한 다음 카페 '염화실' (http://cafe.daum.net/yumhwasil)을 통해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김으로써 이 땅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게 한다' 는 인불사상(人佛思想)을 펼치고 있다. 저서로는 〈대방광불화엄경 강설〉(전 81권) 〈신 금강경 강의〉 〈직지 강설〉(전 2권) 〈법화경 강의〉(전 2권) 〈신심명 강의〉 〈임제록 강설〉 등 다수가 있다.

"북한 사람들 마음이 남한으로 기울면 평화통일 가능"



스님, 왜 통일을 해야 하나요

법륜 스님 지음
정토출판
1만 2천원



평화 전문가들, 탈북민 등과 나눈 기록 저자, "도약 원한다면 통일밖에 없다"

법륜 스님〈사진 오른쪽〉은 즉문즉설로 잘 알려진 유튜브 스타이자, 행복을 전파하고 다니는 행복전도사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평화운동가, 통일운동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오랜 시간을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일에 매진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시기 한국 정부가 평화와 교류, 통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일 때도 스님은 끊임없이 평화와 통일을 외쳐왔다. 1998년 북한에 대기근이 발생했을 때, 주변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멈추지 않았고 탈북자 지원에도 앞장섰다. 또한 화해와 평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를 만나고 관계자들을 설득해왔다. 이 책은 그러한 노력과 시간의 산물이며, 직접적으로는 탈북민, 그리고 스님이 조직한 통일의병을 대상으로 나눈 대화의 기록이다.

올해 우리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 분단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변화를 목격하였다. 훗날 역사는 올해의 사건들을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기록할지도 모른다. 남북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만나는 장면이나 은둔의 북한 최고 지도자가 최초로 남한 땅을 밟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격과 흥분을 안겨주었다. 이제 드디어 길고 긴 휴전이 끝나고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막연하지만 언젠가는 통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과 기대를 가슴에 품게 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걱정과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과는 이미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닐까. 한 핏줄, 한 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체제도 다르고 국민정서도 다르고 경제적 격차도 이렇게 큰데 어디까지 교류할 수 있을까, 괜히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아닐까. 이쯤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새삼 궁금해진다.

이 책에서 스님은 말한다. 통일 없이 대한민국의 업그레이드는 없다고. 우리나라는 분단 상태에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쭉 성장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정책만 바꾸면, 기업만 잘하면, 이 시기만 지나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모방 압축성장은 이미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 경제는 장기침체에 들어와 있으며 사회와 개인 모두 전반적 무기력에 빠져있다.

여기에 지난 수년간 이어진 안보불안과 전쟁위협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를 갈등과 공포로 몰아넣어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발전은커녕 내일의 안녕을 말할 수도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했다.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얻고 답답하게 억눌린 우리의 기상을 살리기 위한 선택지는 평화, 그리고 통일 밖에는 없다. 무턱대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을 외치는 게 아니다. 책에는 왜 통일이 우리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북한과 어떻게 함께 가야 할지 정치 · 경제 · 국제관계 · 사회 · 역사 · 문화 측면에서 충실히 설명돼 있다. 현재 국제관계에 대한 분석이나 다른 나라의 외교사례를 읽어보면 막연히 통일하면 손해 아냐, 라고 했던 생각이 얼마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것이었는지 알게 된다. 법륜 스님은 책 속에서 말한다. "남한 중심의 평화 통일 방법은 하나입니다.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남한과 합치자고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남한 중심이 되고 평화적 방식으로 가능하려면 북한 주민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북한 사람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기울어져야 하죠. 북한이 남한과 합치자고 스스로 선택하면 평화적인 통일은 가능해요." 김주일 기자

▲저자 **법륜 스님**은?
메마른 세상에 평화와 행복 메시지를 전하는 수행자이자 제 3세계를 지원하는 활동가이며 인류의 문명전환을 실현해가는 사상가다. 특히 현대인들의 불안과 소외감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쉽고 명쾌한 즉문즉설(卽問卽說)로 사람들에게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전한다. 또 개인의 행복과 사회문제는 결코 둘로 나누어 볼 수 없다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환경 · 구호 · 평화통일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아시아의 노벨평화상이라 불리는 라몬 막사이사이상(국제평화와 이해 부문), 2007년 민족화해상, 2011년 포스코 청암상(봉사 부문)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스님의 주례사〉 〈엄마 수업〉 〈방황해도 괜찮아〉 〈법륜 스님의 행복〉 〈야단법석〉 등 다수가 있다.



청소년을 위한 최초의 해설!
고등학생을 위한 금강경
고등학교 교과서에 『금강경』 수록!
현직 고교 교장선생님이 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그 핵심을 간결하게 해설, 정리하였다.
김형중 지음/신국판/184쪽/값 11,000원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 논쟁
깨달음에도 종류가 있는가?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역과 학파와 종파를 아우르는, 깨달음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고찰!
불교학연구회 엮음/신국판/452쪽/값 25,000원

생활 속의 명상 안내서!
명상 매뉴얼
명상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과 함께, 누구라도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 수록!
명상도 과학적, 체계적 훈련이 필요하다.
배철진 지음/국판 양장/296쪽/값 15,000원/자유문고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한국 '불교미술' 잇는 불모들 향연

제3회 불교미술 일섭문도전 '2018 불모들의 향연'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2월 2일부터 9일까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한국 불교미술을 망라하는 전시가 열린다. 한국 근현대불교사의 대표 불모 일섭 스님(1900~1975)의 계보를 잇는 (사)불교미술일섭문도회(이사장 김성규)가 12월 2일부터 9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제3회 불교미술 일섭문도전 2018 불모들의 향연'을 개최한다.(개막식 12월 1일 오후 3시 30분)

문도간의 유대증진과 불교미술의 정통성 확립으로, 불교미술의 저변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일섭 스님의 계보를 잇는 문도 82명이 참여해 회화, 조각, 단청, 공예, 종이그림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82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일섭 스님의 '석가모니후불탱화(280×150cm 면본 안료채색)'를 비롯한 석정 스님의 '아미타후불탱(360×210cm)' 등 전통적인 불화와 김성규의 '단청문양(63×216cm×12폭 병풍)'을 비롯한 단청 작품, 손연칠의 '불(70×70cm 동 바탕에 유약)'을 비롯한 현대적 기법의 회화, 한봉석의 '목조 당사자상(700×300×900cm 소나무 · 은행나무)'을 비롯한 공예, 오세종의 '미륵반가상(230×170×450cm 청동, 수은, 순금)'을 비롯한 불보살상, 이문희의 '금용일섭불모 진영(85×122.5cm 비단, 수간채색)'을 비롯한 진영 등 불교미술 전반에 걸친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일섭문도회의 정기전은 '문도전'이라는 특성을 살려 전통예술의 각 분야에서 수준 높은 역량을 보유한 무형문화재, 기술자 등 장인에서부터 이제 입문한 동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선보인다.

불교미술 일섭문도회는 조선후기 대표 불화의 화풍이었던 유성화풍의 맥을 계승한 일섭 스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불화와 단청, 조각, 공예, 고건축 등 우리나라 불교미술 전반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역 작가 2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 중 18명의 회원이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됐고, 많은 회원들이 문화재 수리기능자 · 기술자로 활동하고 있다. 일섭문도회는 2010년 마곡사에 최초로 불모비림을 조성하여 앞선 불모들의 행적비를 세우고, 전시회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으며, 불모수첩 발행으로 불모의 계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안으로는 문도들의 실력 향상과 밖으로는 불교미술의 저변을 넓혀왔다.



강희라 作, '원효 진영 모사'(사진 왼쪽)와 오세종 作, '미륵반가사유상'.


박명옥 作, '빛으로 나투사' 54×54cm 한지, 옻칠한지, 머메이드지, 판화지, led조명

유성, 금호, 보응으로 이어진 계보를 이어 일제강점기부터 현대까지 활동했던 일섭 스님은 15세에 전남 송광사에서 출가해 19세에 한봉린 스님을 만나 불화를 처음 그렸고, 23세에 전국 사찰을 순례하며 각지 불모들과 교류했다. 1970년 불교미술 최초로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으로 지정됐다. 이후 일생동안 해인사 사천왕탱화, 조계사 후불탱화, 송광사 시왕탱화, 옥천사 팔상탱화, 백양사 사천왕 소조상 등 남한의 제주에서 북한의 함흥 · 연변까지 전국의 주요 사찰에 불화와 단청, 불상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사)불교미술일섭문도회 김성규 이사장은 "불교미술은 우리 전통미술공예의 근간으로 단청, 불화, 조각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우리 전통문화의 보고이다. 그간 우리 일섭문도회 300여 명의 회원들은 금용 일섭 대불모께서 후학들에게 전해주신 불교미술의 진수를 이어가기 위해 전국 각지 불교미술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전시회가 불교미술과 전통문화 창달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사)불교미술일섭문도회는 2000년에 창립됐다. 2012년 서울미술관에서 첫 번째 정기회원전을 개최했으며, 2015년에 두 번째 정기회원전을 개최했다. (02)580-1300.


봉정사 괘불탱화.

1710년 産 봉정사 괘불탱화

통도사성보박물관 제36회 괘불탱 특별전
봉정사 괘불탱화전 2019년 4월 7일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은 2019년 4월 7일까지 제36회 괘불탱 특별전으로 경북 안동 봉정사 괘불탱화(보물 제1642호)를 전시한다.

대형 크기의 괘불은 사찰에서 야외법회 때 모시는 의식용 불화로 평소에는 보기 힘든 불화이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매년 2회 괘불탱 특별전을 개최해왔으며, 2016년부터는 매년 개산대재에 맞춰 괘불탱 특별전을 개최해 왔다.

이번에 전시되는 봉정사 괘불탱화는 세로 823cm, 가로 647cm로 35~39cm 폭의 삼베 16폭을 이어 바탕을 마련했다. 화면 하단에 쓰인 화기에 의하면 강희49년(1710)에 조성한 '영산회' 괘불탱화로 수화승 도문(道文)을 중심으로 설잠, 계순, 해영, 종열, 성은 등 총 7명에 의해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화면 중앙의 석가모니불은 붉은 화염무늬와 녹색 모란문이 시문된 주형(舟形)광배를 배경으로 시립했으며, 오른손은 가슴 앞에 들어 보이고, 왼손은 배 앞에 들었다.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 우 팔대보살을 배치했는데, 1열에는 연꽃을 든 보살이 3위, 여의를 든 1위의 보살이 있고, 2열에는 왼손으로 황금색 정병을 들고 보관에 아미타불이 도해된 관음보살과 오른손으로는 관인을 들고 보관에 정병이 있는 세지보살이 있다. 3열의 보살은 두 손을 합장한 동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석가모니불의 광배 위쪽은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를 비롯한 제자와, 두건을 쓴 나한이 배치되었다. 백색, 먹, 녹, 적색을 적절하게 섞어 안면을 개성 있게 구분했으며, 곱슬머리, 부릅뜬 눈을 표현했다. 특히 가섭존자는 주홍빛에 가까운 얼굴에 백선으로 털과 수염을 그렸으며, 먹과 담채를 섞어 노승의 주름과 피부를 표현해 연륜을 나타냈다. '봉정사 괘불탱화'는 양식적으로 17세기 괘불에서 보이는 고식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동시에 18세기 전반 경북지역 화승들과의 공통되는 특징을 표현한 작품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055)382-1001.

박재완 기자

불화로 짓는 따뜻한 공덕

제1회 장애아동을 위한 불교회화 전시회
불일미술관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선혜불교미술연구소(소장 현우)는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법련사(주지 진경) 불일미술관 제2관에서 현우 스님의 '제1회 장애아동을 위한 불교회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부처님의 가피에 보답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따뜻한 정과 사랑을 전하기 위한 이번 전시에는 현우 스님의 '관음도' 등 그 동안 현우 스님의 '마음으로 그린' 불화들과 오방색의 훈훈한 색감을 장애아동들과 나누기 위해 제자들이 준비한 다양한 소품이 함께 전시된다.

현우 스님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업연으로 장애를 안고 있는 모든 장애아동들이 다음 생에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발원하고, 그 마음이 세세생생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회를 마련했다.

불화는 단순히 테크닉이 아닌 마음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강조하는 현우 스님은 후학들을 위한 불화지도와 불교회화를 통해 문화포교를 실천하고 있다. '승가원장애아동센터'에 정기적인 봉사활동으로 자각각타의 정신과 '참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온 현우 스님은 이번 전시회의 작품판매수익금을 '승가원장애아동센터'에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02)733-5322.

박재완 기자


현우 스님 作, '관음도'.

한국사회와 불교 그 미래를 조망하다

정념 스님 | 월정사 주지 | 과 한상권 | KBS 아나운서 | 의 대담



정념, 한상권 지음
국판 344쪽 ‖ 16,500원



"이대로 가면 한국불교는 10년 내에 제3의 종교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의 한국불교! 위기의 한국사회!

통찰력과 지혜를 겸비한 퇴우 정념 스님과 한상권 KBS 아나운서의 대담집, 정념 스님은 이 책에서 불교와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념 스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행승으로서 한국불교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미래를 조망하는 한편, 한국사회의 전반에 대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사회와 한국불교가 처절한 위기의식 속에서 거듭나야 한다는 쓴소리도 주저하지 않는다.

도서출판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EMAIL minjoksabook@naver.com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입니다. 불서의 명가 민족사 도서를 법보시 하실 분은 문의 바랍니다.

국보 '산청 범학리 석탑' 77년만에 제자리

국립진주박물관, 11월 30일 환수 기념 전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보 제105호 '산청 범학리 삼층석탑'이 고향을 떠난지 77년 만에 돌아온다.

국립진주박물관(관장 최영창)은 "산청 범학리 삼층석탑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박물관에서도 전시를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산청 범학리 삼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인 9세기 무렵에 조성된 후 조선 시대까지 사찰과 함께 경호강이 바라보이는 둔철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사찰이 없어지고, 석탑은 허물어져 있던 것을 1941년 일본인 골동품상이 매수해 산청을 떠나게 되었다.

석탑은 대구에 있던 공장 공터에 해체·보관돼 있었는데,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실태조사를 통해 1942년 총독부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이후 산청 범학리 삼층석탑은 1946년 5월 27일 미군 공병대의 도움을 받아 경복궁 안에 세워졌으나, 1994년 경복궁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다시 해체됐다. 그리고 23년간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왔다.

국립진주박물관은 지역을 대표하는 석조문화재가 수장고 안에 보관된 것에 진주 이관을 국립중앙박물관 측에 요청했고, 지난해 2월 이전·전시를 결정했다.

석탑 이관·전시에 앞서 국립진주박물관은 석탑의 역사와 미술사 등 다각적 종합 연구를 실시했다.

전형적인 통일신라 양식을 계승한 산청 범학리 삼층석탑은 경남지역 석탑으로는 유일하게 탑 외면에 부조상이 새겨져 있다. 석탑 상층 기단에는 8구의 신장상, 1층 탑신에는 4구의 보살상이 정교한 수법으로 새겨져 있어, 당시 매우 정성들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장상과 보살상의 조합은 독특한 사례로 통일신라 후기 석탑 양식 연구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등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며, 당시 뛰어난 조각기술과 경남지역 불교미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걸작이다.

석탑의 암질에 대한 분석도 실시했으며, 분석 결과 '섬장암'으로 밝혀졌다. 섬장암은 국내에 지질 분포가 적어 석탑 부재로서의 사용은 희귀하다. 그러나 산청군 범학리 일대 지질과 산지 조사에서 섬장암이 넓게 분포 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석탑 부재와의 동질성 분석에서도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일본인 골동품상에 의해 매수돼 1914년 고향을 떠났다가 77년만에 제자리를 찾게 되는 산청 범학리 삼층석탑.

1914년 日골동품상 매수해
조선총독부 박물관 옮겨져
현재까지 國博 수장고 보관

진주博 제기 이관 요청 수용
현재 상설전시관 공사 진행
암질 연구 통해 섬장암 확인
하대석 복원 같은 암석 사용

이런 연구는 석탑 복원에 활용됐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석탑을 옮겨가는 과정에서 석탑 부재중 하대석 이하 일부분이 결실됐고, 동일 암석을 부재로 사용해 복원을 완료했다.

국립진주박물관은 "산청군 정곡리에 폐 채석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석한 결과 석탑 부재와 동일한 섬장암 광산임이 밝혀졌다. 산청군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복원 부재를 입수했다"면서 "복원 재료를 원 석탑 부재와 동일한 산지의 돌로 복원한 사례는 국내에서 극히 드물다. 기존의 석탑 복원사업보다 진일보한 복원 기준을 제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립진주박물관은 11월 5일부터 석탑 재건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시작했으며, 상설전시실 개편 공사가 완료되는 11월 30일부터 복원된 석탑을 관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박물관은 석탑 환수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며, 내년에는 석탑 연구 결과를 종합한 학술조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고려 천수관음보살도 보물 된다

문화재청 22일 지정예고… 조선 목판·경전도

"화려·섬세한 기법" 평가
조선 기사계첩 국보 승격



고려 시대 조성된 불화인 '고려 천수관음보살도'〈사진〉가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고려 천수관음보살도'를 포함한 고려 시대 불화, 조선 시대 목판과 경전 등 3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1월 22일 밝혔다. 또한, 18세기 초 대표적 궁중회화로 꼽혀 온 보물 제929호 '기사계첩'은 국보로 승격 예고했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고려 천수관음보살도(高麗 千手觀音菩薩圖)'는 14세기경에 제작된 고려 시대 작품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관음보살의 자비력을 극대화한 불화다.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변색되었으나, 11면의 얼굴과 44개의 손을 지닌 관음보살과 화면 위를 가득 채운 원형 광배, 아래쪽에 관음보살을 바라보며 합장한 선재동자, 금강산에서 중생이 떨어지는 재난을 묘사한 타락난(墮落難) 등 관음신앙과 관련된 경전 속 도상을 충실하게 구현했다. 화면 요소마다 화려한 색감과 섬세한 필력으로 대상을 정확하게 묘사해 매우 우수한 조형감각을 보여준다.

문화재청 "고려불화 중 현존 유일하게 알려진 천수관음보살도"라며 "다채로운 채색과 금니(金泥)의 조화, 격조 있고 세련된 표현 양식 등 고려불화의 전형적인 특징이 반영된 작품으로, 종교성과 예술성이 어우러진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함께 지정예고된 '제진언집 목판(諸眞言集 木板)'은 1658년(효종 9년) 강원도 속초 신흥사에서 다시 새긴 '중간(重刊) 목판'으로, 〈불정심다라니경〉·〈제진언집목록〉·〈진언집〉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이 목판은 1569년(선조 2년)에 안심사에서 처음 판각됐으나, 안심사본 목판은 현재 전하고 있지 않아 신흥사 소장 목판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판본에 해당한다.

한글, 한자, 범어(梵語)가 함께 기록된 희귀한 사례에 속하며 16~17세기 언어학과 불교의례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조선 초기 명필가 성달생(成達生)과 성개(成槪) 형제가 부모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법화경(法華經)〉을 정서(精書)한 판본(板本)을 바탕으로 1405년(태종 5년) 전북 완주군 안심사에서 승려 신문(信文)이 주관해 간행한 불경이다.

구결(口訣)이 전반적으로 표기되어 있고 한글로 토(吐)가 달려 있어 조선 초기 국어사 연구 자료로도 가치가 있다. 간행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발문을 통해 조선 초기 불경의 간행 방식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서지학과 불교사 연구에서도 학술적 가치가 높다.

한편, 문화재청은 '고려 천수관음보살도' 등 4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와 보물로 각각 지정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흥천사 관음삼존, 조선 후기 대표작"

문명대 교수, 11월 17일 한국미술사硏 학술대회서



서울 흥천사에 봉안된 수월관음상. 1701년 법잠 스님이 조성했다.

서울 흥천사에 봉안된 수월관음보살 삼존상이 조선 후기 조각사를 대표할 만한 중요한 문화재임이 확인됐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11월 17일 (사)한국미술사연구소와 한국불교미술사학회가 개최한 '600년 왕실 원찰 서울 흥천사 불상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문명대 교수는 '흥천사 불상의 성격과 1701년 법잠(法岑) 작 목조(木造) 수월관음보살 삼존상 및 복장품 연구' 기조강연에서 흥천사 수월관음삼존상의 도상 특징에 주목했다.

흥천사 수월관음삼존상은 주존인 수월관음상과 함께 좌우로 선재동자와 용왕이 협시돼 있다. 이 같은 도상은 서울 흥천사 이외에 보은 법주사, 남해 보리암 등 3곳에만 존재한다.

문명대 교수는 "흥천사 관음보살 삼존상은 선재동자와 용왕 또는 청조와 정병의 도상으로 이런 사례는 두 곳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법주사는 협시가 너무 작고, 보리암은 연대가 없는 작은 불감이어서 흥천사 삼존상이 유일한 예배상이기 때문에 크게 중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월관음에 선재·용왕 협시
흥천사 外 2곳만 희귀 사례
"18세기 양식 대표 기준작"

흥천사 수월관음삼존상은 조성기로 통해 1701년 법잠 스님이 조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본래 전북 임실 신흥사 적조암에 봉안돼 있었지만, 언제 현재의 흥천사로 이안됐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이에 문명대 교수는 "성북구 시기 흥천사의 신앙적 성격이 석가불에서 아미타불로 변했기 때문에 협시인 관음보살상이 크게 중요시 됐을 것"이라며 "법잠의 수월관음삼존상의 이안 시기는 19세기 중엽 전후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명대 교수는 흥천사 수월관음삼존상이 18세기 초기 대표작임을 거듭 강조했다. "사각형의 친근하고 원만한 얼굴, 벌어진 상체 등과 함께 화려한 보관은 색난계 목조보살상에서 주로 표현되는 양식"이기 때문이다.

문명대 교수는 "1701년 법잠 스님이 조성한 흥천사 수월관음삼존상은 18세기 보살상 양식을 대표하는 기준작"이라면서 "조선 후반기 조각사에서 귀중한 의의를 가진 대표작 중 하나로 높이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흥천사 목조 아미타불상과 대세지보살상 연구(심주완 조계종 호계원 팀장) △흥천사 노전 약사(1829)·아미타·지장보살상 연구(유근자 동국대 겸임교수) △흥천사의 불교사상(문무왕 동명대 연구교수) △흥천사 창건기의 문화재, 흥천사 동종 조사의 감동(최응천 동국대 교수가) 등의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불교음악 정체성은 무엇인가

조계종 불교음악원 12월 7일 제1회 학술세미나

한국불교 음악의 정체성을 학술적으로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불교음악원(원장 박범훈)은 12월 7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음악 정체성 탐구'를 주제로 제1회 불교음악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경전 상의 불교음악과 동아시아 불교음악의 미학적 의미를 확인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박범훈 불교음악원장, 윤소희 위덕대 학술연구교수, 손인애 조계종 포교원 의례실무위원,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위원 원명 스님이 발제자로 나서며, 논평에는 안승철 중앙대 국악대학 한국음악과 강사, 서정매 부산대 대학원 한국음악학 박사, 차형석 한양대 대학원 음악학 박사, 불교문예연구소 선임연구원 해사 스님이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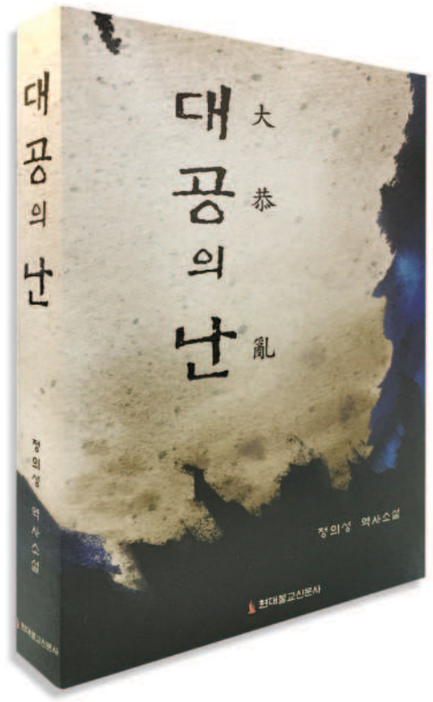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박재완의 PhotoEssay



금당으로 가는 길

계절을 오는 것으로만 알았지
사는 일도 그랬지
다가오는 것들만 보였지
언제부턴가 계절은 가는 것이었지
사는 일도 변했지
지나간 것들이 더 선명해졌지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계절이 가는 걸 알지 못했지

어느 늦은 가을날
금당으로 가는 길에서
바람에 날리는 마른 낙엽을 만났지
하필 금당으로 가는 길에서



정지천의 가족이 건강해지는 비법

⑮ 우황청심원은 누구나 먹어도 될까?

우황청심원, 藥과 毒의 두 얼굴

중풍이 오면 먼저 '우황청심원(牛黃淸心元)'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과연 효과가 클까? 동의보감에 보면 중풍으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가래가 끓으며 팔다리가 마비되고 경련이 일어나며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 쓴다고 나와 있다.

즉, 뇌혈관의 출혈이나 경색으로 뇌혈류의 순환 장애와 뇌신경의 마비가 오는 뇌졸중의 응급기에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협심증, 심장신경증, 부정맥, 자율신경 실조증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누구나 수시로 먹어도 괜찮은가?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혹은 면접이나 운전면허시험, 입학시험을 치르기 전에 먹는 경우를 비롯하여 그다지 병증이 없는데도 컨디션이 좀 좋지 못하다고 해서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어느 약도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당연히 누구나, 아무 때나 먹어도 되는 약이란 없는 것이다. 청심원도 체질에 맞지 않는 사람이 먹으면 탈이 날 수 있다. 몸이 냉하고 추위를 잘 타거나 찬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구급약으로 쓸 때는 체질을 불문하고 먹어도 되나?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사불성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청심원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의식장애를 일으키는 병증 가운데 몸이 따뜻하고 입에 가래가 많이 끓으며 맥박이 들뜬 상태이면 '중풍(中風)'이니 우황청심환을 쓰고, 반대로 몸이 차고 가래가 없으며 맥박이 가라앉은 상태이면 '중기(中氣)'이니 소합향원(蘇合香元)을 쓰라고 나와 있다. 만일 약을 바꾸어 쓰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우황청심원이 중풍이나 고혈압, 심장병 환자 모두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다. 청심원은 차가운 성질이므로 심장과 간장의 열이 높은 경우에만 효과적이다. 만약 심장에 열이 별로 없거나 체질적으로 양기가 허약하거나 혹은 오래 질병을 앓아서 양기가 쇠약해져 몸이 냉한 사람이 청심원을 복용할 경우 양기를 더욱 식혀버려 해가 될 수 있다.

화병에도 효과가 있을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화가 나는 것을 참아 두면 그것이 쌓여서 열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신경성 열을 청심원이 내려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스트레스와 분노가 쌓여 풍과 열이 치밀어 오르는 것이 중풍의 직접적인 유발 원인이다. 그래서 요즘 같은 뒤숭숭한 시대에는 화병(火病)으로 인한 중풍, 심장병 발생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화병도 체질에 따라 청심환이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화병이 심하여 야기되는 중풍,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뇌졸중의 응급치료제로 쓰이는 우황청심원.

냉한 체질은 주의해야
화병에도 체질따라 도움 돼
잘 못 쓰면 '독' 될수도

우황청심원에는 어떤 약재들이 들어가나?

청심원은 30가지 한약재로 이루어져 있다. 주된 약재 중의 하나인 우황(牛黃)은 담석증에 걸린 소의 쓸개에서 채취한 내용물로써 열을 내려주며 심장의 열을 맑혀 주는 '청심(淸心)' 효능이 뛰어나다.

또한 기와 혈의 통로를 소통시켜주고 담을 없애주며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해독 작용도 있다. 그래서 열이 높고 가슴이 답답하며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멎게 하므로 중풍으로 의식장애가 있고 가래가 많을 때 쓰는 것이다. 고혈압, 부정맥에도 좋다. 우황은 아이들이 '경기(경풍, 驚風)'를 해서 열이 심하고 정신이 없으며 팔다리가 뒤틀릴 때 특효약인 '우황포룡환(牛黃抱龍丸)'의 주된 약이기도 하다.

다른 구성 약재들은 어떤 효능이 있나?

사향, 서각, 영양각 등이 들어가고 특이하게 우리가 흔히 먹는 콩나물도 들어간다. 사향(麝香)은 사향노루의 배꼽에 있는 향주머니에서 나오는 향기가 진한 분비물인데, 기를 잘 통하게 하여 신체의 모든 곳을 잘 소통시켜 준다. 그래서 중풍 등으로 인사불성이 된 경우에 깨어나게 하는 등 구급약으로 쓰임새가 많다. 서각(犀角)은 코뿔소의 뿔로서 심장과 간장 그리고 위장의 열을 없애주며 풍과 담을 물리치고, 열이 치솟아 코피가 나거나 피를 토하는 것을 멎게 하는 데 특효약이다. 영양각(羚羊角)은 영양의 뿔로서 심장과 간장의 열을 맑혀 주며 풍을 몰아내고 근육을 부드럽게 하며 눈을 맑게 하고, 간질의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청심원에 콩나물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약효가 있기 때문인가?

콩나물을 음지에서 말려 한약재로 쓰는데, '대두황권(大豆黃卷)'이라고 한다. 습기와 열기, 특히 위장에 쌓인 열을 풀어주며 기운을 잘 통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몸속에 노폐물과 덩어리가 쌓여 오래된 것을 풀어 주고 어혈도 제거해 준다. 그래서 청심원에 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땀을 잘 나게 하므로 몸이 퉁퉁한 사람이 운동부족으로 찌뿌둥하고 결리고 저리거나 근육이 뒤틀리고 무릎이 아픈 경우에 좋다. 감기 초기에 콩나물국을 먹기만 해도 잘 낫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리고 몸이 붓거나 가슴과 배에 물이 많아 배가 부르고 답답한 경우,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효과가 있다.

중국제도 있는데 우리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나?

중국제가 좋다고 여기는지 중국 여행을 다녀오면서 청심원을 잔뜩 사 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중국제 청심원은 불과 5~6가지 한약재로만 조제했기에 약효가 훨씬 떨어진다. 중국제품의 설명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주된 약재인 우황의 품질도 한국산이 훨씬 좋기에 예로부터 구급약으로 우리나라의 청심원이 첫손으로 꼽혀왔던 것이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 선생이 청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청심원을 선물로 많이 준비해 갔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에 혈안이 되었다고 '열하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 (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황금룡을 집안으로

황룡나한과 복호나한

황룡나한은 용위에 큰복을 실어다 줄 것이며
복호나한은 악귀를 물러치고 삼재를 소멸하여 들어온 복을 지켜 줄 것입니다.

나한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리며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자 이시다.

황룡나한은 미륵불의 화신이라고 하며, 황금룡을 타고 다니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해 주신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치며 삼재을 소멸하여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어 준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8명의 나한들에게 부탁 하시기를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줄것을 당부 하였으니 16명의 나한들은 그들의 권속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설파하고 황룡나한과 복호나한은 거처를 정하지 않고 세상을 두루 돌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하고 악을 몰아내며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고 있다.





- 족자 크기 : 세로 120cm × 가로 54 cm
  족자 1개 금액 : 10만원
  족자 2벌 구입시 19만원에 드립니다.
- 그림 크기 : 세로 67cm × 가로 44 cm
  금액 : 그림당 7만원
- 구 입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구입하시는 모든 분께 18나한 설명서 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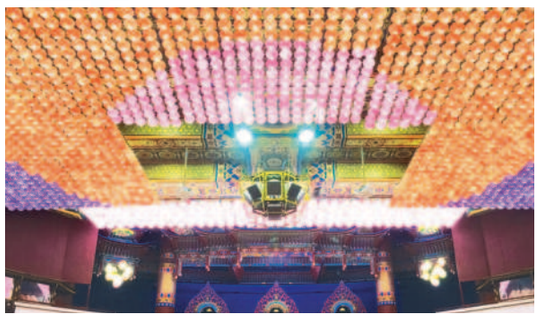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